

강 혜 선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한문일기를 활용한 일기 교육 방안

2005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이 인 옥

# 한문일기를 활용한 일기 교육 방안

강 혜 선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4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이 인 옥

# 인 준 서

이인옥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논문개요

현행 중등학교 과정에서 일기교육은 과정 교과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항목이다. 따라서 일기교육은 초등학교에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정작 제대로 일기교육을 하지 못하는 중등학교 과정인 청소년기에 일기가 가지는 교육적 의의는 더욱 크다. 청소년기는 가치관을 확립하고 자아를 성숙하게 하는 시기로 이때에 형성된 가치관을 바탕으로 남은 삶을 살아간다고 할 수 있는 시기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중요한 시기인 청소년기에 중등과정에서 일기교육을 하여야 함을 밝히고, 그 교육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학생들에게 지식보다도 중요한 것이 매일을 의미있고 행복하게 사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교사는 일기쓰기를 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교육적 사명을 갖고 무조건 일기를 쓰라고 하기 보다는 좋은 일기 작품을 제시해 주어 일기가 그 자체로 훌륭한 문학 작품임을 알게 하고 일기쓰기에 흥미를 갖게 하여야 한다.

선인들의 일기 작품에서는 시대와 사회가 변하였지만 여전히 유효한 교육적 가치들을 찾아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한문일기 작품을 주목한 것은 당대의 지식인이라 할 수 있는 작가들의 재기발랄한 글솜씨와 유학자로서 경건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태도 등이 일기 교육적 측면에서 좋은 자료가 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알려지지 않아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없었기에 읽기 자료로 제시하여 활용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한문일기 중에서도 생활일기, 여행일기, 유배일기를 중심으로 일기 교육 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생활일기란 특수한 경험을 제외한 평범한 일상을 기록한 일기라고 할 수 있다. 생활일기의 교육적 의의는 일기쓰기를 수행하면서 자아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고, 그렇게 확립된 자기 정체성을 바탕으로 하여 더 나은 글쓰기를 수행할 수 있다

는 것이다. 생활일기에서는 『미암일기(眉巖日記)』를 활용하여 매일 일기 쓰기를 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에게 일기쓰기가 어려운 일은 아니며, 전문적인 작가의 글처럼 반드시 미문일 필요가 없음을 인식시킨다. 또한 생활 속에서 일기의 글감을 찾고, 반복되는 일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관찰하고, 사색하며 자기의 일기쓰기에 적용하는 것을 연습하게 한다.

다음으로 여행일기를 활용한 일기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여행일기는 여행 과정에서 보고 듣고 느낀 체험을 일기의 형식으로 서술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오늘날의 개인의 여행과 성격이 비슷한 산수유람의 체험을 기록한 유람일기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유산기(遊山記)를 여행일기 자료로 활용하였다. 유산기에는 작가들의 역사의식과 사상 및 문학적 재능 등이 복합적으로 농축되어 있다. 또한 유산기는 작품 속에 갖가지 설화나 전설이 수용되어 있고 많은 수의 시도 포함되어 있어 작가의 문학적 소양을 마음껏 발산한 복합적 문학양식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처럼 여행일기에는 당대 지식인들의 심성수양과 심미체험, 문화 체험 등이 잘 나타나 있다. 요즘은 국내는 물론 외국 여행도 자유로워졌고, 학생들도 소풍이나 견학, 현장학습, 수학여행, 캠프 활동 등으로 단체 여행의 기회는 물론 가족간의 여행도 예전보다는 활발해졌다. 이러한 소중한 체험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은 학생들의 심미체험, 문화체험 등을 자아성숙으로 실현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여행일기의 장점을 일기교육에 적용하는 방안을 연구해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배일기를 활용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요즘은 유배라는 형벌이 없지만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서도 유배와 같은 좌절을 겪게 되는 일은 많이 있다. 현대는 과학의 발달로 물질적 풍요를 가져왔지만 부작용도 그 못지않게 발생한다. 청소년기의 학생들에게는 성적, 외모, 진로계획 등도 심각한 고민이나 좌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시련과 좌절

이 내게 일어났을 때 극복하는 방법을 유배일기인 『감담일기(坎齋日記)』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비록 좌절의 원인은 다르지만, 고통스러운 현실을 이겨 나가는 것이 자신의 의지밖에 없다고 하였을 때, 자신의 시련을 어떻게 견뎌 내고 있는지 유배일기를 통해 알게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기교육을 위해 한문일기 자료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고전 일기를 감상하는 것이 문학교육임과 동시에 일기교육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기쓰기를 하는 것은 인성교육임과 동시에 문학교육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선인들이 썼던 일기 작품을 감상하고 학생들이 일기쓰기의 다양한 방식을 이해하고 이를 자신들의 글쓰기에 활용할 수 있다면 고전교육과 일기교육을 모두 성취하는 것이 될 것이다.

# 목 차

## 논문 개요

I. 서론	1
1. 연구 목적	1
2. 연구사 검토 및 연구 방법	3
II. 일기의 개념과 일기교육의 현황	11
1. 일기의 개념과 전통	11
1) 일기의 개념과 형식	11
2) 일기의 전통	14
2. 현행 일기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19
III. 한문일기 유형별 활용 방안	28
1. 생활일기를 활용한 교육 방안	29
1) 일상의 기록을 통한 삶의 가치·의미 구현	31
2) 생활일기 교육 방안 - 『미암일기(眉巖日記)』 중심으로	35
(1) 내용의 특징	35
(2) 문체의 특징	43
(3) 생활일기 쓰기의 예시	47
2. 여행일기를 활용한 교육 방안	50
1) 여행의 기록을 통한 심미체험·문화체험·자아성숙의 구현	52
2) 여행일기 교육 방안 - 유산기(遊山記) 중심으로	55
(1) 내용의 특징	56
(2) 문체의 특징	67
(3) 여행일기 쓰기의 예시	71
3. 유배일기를 활용한 교육 방안	74
1) 유배의 기록을 통한 시련·좌절의 극복 의지 구현	75
2) 유배일기 교육 방안 - 『감담일기(坎窪日記)』 중심으로	78

(1) 내용의 특징	79
(2) 문체의 특징	95
(3) 시련·좌절의 극복 경험 쓰기의 예시	99
IV. 일기의 교육적 의의	102
1. 일기의 인성 교육적 의의	102
2. 일기의 문학 교육적 의의	107
V. 결론	111

참고문헌

ABSTRACT

# I. 서론

## 1. 연구 목적

본고의 목적은 고전일기에서 교육적 가치를 찾아보고, 이것을 활용하여 일기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려는 것이다.

일기 속에는 평범한 개인의 일상부터 국가와 개인의 운명에 관한 일들까지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있다. 일기의 작자들은 단조로운 일상생활 속에서도 일기를 썼고, 전쟁의 와중에서도 일기를 썼으며, 심지어는 풍랑에 휩쓸려 생사의 갈림길에 헤매면서도 일기를 남겼다. 따라서 일기는 개인이나 사회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료적 가치를 갖는다. 이에 일기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민속 등 여러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고, 각자의 관점에서 그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sup>1)</sup> 일기를 교육적 측면에서 보고자 하는 것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송재용은 일기문학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체험적 소재를 자신의 문학 세계로 삼는 일기문학이야말로 우리 삶의 실제적 증언이며, 현실성 있는 역사이자 문학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일기는 문학적 정립과 함께 새로운 연구방법론을 개발함에 따라 무한한 연구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장르라고 하였다.<sup>2)</sup>

그러나 현행 중등교육에 있어서 일기교육은 심각하다고 할 정도로 전무한 실정이다. 그것은 입시위주의 교육 정책 때문이기도 하지만, 일기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일기를 학생들이 성장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교육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데, 이것을 시간 여유가 있을 때

---

1) 정하영, 「조선조 ‘일기’류 자료의 문학사적 의의」 『정신문화연구』 65, 1996, 25~26쪽.

2) 송재용, 「한국 일기문학론 소고」, 『한문학논집』 14, 1996.11, 394쪽.

나 하는 취미 정도로 여기기 때문이다. 본고는 이러한 일기교육의 현실에서 일기의 교육적 의의를 알아보고, 왜 십대의 청소년기에 일기교육이 필요한지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우리의 한문일기에서 교육적으로 유용한 자료를 찾아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일기는 기술자 자신의 체험을 직접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재현해 놓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실적이며 정감적으로 서술해 놓은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될 문학연구의 한 분야이다. 따라서 일기문학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일기문학의 이론을 정립한다면 일기문학 연구는 문학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을 것이다.

일기교육에 있어서 교육 자료로 한문일기를 택한 것은 한문일기는 당시의 중심문자로 이루어진 작품임과 동시에 보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진 작품이라는 것이다. 향유계층 역시 이러한 읽고 쓰기가 가능한 당시의 지적 교양인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작품을 읽고 그 속에서 작가들의 가치관 인생관을 배우고 일기를 쓰는 태도를 본받아 자기 일기 쓰기에 적용하는 일이 바람직한 일기교육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한문일기 자료 중에서도 본고에서는 일상생활을 기록한 생활일기, 여행의 체험을 기록한 여행일기, 유배체험을 기록한 유배일기를 자료로 하여 일기교육 방법을 살펴볼 것이다. 자료를 제한한 이유는 본고에서 모든 한문일기를 다룰 수도 없거니와 필자가 일기교육을 통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아성찰, 가치관 형성, 심미체험, 자기 글쓰기 등을 위의 제한된 일기자료에서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이들 유형에는 다양한 작품들이 있다. 그러나 필자는 이들 가운데에서 조선후기 문학사와 관련된 각각의 시기에 해당하는 작품인 16세기의 『미암일기(眉巖日記)』와 17세기의 대표적 여행기록인 유산기(遊山記), 18세기의 『감담일기(坎窩日記)』를 연구대상으로 정하였다.<sup>3)</sup> 이를 통하여 16~18세기에 걸친 일기 형식의 통시적

인 모습을 찾을 수 있으며, 각 유형 작품들의 특징을 추출하여 일기교육에 적용하여 지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한문일기 자료들을 활용하여 인격수양, 가치관 형성, 심미체험 등을 살펴보고 이를 자기의 일기쓰기에 적용하도록 하는데 본고의 목적이 있다.

국문일기 역시 좋은 일기교육의 자료가 될 수 있지만 한문일기로 자료를 정한 것은 한문일기가 많은 교육적 의의가 있음에도 자료접근의 어려움 때문에 교사나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없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문일기를 읽고 선인들의 일상을 대하는 태도, 글을 쓰는 자세, 다양한 문체 등을 접하는 일은 그 자체로도 일기교육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하는 교육 방안을 활용하여 중등학교의 일기교육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2. 연구사 검토 및 연구 방법

본고에서는 한문일기 중에서도 생활일기, 여행일기, 유배일기를 활용하여 일기교육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일기의 유형에 대하여는 다음 장에서 살펴볼 것이지만, 대상을 한정하는 이유는 오늘날의 학생들에게 쉽게 공감을 불러올 수 있는 소재나 교육적 가치가 다른 일기 유형보다 풍부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III장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

본고에서 검토할 선행 연구물은 한문일기 중에서 학생들에게 유용한 일기 작품을 소개하고, 일기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는 것이다. 때문에 쉽게 접하고 읽을 수 있으며, 내용도 재미있는 한문일기 번역본으로 대상을 좁혀 보았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 일기의 전통적인 흐름을 시대별로 잘

---

3) 이들 작품에 관해서는 본고의 연구사 검토 및 연구 방법을 참고.

나타내 주는 작품으로 대상을 한정지어 보았다. 본고에서 다루려는 일기 작품은 다음과 같다.

- ① 16세기 사대부의 개인 생활일기인 『미암일기(眉巖日記)』
- ② 15세기~18세기 사대부들의 여행일기인 유산기(遊山記)
- ③ 18세기 개인의 유배일기인 『감담일기(坎窪日記)』<sup>4)</sup>

물론 왜 꼭 이 작품이어야 하느냐는 의문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이 작품들은 필자가 생각하는 일기교육의 자료로 활용하기에 적합하며 각각 16세기, 17세기, 18세기를 거치며 일기의 내용적 특징이나 문체적 특징 등을 다양하게 통시적으로 보여 줄 수 있어서 우리나라 일기의 전통적인 흐름도 알 수 있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일기 쓰기를 지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각각의 작품들의 일기 교육 방안에 대해서는 III장에서 자세하게 다루기로 하겠다.

16세기 사대부의 방대한 개인일기인 『미암일기(眉巖日記)』는 개인일기의 시원적 모습을 잘 보여주며 내용면에서 생활사 전반을 그리며 풍부한 일기의 소재를 제시하고 있다.

사대부들의 여행 관행이 잘 나타난 유산기(遊山記)는 조선전기 이후로 성행하였는데 조선후기에 집중적으로 창작된 것으로 보인다.<sup>5)</sup> 이러한 산수기행문의 명칭에 대해서는 연구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불려지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산행기록의 대표성을 갖는 ‘유산기’라는 명칭을 사용하겠다.<sup>6)</sup> 조선시대 한문 유산기는 수 백편에 달하고 있어 일기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작품이 풍부하다.<sup>7)</sup>

4) 각 작품의 자세한 내용은 III장의 각각의 일기 교육 방안 부분을 참고.

5) 소현수, 「조선시대 ‘유산기’를 통해 본 전통경관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논문, 2002, 16쪽.

6) 여행을 기록한 글의 제목은 실제 작품에 나타난 「유○○산기」 「유○○산록」 「유기(遊記)」 「유록(遊錄)」 「산수기(山水記)」 이외에도 기행록, 기행문 등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서술의 통일을 기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자(이혜순 외, 『조선 중기의 유산기 문학』, 집문당, 1997)들은 ‘유산록’을 체명으로 쓴 작품도 일괄되게 ‘유산기’로 통칭하였다. 본고에서도 서술의 통일을 기하고 본고에서 다룬 여행일기 작품이 산을 유람하고 쓴 것이므로 ‘유산기’로 통일하였다.

유배일기는 학생들의 생활 영역과 거리가 먼 것 같지만 18세기의 유배일기인 『감담일기(坎灘日記)』는 본고에서 추구하는 일기 교육적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작품이기에 대상에 포함시켰다.

다음으로 본고와 관련 있는 선행 연구를 몇 가지 측면에서 나누어 보았다. ① 일기문학 전반에 관한 연구 ② 개별 일기 작품에 관한 연구 ③ 일기교육 방법에 관한 연구 등으로 살펴보았다.

본고는 일기가 그 중에서도 한문일기가 어떻게 교육적으로 학생들에게 의미가 있으며 일기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①의 선행 연구에서 일기를 어떻게 인식하였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 수필문학사』<sup>8)</sup>에서 조선후기 일기문학의 중요성이 지적된 이래, 일기문학에 대한 연구도 비교적 진전이 있어 왔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여타 고전문학장르에 비해서는 소략한 편이다. 일기문학의 연구방법론과 사적 전개에 대한 논의를 깊이 있게 다룬 연구물은 개별 작품에 대한 것보다 더 미미한 수준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일기문학에 대한 무관심과, 연구방법론의 미정립 때문으로 보인다.

이우경<sup>9)</sup>은 주로 해석학적, 기호학적 방법론을 수용해 조선후기 일기를 다루고 있는데, 그 이론 전개가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감이 있다. 논자는 조선후기 일기를 체험 소재별 분류에 의해 그 대표적 유형으로 전쟁일기, 궁중일기, 여행일기, 유배일기, 표류일기 등으로 분류하여 논의하였다. 그러나 그 분류 기준이나 원칙이 분명하지 않으며, 무엇보다도 일상생활 일기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논급하지 않음으로써 조선후기 일기를 전체적으로

7) 장석우, 「한문 기행 연구」, 홍익대 석사논문, 1994, 16쪽.

8) 장덕순, 『한국 수필문학사』, 박이정, 1995.

9) 이우경, 『조선조 일기문학 연구』, 이화여대 박사논문, 1988.

\_\_\_\_\_, 『한국의 일기문학』, 집문당, 1995.

조망하는데 미흡하다.

송재용<sup>10)</sup>은 일기문학의 이론 정립을 위해서는 동양의 전통적 문학이론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여야 하며, 일기문학론의 기본적인 문제인 일기의 개념과 범위 등을 살피고, 이것을 토대로 일기의 서(序), 발(跋) 또는 내용 등을 중심으로 일기문학의 특성을 검토하였다.

윤원호<sup>11)</sup>는 『近世日記文의 性格研究』에서 일기에 나타나는 서술의 형태를 약서(略敍), 상서(詳敍), 서묘(敍描), 촌묘(寸描), 음영(吟吟) 등으로 분류하고, 이 틀에 맞추어 개별 작품론을 펼치면서 기록으로서의 일기가 문학으로서의 일기로 승화되는 양상을 논구해 나가고 있다. 여기에서는 사실에만 충실한 글을 일기라 하고, 사실을 근거로 하지만 그 사실을 초월한 창조적 의의를 지니는 것을 일기문학으로 보았다. 그리고 일기문의 특성으로 당일성(當日性), 즉실성(卽實性), 일차성(日次性), 연속성(連續性) 등을 들었다.

이제 개별 일기작품에 대한 작품론을 살펴보겠다. 일기문학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대상 중 상당수는 여성 작가들에 의해 저술된 국문일기이다.<sup>12)</sup> 반면 남성작가들에 의한 한문일기는 주로 정치사나 생활사의 측면에서 역사학계의 조명을 받아 왔지만,<sup>13)</sup> 근래에는 문학 연구자들에게도 본격적인 관

10) 송재용, 「한국 일기문학론 소고」 『한문학논집』 14, 1996.11, 393~431쪽.

11) 윤원호, 『近世日記文의 성격연구』, 국학자료원, 2001.

12) 선행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일기문학 자료는 아래와 같이 주로 국문으로 된 것들이 상당수를 이루고 있다.

이연성, 「『意幽堂 일기』의 문체고」, 이화여대 석사논문, 1974.

서종남, 「『화성일기』 연구」, 성신여대 석사논문, 1978.

박연호, 「『癸丑日記』와 당시 한문일기들의 대비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83.

김신연, 「『西宮日記』 연구」, 숙명여대 석사논문, 1985.

변순희, 「일기체 문학 『병자일기』 연구」, 울산대 석사논문, 1999.

서종남, 「조선조 『國文日記』 연구 - 『산성일기』와 『화성일기』의 심층적 고찰」, 성신여대 박사논문, 1994.

민영대, 「『癸丑日記』의 비극적 구성」, 『한남어문학』 11집, 1985.

이우경, 「『東溟日記』의 여행과정과 표현 이미지 분석」, 『국어국문학』 96집, 1985.

김경화, 「『丙子日記』에 대한 여성문학적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04.2.

13) 전경목, 「일기에 나타나는 조선시대 사대부의 일상생활 - 오희문의 「쇄미록」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19권4호, 통권65호, 1996.

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sup>14)</sup> 소논문 형식으로 발표된 한문일기 연구물 또한 소량이지만 꾸준히 연구되고 있다.<sup>15)</sup>

다음으로 본고에서 논의의 대상으로 삼은 작품들의 연구물을 보면 다음과 같다. 유희춘(柳希春, 1513~1577)의 『미암일기(眉巖日記)』는 전5권으로 국역되어 나와 있다.<sup>16)</sup> 최근의 주목할 만한 연구로는 정창권의 『홀로 벼슬하며 그대를 생각하노라』라는 단행본의 출간이다. 이 책은 『미암일기』를 중심으로 16세기 양반가정의 일상생활을 사실적으로 재현하였다. 의식주를 비롯한 유형의 생활사만이 아니라, 꿈과 사랑 같은 무형의 생활사도 중시하였고, 등불, 목욕, 화장실 같은 생활사도 폭넓게 다루었다. 그리하여 16세기만 하더라도 가정은 열린 공간이었으며, 여성의 힘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해석하고 있다.<sup>17)</sup> 『미암일기』의 선행 연구로는 송재용<sup>18)</sup>의 논문이 가장 포괄적이고 종합적이지만 이외에도 서지학, 여성학, 역사학 등에서 소논문 형식의 연구물이 있다.<sup>19)</sup>

---

이복규, 「조선전기의 민속 - 『목재일기』에 나타난」, 민속원, 1999.

- 14) 김명호, 「『熱河日記』 연구」, 창작과비평사, 1990.  
 송재용, 「『眉巖日記』 연구」, 단국대 박사논문, 1996.  
 김하라, 「日記文學으로서의 『欽英』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01. 등이 드문 예이다.
- 15) 이동찬, 「癸未(계미) 통신사행 기록의 장르 선택 -〈해사일기〉와 〈일동장유가〉를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제18집, 한국문학회, 1996.7.  
 이상주, 「이문건의 『양아록(養兒錄)』 -16세기 사대부의 자손 양육의 체험적 시편, 『한국한문학연구』 제19집, 한국한문학회, 1996.  
 현혜경, 「16세기 잡록(雜錄) 연구」 -〈음애일기〉〈용천담적기〉〈견한잡록〉을 대상으로, 『한국고전연구』 제6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0.12.  
 박을수, 「회와 윤양래의 일기 고찰」 -〈북천일기(北遷日記)〉의 발굴을 통해, 『연민학지』 제9집, 연민학회, 2001.  
 임치균, 「『간양록(看羊錄)』 연구 : 사실 제시와 체험의 형상화」, 정신문화연구 2001 여름호 제24권 제2호(통권 83호).  
 이승복, 「적소일기(謫所日記)의 문학적 성격과 가치」, 『고전문학과 교육』 제5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3.2.
- 16) 담양향토문화연구회, 『미암일기』 전5권, 1992~1996.
- 17) 정창권, 『홀로 벼슬하며 그대를 생각하노라』, 사계절, 2003.
- 18) 송재용, 「『미암일기』 연구」, 단국대 박사논문, 1996.
- 19) 구완희, 「조선 중엽 사족열자녀의 속량과 혼인」 『경북사학』 8, (1985.9), 41~80쪽.

유산기는 앞서 언급했듯 한 편의 작품이 아니다. 유산기는 산을 유람하고 기록한 일기형식의 기행문이다. 본고에서는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여행일기인 유산기 중에서 몇 개의 유산기를 중심으로 여행일기 교육 방안에 활용하였다. 대상으로 삼은 유산기의 한문 번역본은 『명산답사기』<sup>20)</sup> 『선인들의 지리산 유람록』<sup>21)</sup> 『금강산 답사기』<sup>22)</sup> 『17세기의 금강산 기행문』<sup>23)</sup> 『궁핍한 날의 벗』<sup>24)</sup>이다.

『감담일기』는 18세기 사대부 문인 김려(金鑣, 1766~1821)의 유배일기이

- 이성임, 「조선중기 어느 양반가문의 농지경영과 노비사환」 『진단학보』 80, (1995.12), 115~151쪽.  
 이성임, 「16세기 조선 양반관료의 사환과 그에 따른 수입」 『역사학보』 145, (1995.3), 91~146쪽.  
 배현숙, 「선조초 교서관활동과 서적유통고」 『서지학연구』 18, (1999.12), 221~251쪽.  
 배현숙, 「유희춘이 판각을 주도한 서적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제34권제3호 (2003.9), 277~295쪽.  
 박미혜, 「16세기 부권(夫權)과 부권(婦權)의 존재 양식」 『한국여성학』 제18권1호(2002.6), 5-36쪽.  
 송재용, 「『미암일기』에 나타난 인간 유희춘」 『퇴계학연구』 제16집, (2002.8), 153~166쪽.

- 20) 『명산답사기』는 『동문선(東文選)』이나 개인 문집에 실려 있는 등산 기행문을 선발하여 번역한 책이다. 서명응, 이곡, 남효운, 김창협, 임춘, 김종직, 김일손, 유호인, 정구, 이덕무, 이규보, 석천인, 이주, 채제공, 최익현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저자들이 모두 당대를 대표하는 석학이자 문장가로, 작품을 읽다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들의 생애나 사상 이전의 인간적인 참모습과 만나게 된다. 고려시대의 작품은 불교적 고증이 자세하고, 조선시대의 작품은 유가의 도학적 성찰과 백성을 다스리는 일에 대한 충정, 국경을 지키는 일에 대한 견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 김창협 외, 민족문화추진회 편, 『명산답사기』, 솔출판사, 1997.
- 21) 『선인들의 지리산 유람록』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선인들이 지리산을 유람하고 남긴 유람록을 번역한 책이다. 남명 조식 선생이 지리산 유람을 통해 “산을 보고 물을 보고, 그리고 인간을 보고 세상을 본다”고 한 말처럼 이 유람록은 산의 의미를 한 차원 높여 주고 있다. - 최석기 외 옮김, 『선인들의 지리산 유람록』(돌베개, 2000)은 이륙, 김종직, 남효운, 김일손, 조식, 양대박, 박여량, 유몽인, 성여신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 22) 『금강산 답사기』는 조선시대 선비들의 금강산 유람기 중에서 역자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 8작품을 선별해 놓았다. - 남효운 외 저. 김용곤 외 역, 『금강산 답사기』(혜안, 1998) 저자들은 이곡(고려), 남효운, 이원, 성제원, 홍인우, 이정구, 정엽, 박성원 이다.
- 23) 『17세기의 금강산 기행문』은 17세기에 한문으로 씌어진 금강산 기행문을 번역한 것이다. 17세기는 병자호란과 인조반정 등 내우외환으로 피폐해진 상태였다. 고통스런 현실의 갈등으로부터 금강산을 찾아갔던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던 필자들은 아름다운 금강산의 자연 속에서 자신의 내면을 다시 성찰하면서 인생의 의미를 재음미하는 진지한 모습들을 보여준다. - 이정수 외 편역, 『17세기의 금강산 기행문』(강원대학교 출판부, 2000)은 이정구, 권엽, 정엽, 이명준, 신익성, 이명환, 이경석, 홍여하, 김득신, 김창협, 김수중, 이동표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 24) 『궁핍한 날의 벗』은 18세기 사대부 문인 박제가(1750~1805)의 글을 모은 책으로 여기에는 그가 20세 때 묘향산을 유람하고 쓴 「묘향산소기」가 실려 있다. - 박제가 지음, 안대회 옮김, 『궁핍한 날의 벗』, 태학사, 2000.

다. 『감담일기』는 북한에서 출판된 『김려작품집』에 번역본이 실려 있다.<sup>25)</sup> 『감담일기』 자체에 대한 연구물보다는 김려의 전반적인 작품에 대한 연구물이 더 많은데 일기의 특성상 작가에 대한 연구 역시 일기 작품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sup>26)</sup>

다음으로 일기교육 방법에 대한 연구물을 살펴보겠다. 많은 연구 논문들이 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글쓰기 능력 신장에 초점을 두고 있다.<sup>27)</sup>

중등교육에서는 일기교육이 의무사항이 아니기에 이 분야에 대한 연구 논문은 찾기가 힘들었다.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한문일기를 활용한 일기교육 분야의 논문 역시 찾기가 어려웠다.

이상 위의 연구물을 기초로 한문일기를 활용하여 일기의 교육적 측면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II장에서는 일기의 개념과 전통에 대해 알아보고 현재 일기가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교육되고 있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그 대상을 7차 교육과정의 국어교과서(7-10학년)와, 고등학교 문학교과서에 실려 있는 일기작품으로 정하고, 교과서에 실려 있는 일기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그 작품의 학습 목표는 무엇인지, 그리고 학생들은 그 작품을 통해

25) 김려 지음, 오희복 역, 조선고전문학선집 72 『김려작품집』, 문예출판사, 1990.

26) 허준구, 「담정 김려의 시세계」, 성균관대 박사논문, 2001.

정병호, 「김려의 전(傳)연구」, 경북대 석사논문, 1988.

박준원, 「담정 김려 시 연구」, 성균관대 석사논문, 1984.

류수연, 「김려의 ‘사유약부’ 연구」, 세종대 석사논문, 2004.

27) 장규순, 「일기쓰기를 통한 쓰기 능력 신장」, 단국대 석사논문, 1995.

김성기, 「일기쓰기 지도방법이 작문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 석사논문, 1998.

홍기욱, 「일기 쓰기를 통한 글쓰기 능력 신장 연구」, 아주대 석사논문, 2000.

장원주, 「만화일기의 국어교육적 의미 연구」, 진주교대 석사논문, 2000.

윤여준, 「분석지도를 통한 일기 쓰기 능력 신장 연구」, 공주교대 석사논문, 2000.

천은정, 「대화 일기를 통한 한국어 쓰기 교육 연구」, 경희대 석사논문, 2003.

우영선, 「NIE 일기 쓰기를 통한 글쓰기 능력 신장 방안 연구」, 경희대 석사논문, 2003.

배소현, 「일기의 ‘유형별 지도 매개’구안과 적용으로 창의적 작문력 신장」 『연구논문집』 제50집, 부산직할시 교육연구원, 1991.

조남호, 「‘실천 일기’ 쓰기 지도를 통한 실천적 인성 교육 방안에 관한 연구」 『부속학교 교육논문집』 17,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1996.12.

어떤 학습활동을 하는지 알아보겠다. 이를 통해 현행 일기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찾아본다. III장에서는 바람직한 일기교육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체적인 한문일기 자료를 활용하여 일기의 여러 가지 교육적 측면에 대해서 살펴보고, 일기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것이다. IV장에서는 일기의 교육적 의의를 종합해 보고 결론에서는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며 마무리 짓는다.

좋은 일기란 솔직하게 자신의 내면을 담아내고, 스스로를 성장시켜 줄 수 있는 글쓰기라고 생각한다. 학생들이 일기쓰기에 부담을 느끼지 않고, 스스로 일기쓰기를 할 수 있도록 그 중요성과 가치를 인식시켜 주는 일 역시 국어교사가 담당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장의 중등 교육현실에서는 교사가 얼마나 일기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좌우될 수밖에 없다.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가치관 형성이 중요한 십대에 일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교육적 가치들을 잘 활용한다면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Ⅱ. 일기의 개념과 일기교육의 현황

### 1. 일기의 개념과 전통

#### 1) 일기의 개념과 형식

‘일기는 개인이 매일매일 경험한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 그 형식은 산문이며 수필문학의 범주에 속한다. 그러나 일반 수필처럼 발표를 전제로 한글이 아니기 때문에, 사생활의 비밀은 물론 그 밖의 개성적인 단면이 그대로 노출되어 버린다. 그만큼 진실성이 짙은 글이 일기이다. 일기에는 날짜와 기상의 변화가 나타나 있고, 그날그날 듣고 본 견문기와 자기의 비판이 가미되어서 당시의 사회상과 필자의 사상을 아는데 좋은 자료가 된다.’<sup>28)</sup>

일기는 시간성과 사건의 순차성이 보편적으로 중시되는 편년체(編年體) 기술 방식을 따르고 있다. 이 경우 축일기록을 원칙으로 한다. 간혹 어떤 사건(대개 사회·정치적 사건) 또는 특별한 주제에 대하여 기사본말체(紀事本末體) 기술 양식을 지향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주로 부정기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 기술방식은 주로 사건 중심 또는 특별한 주제나 관심 부분에 대해 기술하기 때문에 연월일의 시간기록은 그 사실성을 보충해 주는 정도의 구실을 한 것으로 보인다. 부정기적 기술방식의 경우, 연월일 시간기록을 어떻게 처리했느냐가 문제이다. 부정기적 기술에 있어서 연도별순으로 쓰여졌으면 일기로 볼 수 없다. 또 월별순으로 사실을 그대로 기록한 경우, 넓은 의미의 일기로 볼 수도 있다. 또한 부정기적 일자순 기술에 있어 일자를 명확히 기술했을 경우에도 일기로 본다. 따라서 일기란 ‘자신이 일상 생활이나 체험 등을 통하여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일정기간 동안 축일 또는

28) 장덕순, 『한국수필문학사』, 도서출판 박이정, 1995, 145쪽.

부정기적 일자순으로 기술한 글'을 말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sup>29)</sup>

일기는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는 글쓰기 양식은 아니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이 기본적인 형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일기는 일자(日字), 기상, 사건, 감상, 메모 등을 갖추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자는 일기의 기본 요건이다. 어떤 종류의 일기이든 연(年)이나 월(月), 일(日) 등을 표시하는 일자를 반드시 지녀야 한다. 일자를 지니지 않는 일기는 수필 등 다른 형식의 글과 혼동되기 쉽다.<sup>30)</sup>

일기가 일자를 지니지 않으면 역사적 기록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 일기는 그 기본 요건으로 일자를 지니기 때문에 한 개인의 생생한 삶의 기록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특히 한 개인의 생생한 삶의 기록으로서의 일기 속에는 글쓴이의 정신적 성장 과정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게 마련인데, 일기가 이런 정신적 성장 과정을 생생히 보여 줄 수 있는 것은 일자를 지니는 형식적 요건 때문이기도 하다. 일기가 일자를 지니기 때문에 주는 이점은 이외에도 글에 역사적 현장감을 부여한다든가 절기에 따른 계절감을 자아내게 한다든가 하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일기에서 그날의 기상 상태에 대해 기록하는 일은 필수 요건은 아니다. 그러나 일기에는 그날의 기상에 대한 간략한 기록이 일자 다음에 뒤따르는 것이 보편적이다. 일기에 흔히 기상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 것은 인간의 삶이 기상과 매우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날씨가 화창하다든가 비가 온다든가 하는 기상 상태의 변화에 따라 우리의 감정도 변화를 일으키며, 우리의 감정이 변화하면 우리의 삶도 변화를 일으킨다. 이처럼 알게 모르게 그 날의 기상 상태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간과할 수 없다. 일기가 대체로 기상에 대한 기록을 지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29) 송재용, 「『미암일기』 연구」(단국대 박사학위논문, 1996) 24~25쪽에 일기의 명칭과 의미, 13~29쪽에 일기의 범위와 종류에 관해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30) 일기의 형식에 관한 내용은 서울시립대학교 교양교재편찬위원회, 『대학인의 글쓰기』(새문사, 1999) 91~93쪽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기상에 대한 기록은 맑음, 흐림, 개었다 흐림 등과 같이 간략히 기록하는 것이 보통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자세히 기록할 수도 있다. 특히 기상 상태가 그날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면 그날의 기상에 대해 자세히 기록할 수도 있으며, ‘비’ 혹은 ‘눈’ 등과 같이 기상 그 자체를 소재로 하여 명상적, 혹은 감상적으로 기록해 갈 수도 있다.

일기에서 사건은 하루에 발생한 일 중 ‘나’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으로 일기의 중요한 소재가 된다. 4·19나 5·16과 같은 중요한 역사적 사건, IMF 같은 경제적 사건, 9·11, 이라크 침공 같은 정치적 사건 등은 물론 가정 내에서 일어난 사건이나 친척, 친구, 이웃 간에 벌어진 사건 모두가 ‘나’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일기의 소재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사회의 한 구성원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사회의 제반 사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꼼꼼히 따져 보며 일기를 써가는 일도 일기가 주는 흥미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일기에서의 사건의 기술 방식에는 일정한 제한이 없다. 그날 일어난 사건의 성격에 따라, ‘나’의 삶과의 관련성 여부에 따라 자세히, 혹은 간략히 기술할 수도 있으며, 일어난 사건에 생동감이나 현장감을 주기 위해 보고문 형식, 혹은 소설 형식을 취할 수도 있다. 사건을 여러 방식으로 기술해 보는 일도 일기의 형식을 다채롭게 하거나 문장력을 신장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일기에는 사건과 함께 감상이 뒤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건이 객관적 사실의 기술에 중점을 둔다면 감상은 개인의 주관적 감정의 기술에 치중한다. 그날에 발생한 사건을 되도록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이에 대한 주관적 감상을 기술하는 것이 일기의 요체이다.

주관적 감상의 기술은 진솔함을 토대로 한다. 일기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글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에 대한 호오나 비판, 감상 등 주관적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출할 수 있다. 일기가 자신의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게 하고 또 스스로의 정신적 성장의 궤적을 추적해 볼 수 있게 해 주는 까닭은 바로 이 때문이다.

메모는 모든 일기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요건은 아니다. 개인의 사료적 가치를 위해 그날에 있었던 편지나 인사, 집회 등을 간략히 기록해 두는 것도 권장할 만하다.

## 2) 일기의 전통

일기는 보통 연월일과 날씨가 기록되고 그 날에 일어난 일이나 가졌던 느낌을 기술하는데, 흔히 주어는 생략된다. 이런 형식을 띤 일기는 단 하루만을 기록하였어도 일기라 할 수 있으나 이는 특이한 것이고 대개는 일정 기간의 기록을 일기로 본다. 일기는 즉시(即時)의 기록이며, 이점에서 기록의 사실성이 회고담에 비해 대단히 높다. 이 점에서 과거의 일기는 역사적 자료로서 중요성을 가진다.<sup>31)</sup>

우리나라에서 일기 쓰기가 어떻게 시작하였으며, 그 종류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일기가 갖는 자료로서의 성격은 어떠한지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에서 ‘日記’라는 용어가 題名에 처음으로 나타난 것은 고려시대 무신집권기에 활약한 이규보(李奎報, 1168~1241)의 『東國李相國集』에 실려 있는 「南行月日記」(1201년)에서이다. 그러나 이는 초록을 잡은 것을 몇 년이 지난 후에 문장체로 수정한 것이므로 참다운 일기라고 할 수 없지만, 일기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 시원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규보는 ‘日錄’을 ‘날마다 기록한다’는 뜻으로 이해한 것 같다. 그러므로 그는 日記를 日錄보다 포괄적 범주에 속하는 의미로 이해한 듯하다.<sup>32)</sup> 이규보는 “젊었을

31) 정구복, 「조선조 일기의 자료적 성격」 『정신문화연구』 65호, 1996.12월, 3~4쪽.

32) 송재용, 「『미암일기』 연구」, 앞의 논문, 10쪽.

때 분주히 쫓아다니며 노닐던 자취를 어제 일과 같이 또렷하게 볼 수 있으리니 족히 나의 울적한 마음을 풀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여 이 기록을 남기게 된 동기가 자신이 경험한 바를 기억하는 데 있음을 밝혔다. 이 글은 오늘날 일기보다는 기행문으로서의 성격이 강하지만 13세기 초에 이미 개인의 신상에 관한 일들을 기록하는 일기가 존재했다는 좋은 예가 된다.

우리나라에서 매일 매일의 기록을 남긴 흔적은 『三國史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고구려본기, 백제본기는 거의 모든 기록이 年月의 기록으로 되어 있지만 오직 신라본기 중 삼국 통일전쟁의 기사는 연월일로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이는 매일 매일의 기록이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일상적인 기록을 매일 매일 남기도록 전문 史官이 활동하는 사관제도(史官制度)가 국가적으로 설치된 것은 고려 광종 때이며, 사관들이 기록한 자료를 가지고 왕이 죽으면 실록으로 편찬되어 왔으며 이런 전통은 조선 왕조 말까지 지속되었다. 한국에서 일기의 시작은 늦어도 사관제도가 설치된 고려 광종조 이후라고 생각한다.<sup>33)</sup>

그러나 일기를 보편화된 기록 형태라 보기에는 아직 이른 실정이었다. 그러다가 16세기에 이르러 경향(京鄕) 각지에서 독서인(讀書人=士大夫계층)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비단 관료뿐만 아니라 재야의 선비들도 자신의 나날을 기록한 일기를 많이 남기게 되었다.<sup>34)</sup>

국가의 관원이었던 사관의 기록을 사초(史草)라 하는데 조선시대 사관은 전임사관이었던 6명의 예문관 관원 외에 史官을 겸임하는 겸사관(兼史官)이 60여명에 달하였다. 그러므로 승정원의 승지는 자동적으로 겸사관이었으므로 정원일기(政院日記)를 매일 매일 빠짐없이 기록하였다. 이러한 문화적 전통은 문인들이 자신의 일상생활 기록을 소상히 남기려는 의식을 고조시켰고,

33) 정구복, 「조선조 일기의 자료적 성격」 『정신문화연구』 19권 4호, 통권 65호, 1996, 4~5쪽.

34) 정구복, 앞의 글, 5~6쪽.

일기가 문인들에게 보편화되었다. 조선조 관료는 고려후반기부터 학문을 하는 학자 겸 관료였다. 그러나 16세기 이후에는 비단 관료만이 일기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재야의 독서하는 선비들도 일기를 많이 남겼다. 이는 16세기 이후에는 서울에는 물론 지방에도 독서하는 양반계층이 크게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관료의 일기로는 유희춘(柳希春, 1513~1577)의 『미암일기(眉巖日記)』, 권문해(權文海, 1534~1591)의 『초간일기(草澗日記)』<sup>35)</sup>를 들 수 있고, 재야 사인(在野士人)의 일기로는 오희문(吳希文, 1539~1613)의 『쇄미록(瑣尾錄)』<sup>36)</sup>과 같은 것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한편 17세기와 18세기에 이르면 기록을 상세히 남기는 경향이 더욱 현저히 나타난다.

이 시기의 대표적 일기로 황윤석(黃胤錫)의 『이재난고(頤齋亂稿)』<sup>37)</sup>, 구상덕(具尙德, 1706~1761)의 『승충명록(勝聰明錄)』<sup>38)</sup>등이 있다.<sup>39)</sup>

16세기 이후 개인의 일기가 보편화된 것은 역사기록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문자기록을 자유롭게 남길 수 있는 문인 계층이 관료 이외에도 많은 사람에게 확장된 분위기에 연유한다고 할 수 있다.<sup>40)</sup> 16세기는 지방의

35) 『초간일기(草澗日記)』: 학자이자 관료인 권문해가 1580년부터 1591년까지 쓴 일기로서 관직에 있으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국사로부터 일상생활의 사사로운 일들까지 다양하게 기록하였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봉제사(奉祭祀), 접빈객(接賓客)의 내용이다.

36) 『쇄미록(瑣尾錄)』: 저자인 오희문이 1591년 동짓달 27일에 고향인 영동 황계(黃溪)를 다녀올 계획 하에 여행을 떠났다가 임란을 당하여 돌아오지 못하고 환도한 다음날인 1601년 2월 27일까지 9년 3개월간의 피란생활을 기록한 일기이다. 이 일기는 특히 임란중의 전세에 대한 정보교환에 대한 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37) 『이재난고(頤齋亂稿)』: 황윤석이 열 살 나던 해에 시작하여 세상을 떠나기 이틀 전까지 계속 집필한 일기이다. 날씨, 기후의 변화, 농사의 풍흉과 지진, 혜성의 상황을 적고 일식과 월식의 시각을 남기는 한편으로 자신이 날마다 겪는 사소한 일들, 독서와 토론, 작문, 견문, 기행, 학술적 논설에 이르기까지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다. 『이재난고』는 전체가 하나의 일기로서, 그 안에 시와 서간, 논술, 대화문, 다른 책의 초록 등을 연월일 순으로 첨부하고 있다. 이 일기는 대단히 구체성을 띄고 있어 18세기 후반의 역사와 사회문화를 연구함에 반드시 참고할 자료이다.

38) 『승충명록(勝聰明錄)』: 월봉(月峯) 구상덕이 만 20세가 되던 해부터 별세하기 사흘 전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한 일기이다. 구상덕은 고성(固城) 지방에 근거한 시골양반으로, 그의 일기는 개인의 생활일기이며 농촌의 삶에 밀착되어 있다.

39) 김하라, 앞의 논문, 32~34쪽.

문인들이 경제적 기반을 확립하고 교육활동과 문화활동을 적극적으로 개척한 시기이다. 16세기 사림들은 문학, 사학, 철학을 겸비한 학자들로써 웬만한 문인들은 개인의 저술을 죽은 후에 문집으로 만들었다. 문집에는 예외 없이 시(詩), 서문(序文), 서간(書簡), 상소문(上疏文), 비문(碑文), 행장(行狀), 잡저(雜著) 등이 실린다. 이들은 문장으로 잘 된 것만을 골라 편집된다. 그들이 쓴 모든 자료가 문집에 실리는 것은 아니다. 일기는 항용 문집 편집에서 제외되거나 간추려서 실는 것이 보통이다. 이는 일기가 세세한 생활기록이고 또 이를 쓴 사람과 접촉한 당시 사람들의 기록이기 때문에 제외되었을 가능성도 있고, 그보다는 문장학적으로 일기는 수정되지 않은 즉시의 기록이기에, 문학작품으로 남기기에 의미가 없다고 본 것이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된다.<sup>41)</sup>

선인들의 일기를 수집하고, 정리, 번역하는 연구는 학자들의 연구에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사람들이 소상한 일기를 쓰는 습관을 형성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들이 쓰는 일기는 현대사의 의식과도 깊은 관련을 가진다. 한 개인이나 단체의 모습을 매일 사진으로 찍어놓는다고 하여도 이는 형상의 모습일 뿐 그 내면에 흐르는 정신적 정서적 감동이나 성장을 담을 수는 없다. 오직 일기만이 생생한 성장과정을 보여 줄 것이고 현실의 문제를 반성할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하다.<sup>42)</sup>

일기는 오랜 전통을 가진 글쓰기 형식임에도 매일 기록한다는 기록의 성실성을 바쁜 현대인들이 지키기 어려운 점 때문인지 문학의 주류에서도 소외되어 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주변에서 고백적 글쓰기의 언술 행위를 많이 접할 수 있다. 각종 자서전, 에세이, 생애 구술담, 여행기 등은 모두 일기의 고백적 성격을 적용시키고 있다. 이처럼 자기를 표현하는 글이 많아진

40) 장덕순, 앞의 책, 146쪽.

41) 정구복, 앞의 논문, 6~7쪽.

42) 정구복, 앞의 논문, 13~14쪽.

현대의 글쓰기 방식에서 일기를 통한 글쓰기 교육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청소년기의 중등교육에 있어 일기가 가지는 교육적 가치는 매우 중요하다. 고백적 글쓰기인 일기는 학생들이 글쓰기에 쉽게 접근하여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이다. 또한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는 시기인 만큼, 그와 관련하여 학생들의 주체적인 자기 표현에도 기여할 것이다. 고전일기에서 이러한 일기의 장점들을 찾아 일기교육에 적용하는 활동을 하는 것은 일기의 전통을 지키면서 미래의 자아를 만드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기존의 일기를 연구한 연구물에 의존하여 일기의 유형을 분류해 보았다. 어떤 장르의 작품들을 분류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분류 기준을 세워야 한다. 그러나 그 기준을 세우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분류 기준도 절대적인 것이 될 수는 없다.

우선 일기는 씌어진 글에 따라 한문일기와 국문일기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한문이 국문의 기능을 대신하였던 중세에는 한문일기가 거의 대부분이고 국문일기는 부인들에 의하여 씌어졌다.

또한 일기는 公的인 일기와 私的인 일기로 구별할 수 있다. 공적인 것으로는 승정원의 기록인 승정원일기가 있으며 이런 일지적(日誌的)인 기록으로는 각사등록(各司謄錄)이 포함된다. 개인 문집에 흔히 전하는 경연일기(經筵日記)도 공적인 일기라고 할 수 있다.

일기는 씌어진 기간이나 대상에 따라 생활일기와 특수일기로 나눌 수 있다. 생활일기는 그 내용에 따라 관료생활 일기, 농가일기, 선비의 일기, 기타 생업일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특수일기에는 외국에 사신으로 다녀온 일을 기록한 사행일기(使行日記), 풍랑으로 인하여 표류되었다가 돌아와 쓴 표류일기, 여행일기, 전쟁일기, 피난 일기, 유배일기 등이 있고 또한 서원이나 향교의 수리를 기록한 영건일기(營建日記), 성의 축성관계 일기가 있다. 넓은 의미로 해석한다면 조선시대 국가적 대행사를 치른 후에 그 과정

일체를 기록해 놓은 의궤류도 일기의 범주에 넣을 수 있을 것이다.<sup>43)</sup>

사행일기에는 명나라나 청나라 등 중국에 사행 간 일기와 일본에 사행 간 일기가 있다. 명에 사행 간 일기를 「조천록(朝天錄)」, 청나라에 사행 간 일기를 「연행록(燕行錄)」으로 통칭한다.<sup>44)</sup> 일본에 갔다 온 사행일기는 「동사록(東槎錄)」 또는 「해사록(海槎錄)」으로 통칭한다. 표류일기(漂流日記)는 「표해록(漂海錄)」으로 범칭된다. 또한 여행하는 동안의 일기로는 이첨(李詹)의 관광록(觀光錄)을 위시하여 금강산 기행일기<sup>45)</sup> 등이 있다. 전쟁기간의 기록을 일기로 남긴 전쟁일기, 의병활동을 일기로 남긴 의병일기, 피난일기, 유배일기 등을 들 수가 있다.<sup>46)</sup>

본고에서는 이러한 일기의 유형 중에서 일상생활을 기록한 생활일기와 여행의 체험을 기록한 여행일기, 시련과 좌절을 극복하는 유배일기를 중심으로 일기교육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른 일기 유형에서도 교육적 가치를 찾을 수 있겠지만, 본고에서 일기교육을 통해 얻고자 하는 교육적 가치를 위 세 유형의 일기들이 함유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2. 현행 일기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이 장에서는 현재 중·고등학교 국어와 문학교과서에서 학생들이 어떤 일기 작품을 배우고, 그 작품을 통해 하는 학습 활동은 무엇인지 알아보겠다. 이를 토대로 일기교육의 문제점을 찾아보고 좀더 효율적인 일기교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국어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일기 작품이나 관련 학습 내용을 보면

---

43) 정구복, 앞의 논문, 8쪽.

44)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3, 지식산업사 제3판, 1994, 431~432쪽.

45) 최강현 역주, 『지암(遲庵)의 해산록(海山錄)』, 국학자료원, 1995, 134~136쪽.

46) 정구복, 앞의 글, 8~9쪽 참고.

다음과 같다.<sup>47)</sup>

학년·학기·과목	대단원명·소단원명·수록 작품/일기 관련학습	대단원 학습목표	소 단 원 학습목표	일기 관련 학습 활동
7·2생활국어	1. 생활과 글쓰기 (1)생활 속의 글쓰기	· 글을 자주 쓰는 습관을 지닌다. · 쓰기와 말하기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 수 있다. · 영화를 소개하는 글을 쓸 수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일기 쓰기에 대해 생각해 보자.
9·1국어	부록 ▶ 함께 하는 독서 3. 독서 일기 쓰기			· 책을 읽고 정리하는 활동 중의 하나가 독서 일기를 쓰는 것이다. 그날 그날 자신이 읽은 작품에 대해 느낀 점을 형식이나 내용에 구애받지 않고, 나만의 개성 있는 방식으로 독서 일기를 꾸며 보자.
9·2국어	3.작가의 개성(읽기/문학) ▶ 보충·심화 ④ 일야구도하기(박지원)	· 글에 드러난 작가의 개성을 찾을 수 있다. · 글에 드러난 작가의 개성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말할 수 있다.		· 지은이는 경험을 통해 무엇을 깨달았는지 정리해 보자. · ‘일야구도하기’를 읽고 지은이의 개성에 대해 생각해 보자.
10·국어(상)	2. 짜임새 있는 말과 글 ▶ 보충 학습 · 가람 일기(이병기)			· 7월1일의 일기를 문장의 짜임새에 따라 분류해 보자. · 다른 날의 일기를 골라 어떤 짜임새인지 분석하여 보고 각각의 일기에 쓰인 문장의 짜임새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7-10학년 과정의 국어 교과서에서는 일기교육을 글쓰기 교육의 측면에서 다루고 있다. 그것도 7학년 생활국어의 ‘생활 속의 글쓰기’ 단원에서만 언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은 고등학교 문학교과서의 일기작품 수록 양상을 살펴보겠다.

현재 7차 교육과정 문학교과서 13종을 살펴 본 결과 일기가 수록되어 있

47) 중학교 국어.생활국어, 고등학교 국어 상.하 참고

는 문학교과서는 7종이었다.<sup>48)</sup> 이들 문학교과서에 수록된 일기작품과 학습 목표, 학습활동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출판사	대단원·소단원	수록작품	학습 목표 <sup>49)</sup>
천재교육(상)	V. 수필의 수용과 창작 2. 수필의 구조와 문체	왕오천축국전(혜초)	· 이 글은 지은이가 인도의 불교 성지를 순례하며 인도의 정세, 지리, 풍속, 언어 등을 자세히 기록한 기행문이다. 글 속에 나타난 여정과 견문,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 느낀 바를 정리해 보자. 그리고 오늘날의 기행문과도 비교하여 이글이 지닌 특징을 이해하며 읽어 보자.
천재교육(하)	VI.한국 문학의 특질과 흐름(1) 4. 근대 이행기 문학	한 중록(혜경궁 홍씨) <sup>50)</sup>	· 이 글은 사도 세자의 비극적인 죽음과 이를 둘러싼 역사적인 사실을 담담하게 기록한 글로, 궁중 생활의 여러 면모가 살아 있는 필체로 소개되어 있다. 글에 담긴 지은이의 한스러움을 생각하면서 읽어 보자.
민중서림(하)	01 다시 확인 05 조선 후기의 문학	계축 일기(어느 궁녀)	· 광해군이 선조의 계비인 인목대비를 폐위시키고 영창 대군을 출궁시켜 죽인 사건을 기록한 국문 수필이다. 인목대비를 측근에서 모시고 있던 어느 궁녀가 지은 것으로 추정되며, 궁중의 비극적인 사건의 추이와 그것에 연루된 인물들의 심리를 섬세하게 그려 냈다. 사실적인 묘사가 주는 효과를 생각하면서 작품을 감상해 보자.
금성출판사(상)	VI. 교술문학의 수용과 창작 1. 수필의 특성과 갈래	병자 일기(남평 조씨)	· 생활 주변에서 부딪치는 사소한 일도 문학의 소중한 제재가 된다. 병자호란을 직접 겪은 한 할머니의 일기가 역사 기록보다 더 생생하게 당시의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 크다.
상문연구사(하)	V.문학과 삶 2.역사 속의 삶과 문학	산성 일기(어느 궁녀)	· 병자호란에 대한 배경 지식을 상기하며 읽는다. · 전쟁 체험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생각하며 읽는다.
지학사(하)	I.문학과 문화 1.문화로서의 문학	동명 일기(의유당)	· 동해 일출의 광경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사실적으로 표현한 기행 작품이다.

48) 7차 교육과정 13종 문학교과서 : 천재교육, 민중서림, 금성출판사, 형설출판사, 교학사, 케이스, 상문연구사, 지학사, 두산, 디딤돌, 문원각, 블랙박스. 중앙교육진흥연구소.

			이 작품을 통해 작품을 수용하는데 있어서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를 이해해 보자.
두산(상)	II.문학의 수용과 창작 3.생활과 인생의 의미 (1)견문과 사색	정학동(이인로)	· 인간은 현실 세계에 살면서 이상 세계를 꿈꾼다. 이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히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이다. 이 작품은 이상 세계가 지상에 없다는 것을 잘 알지만, 그러한 세계를 갈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를 잘 보여 주고 있다. 고대 수필의 성격을 살피면서, 이상향에 대한 선조들의 생각을 음미해 보자.

위의 문학교과서 일기 작품 정리에 의하면 8개의 작품 중에서 5편이 여성 작가의 작품이고, 「한중록」의 경우 일기작품에 포함시켰지만 일기라기보다는 자전적인 회고록이라고 할 수 있다. 일기는 즉시성의 문학이기 때문에 엄격히 말하면 한중록은 일기라고 할 수 없다. 「계축일기」역시 일기라는 제목이 붙어있지만, 서술양식으로 볼 때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한 궁중 소설로 보는 견해가 있어, 일기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sup>51)</sup>

이렇게 볼 때 문학교과서에 실린 작품들 중에서도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일기의 양식<sup>52)</sup>에서 벗어난 작품들을 제외하고 나면 거론할 것이 몇 작품 안 남는다. 그리고 대부분의 수록 작품이 한글로 기록된 것들이다. 물론 우리말이 아름답고 감정 표현 또한 잘 할 수 있다. 국어교육 측면에서도 한글로 쓰인 좋은 작품들을 많이 알리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교과서에 실린 한글일기 작품들은 체험소재가 전쟁이나 궁중사건을 다룬 특수한 것들

49) 문학교과서의 학습목표는 대단원.소단원 학습목표는 생략하고 작품의 학습목표만을 제시하였다.

50) 「한중록」은 천재교육(하)와 금성출판사(하), 문원각(하)에 모두 실린 작품이다. 중복된 작품은 한 출판사만 정리하고 나머지는 생략하였다. 지학사(하)의 「가람일기」는 현대의 일기로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51) 박연호, 「계축일기와 당시 한문일기들의 대비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83, 7~13쪽.

52) 일기는 날짜, 날씨, 내용 등을 하루만 써도 일기이지만, 어느 정도 일정기간 연속적으로 기록된 것을 일기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 말하는 일기는 매일 매일의 기록, 혹은 일정기간 동안의 기록을 뜻한다.

이 대부분이라 오늘날의 학생들에게 생활 속의 글쓰기라는 측면에서 일기교육을 할 때, 소재에서 거리감이 느껴지는 점도 있다. 또한 문학 교과서에 실린 일기의 학습목표는 일기쓰기에 관한 내용보다는 주로 작품감상이나 내용이해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읽기교육의 성격이 짙다.

문학교과서에서 하는 학습 활동을 보면 다음과 같다.<sup>53)</sup>

출판사	수록 작품	학습 활동
천재교육(상)	왕오천축국전(해초)	<p>&lt;내용 학습&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이 글에서는 불교 성지에 관한 이야기 이외에도 여러 나라의 생활 방식과 경제 그리고 지리나 기후 등이 자세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이 점을 바탕으로 ‘왕오천축국전’의 특징을 다른 기행문과 비교하여 말해 보자.</li> <li>2. 이 글의 중간에 삽입된 시가는 독자가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떠한 도움을 주는지 말해 보자.</li> <li>3. 지은이는 오천축국 법의 공통적 특성으로 무엇을 지적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내용을 통해서 볼 때, 그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성품은 어떠한다고 생각하는지 근거를 들어 말해 보자.</li> <li>4. “이 나라의 왕과 수령 등은 삼보(三寶)에 대하여 심히 경경한다.”라는 구절에서 삼보는 무엇이고, 또 이는 무엇에 영향을 받은 것인지 말해 보자.</li> </ol> <p>&lt;적용 학습&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이 글은 불교 유적뿐만 아니라 인도의 풍물과 생활상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문물을 알리는 효과를 줄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생각하면서, ‘왕오천축국전’의 기록 문학으로서의 가치에 대해 토의해 보자.</li> <li>2. 수필을 진술 방식 및 태도와 관련하여 서술 구조, 대립 구조, 대화 구조, 병렬 구조 등으로 분류할 때 이 작품은 어디에 속하는지 말해 보자.</li> <li>3.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듯이, 여행을 할 때는 대상을 자기식으로 바라보아서는 곤란하다. 그렇다면 이 글에서 지은이가 여행지의 풍속과 사회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어떠한지 말해 보자.</li> <li>4. 이 글에서 지은이의 느낌과 경서가 잘 드러난 대목을 찾아보고, 자신이라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표현했는지 말해 보자.</li> </ol> <p>&lt;창작 활동&gt;</p> <p>이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오천축국’ 중 ‘중천축국’을 알리는 추천서를 만들어 보자. 이 곳의 영토, 국민 구성, 기후, 생활 방식, 법 제도의 운용, 종교 등을 바탕으로 추천서를 완성해 보자.</p>
천재교육(하)	한중록(해경궁 홍씨)	<p>&lt;내용 학습&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이 글에서 사도 세자의 죽음을 바라보는 화자의 심리 상태는 어떠한지 추리해 보자.</li> <li>2. 이 글 가운데 궁중에서 사용하는 고아한 어휘와 여성적 문체가 드러난 부분을 찾아보자.</li> <li>3. 이 글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 사건은 무엇인지 사적(史的) 자료를 찾아 설명해 보자. 그리고 자료의 진술 방식과 이 글의 문체를 비교한 후, 수필 문체가 지닌 문체의 특징을 말해 보자.</li> </ol> <p>&lt;적용 학습&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이 글이 조선조의 생활상과 시대 상황을 전해 준다는 측면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가치는 무엇인지 말해 보자.</li> <li>2. 이 글은 남편의 죽음을 바라보는 지어미의 인간적인 감정이 잘 드러나 있다. 그런데도 지은이는 자신의 억울한 감정을 직접 드러내기보다는 품위 있는 문체와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로 보아, 문학은 형상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감정을 드러낸다는 점을 이 작품을 통해 설명해 보자.</li> <li>3. 자신의 뜻과는 다르게 주위 사람들에 의해서 억울한 일을 당한 경험이 있다면 발표해 보자. 그리고 그러한 경험을 누군가에게 알리기 위해 일기나 수필로 쓴다면 어떻게 표현할지 말해 보자.</li> <li>4. 이 글이 만약 소설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면 어떤 측면에서 그러한지 말해 보자.</li> </ol>
민중서림(하)	계축 일기(어느 궁녀)	<p>&lt;익히기&gt;</p> <p>▶수용</p>

		<p>1. 이 작품을 읽고, 다음 활동을 해 보자.</p> <p>①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관계를 정리해 보자.</p> <p>② 등장 인물의 심리를 잘 드러내는 구절을 찾아서, 각 인물들의 심경이 어떠했는지 상상해 보자.</p> <p>③ 인물의 행동과 대화를 중심으로 사건의 추이를 정리해 보자.</p> <p>2. 이 작품의 서술자가 취하고 있는 관점에 대해 말해 보자. 그리고 인목 대비와 영창 대군의 행동을 어떤 입장에서 그리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해 보자.</p> <p>3. 영창 대군이 궁궐 밖으로 쫓겨 나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대목을 찾아보고, 그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말해 보자.</p> <p>▶적용</p> <p>1. 조선 후기 수필 문학의 양상을 알아보자.</p> <p>① 이 작품과 같이 궁중의 사건을 소재로 한 작품을 찾아서 읽어 보자. 그리고 이 작품과 인물, 사건, 배경, 주제 등의 측면에서 서로 비교해 보자.</p> <p>② 역사적 사건의 기록과 허구의 문학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생각해 보자. 역사 기록물이 허구적 문학보다 감동을 주는 경우가 있다면 어떠한 이유로 그러한지 토의해 보자.</p> <p>③ 조선 후기 여성들의 수필 문학에 대해 조사하여 보자. 어떠한 작가와 작품이 있는지 알아보자.</p>																		
<p>금성출판사(상)</p>	<p>병자 일기(남평 조씨)</p>	<p>&lt;내용 학습&gt;</p> <p>1. 이 작품의 내용과 일치하면 ○표, 일치하지 않으면 X표를 해 보자.</p> <p>(1)무인도로 피란 가서 겪은 고초를 이야기하고 있다.</p> <p>(2)제비와 대조하여 자식을 잃은 슬픔을 토로하고 있다.</p> <p>(3)나라 잃은 슬픔으로 세상에서 살아갈 뜻이 없음을 말하고 있다.</p> <p>&lt;목표 학습&gt;</p> <p>2. 「병자 일기」의 ‘십칠 일’과 다음 글을 비교하여 아래 표의 빈칸을 채워 보자.</p> <p>「산성 일기」 제시</p> <table border="1" data-bbox="596 1016 1240 1178"> <tr> <td></td> <td></td> <td>병자 일기</td> <td>산성 일기</td> </tr> <tr> <td rowspan="2">차이점</td> <td>장소</td> <td>무인도</td> <td></td> </tr> <tr> <td>서술 대상</td> <td></td> <td></td> </tr> <tr> <td rowspan="2">공통점</td> <td>배경 사건</td> <td></td> <td></td> </tr> <tr> <td>형식</td> <td></td> <td></td> </tr> </table> <p>&lt;창작 학습&gt;</p> <p>3. 이 작품은 사실의 기록 외에도 지은이의 정서가 강하게 드러난다. 이와 같은 형식적 특징을 고려하여 하루 일과를 소재로 한 일기를 써 보자.</p>			병자 일기	산성 일기	차이점	장소	무인도		서술 대상			공통점	배경 사건			형식		
		병자 일기	산성 일기																	
차이점	장소	무인도																		
	서술 대상																			
공통점	배경 사건																			
	형식																			
<p>지학사(하)</p>	<p>동명 일기(의유당)</p>	<p>&lt;내용 학습&gt;</p> <p>1.일출 광경을 볼 수 있다고 한 사람과 일출 광경을 볼 수 없다고 한 사람을 각각 나누어 보자.</p> <p>2.이글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고 할 때 ( )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찾아 넣으시오.</p> <p>&lt;배경&gt;순바닥 넓이의...백지 반 장 넓이의...소혀처럼보임</p> <p>        붉은 기운        붉은 기운</p> <p>                ↑                ↑                ↗</p> <p>&lt;주제&gt; ( )                ( )                ( ) → 해</p> <p>  ↓</p> <p>  항·독</p> <p>&lt;환상&gt;</p> <p>&lt;목표 학습&gt;</p> <p>3. 『“내일은 일출을 폐히 보시리라 한다.”하되』에 나타나 있는 주제와 화자의 관계를 당시의 사회적 신분 관계를 고려하여 말해 보자.</p> <p>4.오늘날의 기행문과 비교해 볼 때, 이 글은 어떠한 언어적·문학적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자.</p> <p>&lt;창작 학습&gt;</p> <p>5.해 지는 장면을 다음 제시된 조건에 따라 묘사하는 글을 써 보자.</p> <p>조건 • 시간 순서에 따라 묘사할 것.</p> <p>        • 비유를 적절히 활용할 것.</p>																		
<p>두산(상)</p>	<p>청학동(이인로)</p>	<p>&lt;작품 속으로&gt;</p> <p>1.이 글에 나타난 선인들의 삶의 자세를 오늘날 우리들의 삶과 대비하여 음미해 보자.</p> <p>2.이 글에서 견문과 독서 체험이 어떻게 연관되는지 알아보고, 선인들의 글쓰기 방식의 특징을 생각해 보자.</p>																		

		<p>3.글쓰기가 사물을 인식하는 태도는 대상과의 거리를 통하여 잘 나타난다. 대상과의 거리가 근접할수록 그 대상은 글쓰이의 감정을 드러내는 매개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다음 글은 '정학동'과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자. 『영오천축국전』 제시</p>
--	--	---

지금까지 살펴본 교과서 내의 일기교육은 국어교과서(7-10학년)의 글쓰기 교육으로서의 일기교육과 문학교과서의 내용 이해·감상 위주의 교육으로 볼 수 있다.

한 문학 교과서에 학습 자료로 제시한 일기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sup>54)</sup> ‘일기는 자기 수련의 도구가 된다. 일기를 적는 순간에는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 몰두함으로써, 자신을 솔직하게 돌아보고 냉정하게 비판할 수 있게 한다. 즉 일기를 통해서 자기를 탐구하고, 자기 자신의 인격을 닦으며, 세상을 보는 자기 시야를 넓혀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일기는 과거의 기록이면서 동시에 미래에 대한 폭넓은 구상이 되기도 한다. 일기를 쓰는 동안 하루의 생활을 정리하면서 지나간 일들에 대해 반성하게 되고, 이에 따라 새로운 내일을 설계할 수 있다. 또한 일기는 글쓰기 수련에도 큰 도움을 준다. 일기를 통해 보고 느끼고 생각한 바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동안 문장력이 신장될 수 있다.’

개인의 삶이 그대로 기록되는 생활 일기 외에도 일기의 종류는 다양하다. 단체의 공적인 일을 기록하는 근무일지나 작업일지, 읽은 책의 내용과 인상을 적어 가는 독서일기, 관찰하고 실험한 결과를 기록하는 관찰일기와 실험일기, 동물을 기르면서 쓰는 사육일기, 식물이나 곤충을 채집하면서 쓰는 채집일기 등도 모두 일기에 속한다.

이처럼 일기의 가치를 잘 설명해 놓았지만, 현실적으로 교재 내에서 일기 쓰기의 본질을 문제 삼고 있는 경우는 찾기 어려웠다. 아울러 다양한 일기작

53) 중복된 작품은 한 출판사만 정리하고 나머지는 생략하였다. 상문연구사(하)의 「산성일기」의 학습활동은 일기교육과 상관없는 내용이라 제외하였다.

54) 박갑수 외, 고등학교 문학(하), 지학사, 2004, 357쪽.

품을 접할 수 없었다. 7-10학년까지의 국어 교과에서의 일기교육은 본시 학습으로 다루는 것이 없다고 할 정도였다.

문학은 심화 선택 과목 중의 하나여서 문학 교과서에 실린 소수의 작품조차 모든 학생이 접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매일 일기를 쓰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훌륭한 일기작품이 문화유산으로 많이 남아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것이 현행 일기교육의 현실이다. 그러므로 일기교육에서는 일기에 대한 장르적 성격, 일기의 유형, 표현 방법, 교육적 의의 등을 자세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등과정 교과서에 실린 고전일기에는 『한중록(閑中錄)』 『계축일기(癸丑日記)』 『병자일기(丙子日記)』 『산성일기(山城日記)』 『동명일기(東溟日記)』 등이 있다.<sup>55)</sup> 한글로 쓰인 이 작품들 역시 일기로서의 중요한 의의를 나름대로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한중록』 『계축일기』는 우리 문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복합적 성격 때문에 특정 장르에 쉽게 귀속시키기 힘든 애매한 성격을 지닌 것들이다. 조운제는 궁중기사문이라 했고, 신정숙과 김일근은 수기문학, 김동욱은 수필, 류기룡은 기록문학, 김용덕은 실기형 전기소설이라 했다.<sup>56)</sup> 이처럼 이들 작품들은 장르의 논의도 분분하고, 일기의 기본적 특징인 매일의 일을 기록한 것에서도 벗어나 있다.<sup>57)</sup> 또한 『병자일기』와 『산성일기』는 병자호란을 겪은 체험을

55) 본고 21쪽의 표 참고.

56) 조운제, 『한국문학사』, 동국문화사, 1963, 신정숙, 「궁중에서 성립된 수기문학의 연구」, 성균관대 석사논문, 1963, 김일근, 「수기문학의 성립」, 『문학사상』, 1972.12., 김동욱, 『국문학전사』, 신구문화사, 1970, 류기룡, 『한국기록문학연구』, 형설출판사, 1978, 김용덕, 『한국전기문학론』, 민족문화사, 1987, -이채연, 「實記의 문학적 특징」, 『한국문학논총』 제15집, 1994.12., 11쪽.

57) 『한중록』은 혜경궁 홍씨가 남편의 참변과 자신의 기박한 운명을 회상하여 자서전(自敘傳)형식으로 기록한 수필이다. 문장과 표현이 고상하고 우아하며, 상황을 절실하고도 간곡하게 묘사하였는데, 거기에다 전아하고 품위 있는 궁중 용어를 사용하여 한글로 된 궁중 문학의 백미(白眉)로 손꼽히고 있다.-홍신선 외, 고등학교 『문학』, (주)천재교육(하), 2003, 99쪽.  
『계축일기』는 광해군이 선조의 계비(繼妃)인 인목 대비를 폐위시키고, 영창대군을 출궁시켜 죽인 사건을 기록한 국문 수필이다. 인목 대비를 측근에서 모시고 있던 어느 궁녀가 지은 것으로 추정되며, 궁중의 비극적인 사건의 추이와 그것에 연루된 인물들의 심리를 섬세하게 그려 냈다.-김창원 외, 고등학교 『문학』, 민중서림(하), 2003, 140쪽.

기록한 것이다.<sup>58)</sup> 『동명일기』는 의유당 김씨가 함흥 판관으로 부임해 가는 남편을 따라가 귀경대에 올라 일출 광경을 보고 돌아와 그 감흥을 적은 것이다.<sup>59)</sup> 지금까지 살펴 본 교과서에 실린 한글일기들은 각 작품별로 의의를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 특수한 경험을 소재로 한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현재의 우리가 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삶의 모습에 해당하는 작품을 대상으로 하여 중등과정의 일기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

장덕순은 『계축일기』를 궁중실화를 소재로 한 소설적 작품이라고 하였다.-장덕순, 『한국 수필문학사』, 도서출판 박이정, 1995, 266쪽.

58) 『병자일기』(1636~1640)는 한글 필사본 일기로 지은이인 남평 조씨가 예순을 넘긴 나이에 남긴 기록 문학이다. 담담하면서도 곡진(曲盡)한 표현 속에서 인간적 원숙미(圓熟美)와 넉넉한 한국적 정서를 느낄 수 있다. 세 아들을 잃고, 남편마저 청나라로 잡혀간 상황에서 절절이 써 내려간 하루하루의 기록은 솔직하고 자세하게 기록하여, 병자호란에 대한 민간의 체험을 소상하게 알려주고 있다.-박경신 외, 고등학교 『문학』, (주)금성출판사(상), 2003, 344쪽.

『산성일기』는 병자호란 당시(1636), 남한산성에서의 정황을 어느 궁녀가 일기 형식으로 기록한 것이다.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피신하여 50여 일 동안 산성을 지키며 항전하던 비참한 모습이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다. 남한산성에서 일어났던 여러 사건들을 사실적으로 기록하고 있어 당시의 여러 사정과 통분의 심정까지 자세하게 알게 한다. 동일한 사건을 다룬 ‘병자록’이나 ‘남한일기’와 내용이 거의 일치하고 있어 역사 기록으로서의 가치도 클 뿐 아니라, 간결하면서도 사실적인 문체로 통분의 심정을 더욱 비통하게 드러내어, 수필 문학으로서의 가치도 큰 작품이다.-강황구 외, 고등학교 『문학』, 상문연구사(하), 2004, 375~376쪽.

59) 『동명일기』는 전반부에서 일출의 장관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가 섬세한 여성의 필치로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고, 함흥 해변의 귀경대에 올라 추위를 견디며 일출을 기다리는 과정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현장감을 더해 주는 수법이 감동적이다. 끝 부분의 해돋이 광경 묘사에서는 고도의 비유적 수법을 사용하여 필자의 감동이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다. 이 작품은 사물을 예리한 눈으로 관찰하여 섬세한 필치로 표현하고 있어, 기록 문학이 어떻게 문학성을 띠는가를 보여 주고, 우리 국어의 구사력이 얼마나 뛰어난가를 유감없이 보여주는, 기행 수필의 백미라 할 수 있다.-박갑수 외, 고등학교 『문학』, 지학사(하), 2004, 18쪽.

### Ⅲ. 한문일기 유형별 활용 방안

일기의 유형은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다. 그러한 여러 일기 유형 중에서도 본고에서는 생활일기, 여행일기, 유배일기를 통하여 일기교육 방안을 모색해 볼 것이다. 그것은 다른 일기들이 교육적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연구 목적에서 밝혔듯이 각 작품별로 의의를 가지고 있지만 본고에서 추구하는 일기교육에 적합한 자료를 활용하여 일기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평범한 일상을 기록한 생활일기에서는 일기의 소재가 되는 작가 주변의 일들을 재미있게 읽으며 글감을 고르는 법과 작품에 드러난 작가의 가치관을 통해 인격을 수양하는 태도를 살펴볼 수 있다. 또한 매일 꾸준히 기록하는 기록 정신도 본받을 수 있을 것이다. 여행일기에서는 여행을 통한 산수자연의 심미체험과 여행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세태 등을 살펴보고 이를 활용하여 직접 학생들의 여행일기 쓰기로 적용해보는 활동을 할 것이다. 유배일기에서는 회피할 수 없는 고난에 부딪힌 인물이 자신의 상황을 헤쳐 나가는 의지와 어려움을 극복하는 태도, 불행 속에서도 자신의 세계에만 안주하지 않고 주변과 세상을 향해 시선을 돌리는 넓은 마음이 성장기의 학생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교육적 의의들이 잘 드러난 한문일기 자료를 선별하여 학습지를 제시하는 것은, 학생들이 이들 자료를 읽고 자신의 일기쓰기에 적용하게 하려는데 우선 목적이 있다. 동시에 이를 통하여 고전을 이해하고, 문학에 대한 심미안도 넓힐 수 있는 효과를 고려한 것이다. 좋은 일기 자료를 읽고 자신의 일기쓰기에 적용하는 것이 고전을 이해하는 것과 동시에 일기교육을 통한 문학 교육도 가능하다는 생각 때문이다.

그러나 일기교육은 교과목이 아니므로 반드시 교사의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초등학생의 경우 일기를 처음 써보고 문자해독 능력

과 맞춤법, 글쓰기에 대한 미숙함 때문에 문장 구성 능력이나 문법에 관한 교사의 지도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중등과정의 학생들에게는 교사의 평가를 전제로 한 일기교육은 그 효율성을 신뢰할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지호는 일기교육에서 교사의 개입이 문제가 아니라 개입의 방향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sup>60)</sup> 그러면서 ‘일기교육에서 교사 개입의 정당화를 일기를 쓰는 오늘의 나는 그것을 읽을 내일의 나를 배려하는 글쓰기를 하여야 하며, 원만한 의사소통을 위해 학생이 교사를 배려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내일의 나를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기의 미덕이 솔직한 자신의 내면 고백에 있다고 함의하는 이상 아무리 교사나 부모님이라도 자신의 일기를 읽는 것에 기분 좋아할 청소년은 없다고 생각한다. 본고에서 추구하는 일기교육의 방향은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 억지로 쓰는 일기가 아니라 학생 스스로 일기쓰기의 즐거움을 알아서 자신의 성장을 기록하며 삶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소중한 친구라고 생각하고 실천하게 하는 것이다.

## 1. 생활일기를 활용한 교육 방안

먼저 생활일기의 교육적 가치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생활일기는 특수한 경험을 제외한 평범한 일상을 기록한 일기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일기라는 것이 매일 매일의 개인의 일상을 기록한 글이기에 굳이 일기를 유형별로 분류하는 것이 무의미한 일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기교육을 위해 기존의 연구물에 의지하여 일기를 체험소재별로 분류하였을 때, 특수한 경험을 기록한 일기들을 제외한 매일의 일상을 기록한 일기를 생활일기로 보겠다.

60) 이지호, 『글쓰기와 글쓰기교육』, 서울대학교출판부, 2002, 392~395쪽.

일기에서 다루어지는 대상은 일기가 씌어진 ‘그 날’에 따라서 각각 달라진다. 사건이나 현상 그 자체만 기술하고 그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서술하지 않는다고 해도 무방하다. 일기를 쓰는 ‘그 날’에 따라서 기술하는 사건이나 현상이 서로 다른 것이기만 하다면, 대상의 제한과 교체만으로도 그것을 주관하는 자아의 정체성은 확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어떤 사건이나 현상에서 자기 자신만의 독특한 생각이나 느낌을 구성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자아의 정체성이 확립된 이후의 글쓰기에서나 기대할 수 있는 일이다. 일기쓰기는 글쓰기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글쓰기이다.<sup>61)</sup> 그러나 이미 자기 정체성을 확립한 자아라면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사건이나 현상에 대해서 독특하고 창의적인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일기로 쓸 수가 있다. 그것은 잘 쓴 일기가 그 자체로 이미 하나의 훌륭한 문학작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활일기의 교육적 의의는 일기쓰기를 수행하면서 자아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고, 그렇게 확립된 자기 정체성을 바탕으로 하여 더 나은 글쓰기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매일 일기쓰기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하루를 생각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교육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기쓰기를 통해 매일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자기의 내면을 성찰하며 사는 것과 아무런 회고 없이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은 분명 큰 차이가 있다. 생활일기에서는 매일 일기쓰기를 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에게 일기쓰기가 어려운 일은 아니며, 전문적인 작가의 글처럼 반드시 미문일 필요가 없음을 인식시킨다. 또한 생활속에서 일기의 글감을 찾고, 반복되는 일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관찰하고, 사색하며 자기의 일기쓰기에 적용하는 것을 연습하게 한다. 그리고 일기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내면의 솔직함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옛 선인들의 일기에서 찾아보고, 자신의 일기쓰기에 활용하게 하는 것이다.

---

61) 이지호, 『글쓰기와 글쓰기교육』,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391~392쪽.

## 1) 일상의 기록을 통한 삶의 가치·의미 구현

생활일기에서는 일상의 기록에서 삶의 가치나 의미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학생들에게 일기쓰기에 활용하게 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일상의 기록을 통한 삶의 가치·의미 구현이라는 말은, 우리가 매일 매일 생활하는 가운데서 삶의 긍정적인 면을 찾고자 한다면 삶 자체가 의미 있게 변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사용한 것이다.

‘일상’은 인류가 존재하는 순간부터 함께 존재하였다. 원시인류는 원시인류 나름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하며, 그를 통해 나름의 ‘일상성’을 형성하였다. 고대인과 중세인들 역시 일상생활을 유지하며 그 일상 공간 안에서 활동하였다.<sup>62)</sup> 일기의 작가들 또한 그들의 시대에서, 그들의 일상을 영위하며 살았다. 어느 누구도 일상을 영위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따라서 일상의 의미는 누구에게나 분명한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먼저 일상이 모든 분야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안다. 매일 되풀이 되는 삶, 그것이 일상이다. 따라서 진기하고 특별한 ‘사건’들은 일상의 개념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나 어떠한 사건도 일상의 바탕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 여기에 일상이 갖는 이중적 성격이 있다. 어떤 의미에 있어서 일상생활처럼 더 이상 피상적인 것이 없다. 그것은 반복적이고 진부하며 중요하지도 않은 사소한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에서 그것보다 더 이상 심오한 것도 없다. 그것은 실존이며, 결코 이론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적나라한 ‘삶’이기 때문이다.<sup>63)</sup> 이제 선인들은 일상을 어떻게 기록하였는지 작품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작품을 가지고 생활일기 교육방안을 제시해 보겠다.

현전 최초의 생활일기로 규정할 수 있는 『묵재일기(默齋日記)』는 묵재

62) 한수영, 『소설과 일상성』, 소명출판, 2000, 125쪽.

63) 박재환, 일상성·일상생활연구회 편, M. 마페졸리, H. 르페브르 외 지음, 『일상생활의 사회학』, 한울아카데미, 1994, 24~25쪽.

이문건(李文樞)이 13세 때부터 74세로 작고할 때까지 일기를 써서 모두 30책 분량이었다고 하는데 현재 10책만 전하고 있다.<sup>64)</sup> 현전하는 10책이 다루고 있는 시기는 1535년 11월 1일에서부터 1567년 2월 16일까지 약 30여 년간이다. 물론 말년의 23년이 유배생활이었기에 유배일기로 볼 수도 있지만, 이문건의 유배생활은 가족이 함께 따라가 생활하는 등 일상생활을 다룬 것이 많다. 『목재일기』를 연구한 선행연구자의 연구물에 의해 본고에서도 생활일기로 다루겠다. 비록 일부 기록이 빠져 있기는 하지만 현전하는 『목재일기』에는 16세기 중기의 생활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고 실증적인 사실이 풍부하게 들어 있다.<sup>65)</sup> 한편 이문건의 또 다른 기록으로 특이한 것은 『양아록(養兒錄)』이 있다. 『양아록』은 이문건이 자기 손자를 양육하는 과정을 시 형식으로 쓴 기록이다. 이것은 당시 사대부 가문에서 자손에게 실시했던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구체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자료이다. 이문건은 유배지인 성주에서 손자 이수봉(李守封)이 출생했을 때부터 16세까지의 교육과정에서 경험했던 인상적인 내용들을 연대순으로 시편에 담았다. 즉 『양아록』은 일기적 성격을 띤 시편이다. 이문건은 손자의 신체적 성장 발달과정에서 단계적으로 나타나는 특징과 질병의 제증상, 질병으로 고통받는 손자의 고통을 비교적 쫄쫄하게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손자를 훌륭한 인물로 양성하기 위해 교육하면서 겪었던 심리적 고충을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다. 즉 『양아록』은 자손교육의 체험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일기성 시편으로 아동교육사와 풍속사회의 귀중한 자료가 된다.<sup>66)</sup>

64) 이문건(李文樞, 1494~1567)은 조선 성종에서 명종 연간의 사람으로 가계는 여말선초의 별열가문이었으나 조카의 일에 연루되어 성주(星州)로 유배되었다. 목재는 성주에서 23년간 유배살이를 하였고, 끝내 풀려나지 못한 채 그곳에서 죽었다. - 이복규, 『목재일기에 나타난 조선전기의 민속』, 민속원, 1999, 20쪽.

65) 『목재일기』는 시묘살이, 국장(國葬)의 제반 절차와 내용, 관료 생활과 여러 관인들과의 교류, 을사사화의 진상, 유배생활, 성주 지역의 향촌 사정, 부부관계, 출산 생육, 관혼상제, 질병치료, 자녀교육 등의 생활사 전반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 중 시묘살이, 을사사화, 유배생활, 부부관계, 출산생육, 질병치료 관련 일부기록을 번역한 책이 『목재일기에 나타난 조선전기의 민속』이다.

66) 이상주, 「이문건의 양아록-16세기 사대부의 자손양육의 체험적 시편」 『한국한문학연구』 제19집, 한

『흙영(欽英)』은 18세기 서울의 사대부인 유만주(兪晩柱)가 13년 동안 꾸준히 쓴 일기로서 특히 자신의 일상생활과 독서한 내용을 소상하게 담고 있다.<sup>67)</sup> 『흙영』은 전체적으로 작가의 내면심리가 솔직하고 꾸밈없이 표백되어 있다. 중세에 나온 일기가 다 이런 것은 아니며, 『흙영』의 이러한 점은 아주 독특한 것이다. 또한 『흙영』에는 작자의 내면심리만이 아니라 작가의 자기성찰이 풍부하게 담겨 있다. 즉 일기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내면성 내지 내밀성이 깃들여 있다. 이 점에서 『흙영』은 우리나라 일기문학의 중요한 성과로 꼽을 만하다.<sup>68)</sup>

마지막으로 생활일기 교육방안에서 중심으로 살펴볼 『미암일기(眉巖日記)』는 미암 유희춘의 개인일기로 유희춘이 55세가 되는 해인 1567년 10월부터 세상을 떠나기 직전인 1577년 5월까지 대략 11년에 걸쳐 거의 매일같이 기록한 한문일기이다. 현재 남아 있는 그의 친필 일기는 모두 11책으로, 일기 10책과 미암과 부인 덕봉의 시문을 모은 부록1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비록 중간에 빠진 부분도 있으나 조선시대 개인일기 중 드물게 방대한 일기이다. 『미암일기』를 생활일기 교육방안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은 중간에 분실된 부분을 제외하고도 약 11년간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 성실한 기록의 철저성과 메모정신이 문학 교육의 측면에서도 본받을 만한 것이기 때문이

---

국한문학회, 1996, 477~507쪽.

67) 『흙영』은 1997년에 서울대학교 규장각에서 여섯 권의 영인본으로 묶어내었다. 이에 대한 연구로는 박희병, 「흙영의 성격과 내용」 『흙영』 1권 (규장각, 1997)에 유만주가 가진 역사와 지지(地志)에 대한 관심, 실학적 사고 등을 소개하고, 주목할 내용으로서 작가의 풍부한 내면토로, 풍부히 개진된 문장론, 선배 문인 및 학자들에 대한 평가와 전언(傳言), 소설론 및 소설비평론에 대한 풍부한 자료, 중국과 우리나라의 서화(書畵)에 대한 논의, 천기론(天機論)에 대한 비판, 서양에 대한 인식태도, 18세기 생활사에 대한 풍부한 자료 등을 들고 있다.

김하라의 「일기문학으로서의 흙영 연구」는 『흙영』을 중세 해체기의 지식인으로서 새로운 사회의 도래를 위한 거시적 방안 마련에 골몰한 당시의 지식인들과 달리, 유만주는 그러한 지향을 보이는 한편으로 사회를 살고 있는 개별적 주체로서의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의 내면세계를 솔직한 글쓰기로 구현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세계의 모순에 절망하여 혼자만의 세계에 칩거한 채 자족적으로 살아 가려 하면서도 세상을 향한 관심을 완전히 접지 못하고, 그러한 자신의 처지를 모호로 규정하는 경계에 선 채 고민하는 내면적 인간형을 발견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하라, 앞의 논문, 초록 참고.

68) 박희병, 「『흙영』의 성격과 내용」(『흙영』 1권), 규장각, 1997, 23~24쪽.

다.<sup>69)</sup> 그리고 사소하다싶을 정도의 일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어서 16세기 당시의 사대부가의 일상을 소상히 알 수 있게 해준다. 『미암일기』의 이러한 기록의 철저성은 개인일기의 시원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동시에 학생들에게 일기쓰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이다.<sup>70)</sup>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일상생활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일들도 달라졌지만, 인간이기에 겪을 수밖에 없는 일들<sup>71)</sup>은 여전히 보편성을 가지고 존재한다. 한문일기의 작가들은 유학자적인 관점에서 일상을 철학하는 자세로 자기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로 삶을 꾸려가고 있다.

오늘의 한국 청소년들의 삶의 원리는 학력 경쟁으로서 선택의 여지없이 힘겹고 피곤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삶이 되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상황에서 좀 더 인생을 즐겁고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가치관과 품성을 길러 주는 것을 일기교육을 통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생활일기 속에서 삶을 진지하게 추구하고, 긍정적으로 세상을 보는 태도를 찾아 읽기 자료로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그 속에서 느낀 점들을 자신의 입장에서 써보도록 하는 것은 일기를 통해 가치관 교육뿐만 아니라 문학교육 또한 동시에 할 수 있는 유익한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

69) 교육인적자원부, 『생활국어 1-2』, 13~14쪽, 교과서의 ‘쓰기’ 단원을 보면 생활 속에서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생각들을 메모하거나 일기를 쓰거나,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고 받은 감동을 적어두거나, 생활 주변의 이야기를 컴퓨터 통신에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생활 속에서 글쓰기를 즐겨 해 보자고 제안하고 있다. 『미암일기』는 이 같은 메모와 기록의 철저성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70) 『미암일기』는 담양향토문화연구회에서 이미 다섯 권의 번역본이 나와 있다. 그리고 『미암일기』를 재구성한 단행본으로 정창권의 『홀로 베풀하며 그대를 생각하노라』라는 책이 있다.

71) 라리브 데삐나이(Lalive d'Epiny)는 우리의 일상이 수면, 밤, 어둠, 무의식, 무질서, 죽음, 위협 등의 일련의 기초와 깨어있는 상태, 낮, 밝음, 의식, 질서, 삶, 안전 등의 또 다른 일련의 기초가 상호 침투·교섭되는 곳에 위치한다고 한다. - 박재환 편, 앞의 책, 28쪽.

## 2) 생활일기 교육 방안 - 『미암일기(眉巖日記)』 중심으로

생활일기 교육방안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일기자료는 유희춘의 『미암일기』이다.<sup>72)</sup> 『미암일기』는 미암 유희춘의 개인일기로 대략 11년에 걸쳐 거의 매일같이 기록한 한문일기이다. 비록 중간에 빠진 부분도 있으나 『선조실록(宣祖實錄)』 편찬에 중요한 사료의 역할을 했다고 알려졌을 정도로 조선시대 개인일기 중 드물게 방대한 일기이다.<sup>73)</sup>

『미암일기』에는 조정의 정치사부터 집안의 대소사 및 개인의 신변잡사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광범위한 사실을 담고 있다. 왕실 소식, 정국 동향, 사신 접대 등의 역사적 사실과 미암이 홍문관에서 근무할 당시의 경연에 관한 기록, 그리고 가계의 수입, 지출과 이사, 집수리, 건축, 관·혼·상·제, 집안 잔치 등 집안의 대소사도 꼼꼼히 기록하였다. 뿐만 아니라 부인 송덕봉과 자녀들의 생활 모습, 그들 주변에서 온갖 시중을 들어주는 노비, 첩, 서녀, 의녀, 기녀의 생활도 꼼꼼히 기록하였다. 약 11년에 걸친 『미암일기』의 풍부한 소재들을 활용하여 생활일기에서의 일상의 기록을 통한 삶의 가치와 의미를 찾아보는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의 학습지는 『미암일기』의 내용을 발췌하여 일기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 (1) 내용의 특징

#### ① 일기의 글감 찾기 예시

이 활동은 일기쓰기에서 쓸 거리가 없어 일기를 쓰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을 위한 것이다. 일기쓰기 뿐만 아니라 글쓰기에서 글감 찾기

72) 유희춘(柳希春, 1513~1577)은 16세기 조선의 유학자로서 『미암일기』(1567~1577)를 남겼다.

73) 『미암일기』를 다룬 선행 연구물은 본고의 연구사 검토 부분을 참고할 것.

가 어렵다고 느껴지는 학생들에게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글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활동이다. 사소한 일일지라도 나에게 의미가 있는 일이라면 그 경험이 일기의 소재가 될 수 있다. 이 활동을 통해 교사는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겪은 모든 일들이 바로 일기의 글감이 될 수 있음을 학생들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예1>

### 어느 평범한 하루

○학년 ○반 이름 :

1. 아래의 일기를 읽어 봅시다.

1575년 11월 20일 개입

아침에 광운을 불러다 봤다. 광운은 아침 저녁으로 곁에 있으니 기록할 것이 없다. 비가 온 뒤에 하늘이 맑고 바람과 눈이 없으니 좋다. 송진이 와서 내일 해남에 가서 장인 탄지의 문병을 하겠다고 했다. 태인재 유연이 율무쌀 2말, 꿀 5말, 말린 썩 4마리를 보내왔다. 부사(府使) 이공(李公) 중호(仲虎) 사문(士文)이 노루의 다리 하나를 보내왔다. 후의가 고맙다. 식후에 광운이 진원(珍原)으로 가므로 필목을 썼다. 유지(有旨)로 내린 쌀 쿵이 함평에서 오늘 오니 이로써 끝이 났다. 이날 밤에 큰 눈이 내렸다.<sup>74)</sup>

- 어휘 풀이  
필목 : 붓과 먹

2. 이 글은 미암이 하루의 일과를 아침부터 밤까지 기록한 것이다. 날씨 이야기부터 자신을 방문한 사람, 선물 받은 물품의 목록까지 꼼꼼히 기록하고 있다. 이 점을 바탕으로 필자가 일기의 글감을 어떻게 취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

### 부인과 함께 썩뚝을 뜨다

3. 아래의 일기를 읽어 봅시다.

1576년 3월 17일 개입

(중략) 순창에서 지붕 덮는 공인(工人)이 왔기에 뒷날 다시 통지하면 오라고 했다. 미시(未時)에 내가 깊은 방에 누워서 배꼽에 뜸질을 했다. 그것은 소금으로 배꼽을 막고 큰 마늘을 찢어서 소금 위에 놓고 썩으로 뜸질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60세 이상의 노인이 따뜻함을 취하고 찬기를 없애는 방법이다. 부인이 종일 썩에 불을 붙여 뚫는데 백장까지 하고 그쳤다. 날이 저물녘에 종 옥석이 보성에서 돌아왔다. 장이장이 말린 썩과 굵은 마늘을 보내왔다.<sup>75)</sup>

• 어휘 풀이

공인 : 기술자, 장인 / 통지 : 연락 / 미시 : 오후1시-3시경

4. 이 글을 읽고 느낀 필자의 성격과 사물을 관찰하는 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그리고 필자가 글감을 취하는 방식을 고려하여 자신이 매일 일기쓰기가 어렵다고 느껴지는 이유와 연관지어 정리하여 보자.

<예1>은 『미암일기』 속에 표현된 대부분의 날들에서 발견되는 현상이다. 작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일들을 소상히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일기쓰기가 반드시 특별한 사건이나 경험만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글쓰기에서 대상을 선정하고 그것을 초점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도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일기를 처음 쓰기 시작하는 학생들에게는 하루의 일 중 대상을 선정하여 그것에 대한 느낌, 깨달음을 쓰라고 한다면 일기쓰기를 어려운 과제로 생각할 것이다. 여기서는 학생들에게 일기쓰기가 누구나 할 수 있고, 쉬운 일이라는 것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예2>

손자 흥문의 글공부를 독려하다



김홍도 - 서당도

○학년 ○반 이름 :

1. 다음 글을 읽어봅시다.

74) 유희춘 지음, 담양향토문화연구회 번역, 『미암일기』 5권, 130쪽.

담양향토문화연구회 번역본을 참고하여, 한자어와 古語 등은 현대어로 약간 수정하였다. 이후의 『미암일기』 인용 부분은 같은 방식으로 참고하였다.

75) 담양향토문화연구회 번역, 『미암일기』 5권, 258쪽.

- 흥문(興文)이 글공부를 게을리하고 피해가기를 잘하므로 부인이 화를 내어 매를 때렸더니 즉시 고쳤다. 흥문이 심히 총명하다.<sup>76)</sup>
- 어제 흥문으로 하여금 절에 올라가게 했다. 집에서는 공부를 게을리 하기 때문이다.<sup>77)</sup>
- 흥문이 총명하고 기억력도 좋은데 글에 게으르므로 내가 직접 가르치며 단속을 하기로 했다.<sup>78)</sup>
- 저녁에 흥문이 너무나도 글에 게으르기에 내가 그 머리채를 잡고 단단히 나무랐다.<sup>79)</sup>
- 흥문이 그저께 맞은 뒤로는 무서워하여 글공부에 힘을 쓴다. 내가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 즉시 오기도 한다. 오늘 아침에는 어제 배운 것을 외우고 말하기를 ‘제가 세 번이나 할아버지를 화나시게 하여 맞았는데 앞으로는 영원히 게으른 버릇을 고치고 부지런히 읽겠습니다.’ 하였다. 그리고 제 어미 김씨(金氏)도 ‘시아버님이 너에게 글을 몹시 익히고 싶어서 큰 떡까지 주셨는데 왜 글을 안 읽느냐?’ 하였다.<sup>80)</sup>

2. 이 글을 읽고 조선조의 생활상과 자신의 모습과 닮은 점이 있는지 비교해 보자.

3. 이 글을 읽고 등장하는 인물들의 관계를 정리해 보자. 또한 각 인물들의 심경이 어떠한지 상상해 보자.

4. 흥문의 입장을 상상하여 할아버지인 필자에게 올리는 글을 편지 형식으로 써보자.

<예2>에서는 학생들이 옛 선인들의 글에서 오늘날 자신들의 경험과 비슷한 면을 찾아보도록 하고, 상상력을 발휘하여 인물들의 심리를 추측하여 보게 한다. 또한 편지 형식으로 직접 글을 써보는 활동을 하여 일기의 다양한 글 쓰기 유형을 알게 할 수 있다.

<예3>

### 유생들의 부정 시험을 비판하다

○학년 ○반 이름 :

1. 아래의 일기를 읽어봅시다.

76) 『미암일기』 5권, 1575년 12월 29일 166쪽.

77) 『미암일기』 5권, 1576년 1월 13일 182쪽.

78) 『미암일기』 5권, 1576년 2월 6일 206쪽.

79) 『미암일기』 5권, 1576년 4월 6일, 275쪽.

80) 『미암일기』 5권, 1576년 4월 21일, 289쪽.

1574년 2월 4일,

(중략) 임금께서 말씀하기를 “여러 유생들이 혹 경전(經傳)에다 먹줄을 치기도하고 칼로 도려내기도 한다는데 이래서야 되겠소?” 하였다. 대답하기를 “이는 크게 안 될 일입니다. 대저 유생들이 회강(會講)에 응시하면서 외워지지 않음이 괴로워서 이런 옳지 못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생략)<sup>81)</sup>

• 어휘 풀이

회강 : 모여서 배운 것을 외우고 복습하던 일

2. 미암은 홍문관에서 관직생활을 주로 했기 때문에 직접 시제(試題)의 출제 및 채점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 시행에 있어서의 여러 절차와 문제점을 직접 파악하고 있었다. 위 글을 읽고 필자가 유생들의 모습을 어떠한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자.

3. 이 글의 유생들의 행동과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면 그 경험을 통해 깨달은 점을 적어보자. 그러한 경험이 없다면 유생들의 행동을 비판적 시각으로 자유롭게 말해보자.

<예3>에서는 학생들에게 현실을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줄 수 있다. 비판적 시각으로 현실의 문제를 직시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사회를 이끌어갈 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한 능력이다. 이러한 자질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불합리한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습관이 있어야 한다. 현실의 문제를 담고 있는 일기 자료를 제시해 주고 비판적으로 자료를 분석하여 글로 쓰는 활동을 하게 하는 것은 학생들의 가치관 형성에도 기여하는 일이 된다. 현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현실 문제에 고민하면서 학생들은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고, 균형 있는 시각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 ② 메모 습관과 기록 정신의 예시

여기서는 『미암일기』를 통해 메모와 기록에 철저한 태도를 학생들의 글 쓰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생활국어 1-2』의 ‘쓰기’ 단원을 보면

81) 『미암일기』 4권, 1574년 2월 4일, 395쪽.

생활 속에서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생각들을 메모하거나 일기를 쓰거나,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고 받은 감동을 적어두거나, 생활 주변의 이야기를 컴퓨터 통신에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생활 속에서 글쓰기를 즐겨 해 보자고 제안하고 있다. 『미암일기』는 이 같은 메모와 기록의 철저성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다음의 예문을 통해 철저한 기록의 정신을 글쓰기의 준비단계로 학생들에게 인식시킨다.

<예1>

**병들어 죽음을 준비하다**

○학년 ○반 이름 :

1. 아래의 글을 읽어봅시다.

1577년 5월 11일

피로와 열이 크게 발하여 음식이 줄어들고 소변이 붉고 노랗다. 잔뜩 피곤해서 베개에 눕게 되어 사단자(사직서)를 올리기를 '신이 먼 길에 달려왔더니 피로와 열이 크게 발하여 음식을 들지 못하니 열흘 사이에 회복될 형편이 아닙니다. 경연의 무거운 자리를 오래 비워둘 수 없으니 지극히 황송하고 민망합니다. 신의 직을 거두어(遞差) 주소서'하였다. 내가 처음 피로와 열을 앓을 때에는 그저 가벼운 증세로만 알고 9일, 10일 이후로 약을 자주 먹자 기운은 아직 피곤하지만 열은 크게 물러갔다.<sup>82)</sup>

2. 이 글은 미암이 작고하기 며칠 전에 쓴 일기이다. 미암은 이 달 15일에 작고하였다. 『미암일기』는 5월 13일에 끝나 있다. 죽을 만큼 병이 들어 몸이 힘든 상태에서도 일기를 쓴 필자의 태도에서 찾을 수 있는 정신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3. 만약 자신이 살날이 며칠 밖에 남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다면,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메모해 보자. 그리고 주변 사람에게 어떤 말을 남기고 싶은지 적어보자.

<예1>에서는 『미암일기』의 기록정신을 배우게 할 수 있다. 미암은 죽음을 이틀 전까지 일기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병중에서의 약한 마음을 감상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담담히 병의 증상만을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기록하며, 철저하게 일상을 유지하는 태도를 배울 수 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유한한 인생에서

82) 『미암일기』 5권, 480~481쪽.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 생각하게 함으로써 삶을 진지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할 수 있다.

이상으로 살펴본 『미암일기』의 내용들은 대체적으로 진솔한 자기의 일상을 서술하고 있다. 또한 자신이 관계하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소상히 기록하고 있다. 본고에서 예로 든 『미암일기』의 내용은 평범한 일상사를 다루고 있다. 방문객, 선물을 주고받은 일, 쭉뚝 한 일, 손자의 글 공부, 관직에서 겪은 일, 손자의 혼례, 병들어 누운 일 등 다양한 소재로 일기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글들을 일기쓰기의 자료로 제시한다면 학생들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상생활이 일기쓰기의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물이나 사회 현상에서 글감을 잘 찾으려면 세상과 주변의 일에 관심을 갖고, 세밀하게 관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 평범한 일상이라도 일기의 좋은 소재가 되고, 거기에 자신의 창의적인 생각을 담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또한 『미암일기』의 작자처럼 평소 꾸준히 기록하는 메모정신은 글쓰기의 첫 단계임을 인식시켜 줄 수 있다. 기록할 당시에는 중요한 일 같지 않지만 사소한 기록이라도 후일 기록한 것을 보게 되면 일기를 쓸 당시의 상황이나 감정, 느낌 등을 잘 떠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 것이다. 이것은 일기를 쓸 당시와는 또 다른 경험으로 일기를 통해 진실한 자기의 모습을 대면하는 일로 일기쓰기의 진정한 가치는 여기에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일기는 즉시의 기록이므로 일기를 쓸 때는 사물이나 사건 등에 거리를 두기가 어렵다. 흥분한 상태이거나 격한 마음의 상태에서 기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된 후 자신의 일기를 읽어보면 스스로의 내면을 직시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그것은 성숙한 인간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는 청소년기에 무엇보다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 ③ 솔직한 내면 예시

『미암일기』의 서술태도는 전반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잘 나타내지 않으며 객관적으로 하루의 일을 기록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것은 이 작품만의 특징이 아니라 중세 유학자들이 쓴 한문일기의 공통적인 특징이다.<sup>83)</sup> 유학자들의 일기는 주관적인 요소가 극히 절제되어 있고, 감정적 표현을 줄이고 사실적 표현을 하고 있다. 이는 비록 개인적 일기라고 하더라도 자신을 속이는 것을 죄악으로 생각하는 유학의 덕목에 충실하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일기 자체의 성격이 필자의 주관적 기록이라는 점에서 아무리 객관적인 태도로 기술하였다고 하여도 작가의 주관적인 생각이 드러나게 된다. 교사는 『미암일기』에서 작가의 솔직한 면이 기록된 부분을 찾아 학생들에게 자료로 제시해 주고 솔직하게 일기를 써보게 한다.

<예1>

#### 벗의 죽음을 슬퍼하며

○학년 ○반 이름 :

1. 아래의 글을 읽어봅시다.

정월 5일

원래공이 비위(脾胃)증이 악화되어 초하룻날 오시(午時)에 작고했다 한다. 애석하다. 이 사람의 수명이 여기에 그친단 말인가? 깊이 슬프다. 원래는 기상이 단정하고 무거우며 벼슬에 급급하지 않았고 친구(朋友)와 사귀는데도 신의가 있었다.<sup>84)</sup>

• 어휘 풀이

비위증 : 지라와 위의 병증 / 오시 : 오전 11시-오후1시경

#### 부인과 함께 시를 읊다

2. 다음의 시를 읽어봅시다.

미암의 시

동산의 꽃 난만해도 보잘것없고  
거문고 통소 요란해도 부질없는 것  
좋은 술 고운 자태에 흥미가 없고

83) 정구복, 앞의 논문, 10쪽.

진짜 맞은 서책 사이에 있다.

부인(송덕봉)의 답시

봄바람 좋은 풍경 예부터 보는 것이요  
달아래 거문고 탐도 한가지 한가로움  
술은 또 근심을 잃어 마음이 넓어지는데  
당신은 어찌 서책에만 편벽된 생각을 하오?<sup>85)</sup>

3. 위 글을 읽고 친구의 죽음을 대하는 작가의 마음을 생각해보자. 그리고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지켜본 경험이 있는지 이야기해 보자.
4. 위 시를 읽고 미암과 부인의 모습을 상상해보자. 그리고 미암의 시에 부인의 답시처럼 직접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써 보자.

<예1>은 작가의 솔직한 면이 드러나 있는 부분이다. 작가는 친구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하고 있으며 안타까워하고 있다. 또한 부인과의 생활모습이 한편의 시에서도 드러난다. 미암의 부인 송덕봉은 『미암일기』에 자주 거론되고 있는데 자신의 주관이 뚜렷한 여성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남편인 미암에게도 할 말은 하고 지내는 평등한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부인의 말을 미암은 솔직한 마음으로 수용하고 충고도 받아들이며 생활하는 것을 일기에서 찾을 수 있다. 교사는 이 활동에서 학생들에게 일기쓰기에서 거짓 없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다른 어떤 화려한 수식보다도 큰 감동을 줄 수 있다고 느낄 수 있게 이끌어 준다.

## (2) 문체의 특징

문체의 개념은 매우 폭이 넓고 다양하다. 여기서는 문체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몇 가지로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체는 글쓰는이에게

84) 『미암일기』 5권, 1577년 1월 5일, 454쪽.

85) 『미암일기』 5권, 491~492쪽.

만 독특하게 나타나는 개인적인 표현의 특징을 의미한다. 모든 글에는 많은 적든 글쓴이의 개성이나 습관 등이 배어있다. 둘째, 문체는 표현 기술을 의미하기도 한다. 같은 내용을 전달하더라도 어떠한 단어를 선택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적절히 배열하며 수사법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하는가 등에 따라 그 전달의 효과는 크게 달라지게 마련이다. 이때 글쓴이가 표현과 전달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현 기술 일체를 문체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개성과 보편의 융합으로서의 문체를 생각할 수 있다. 개인적 특수성이 드러나는 문체를 ‘개성적 문체’라고 한다면 시대, 지역, 사회 구조, 사회 계층에 따라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문체를 ‘유형적 문체’라고 할 수 있다. 곧 글을 쓰는 시간적, 공간적, 계층적 환경이나 글의 목적과 갈래가 달라짐에 따라 글은 그 나름대로의 독특한 어휘, 통사 구조, 수사법을 지니게 마련인데, 이와 같은 표현상의 특징 일체를 가리켜 ‘유형적 문체’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의 문체는 글쓴이 특유의 ‘개성적 문체’와 그 글을 제한하고 있는 외적인 상황, 글의 목적, 갈래 등에 따라 구별되는 ‘유형적 문체’가 적절히 융합됨으로써 최종적으로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글쓰는 이는 유형적인 문체와 개성적인 문체를 자신이 쓰는 글 속에서 변증적으로 결합함으로써 그 글이 문체상의 보편성과 개성을 아울러 지닐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sup>86)</sup> 여기서는 『미암일기』의 문체적인 특징을 찾아보고, 자신만의 개성적인 문체로 직접 일기를 써보도록 유도한다.

<p>&lt;예1&gt;</p> <p style="text-align: center;"><b>손자 광선의 대례를 듣고서 적다</b></p> <p style="text-align: right;">○학년 ○반 이름 :</p> <p>1. 아래의 글을 읽어봅시다.</p>
---

86) 국어교육위원회 지음, 『글쓰기와 삶』,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6, 186~188쪽 참고.

(중략) 신시(申時)에 경렴이 남원 혼소(婚所)로부터 왔다. 성례(成禮)의 상황을 물었다. '19일 미시(未時)에 (중략) 경렴은 먼저 들어가 자리에 섰고, 신랑이 중방(中房)을 거느리고 맨 나중에 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주변에 있던 집사는 옷이 흑단령(黑團領)으로 문에서 맞이하여 음(揖)하고는 들어오기를 청했습니다. 신랑은 세 번 사양한 후에 집사의 선도로 신부택으로 따라 갔습니다. 중방은 기러기를 신랑에게 주고, 신랑은 기러기를 받들고 왼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자리의 가운데로 나아가 무릎을 꿇어앉았습니다. 기러기를 놓은 곳은 자리 앞의 왼쪽입니다. 엎드려 맹세하고는 천천히 물러나와 이배(二拜)를 했습니다. 집사가 손으로 인도하여 신랑은 마침내 중당(中堂)으로 들어가 신부를 향해 섰습니다. '신랑은 남쪽을 향해 서시오.' 신부는 비로소 나와 서로 대했습니다. 신랑을 향해 사배(四拜)를 하고 신랑은 이에 이배로 답했습니다. 신랑은 약간 구부려 읊하고 앉았습니다. 신랑이 먼저 상을 대하여 서고, 신부도 이를 따랐습니다. 상이 설치된 중간에서 부부가 서로 대했습니다. 부부가 각각 삼잔(三盞)을 마셨습니다. 대기하던 사람이 신랑을 인도하여 병풍이 둘러친 별도의 의막으로 들어왔습니다. 찬부(贊婦)와 유모(乳母)는 함께 신부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찬부와 유모가 물러나오자 대기하고 있던 사람이 신랑을 인도하여 방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얼마 후 신부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후략)<sup>87)</sup>



• 어휘 풀이

신시 : 오후3시-5시경 / 혼소 : 혼인 장소 / 성례 : 혼인의 예식을 지냄

미시 : 오후1시-3시경 / 중방 : 수령을 따르며 시중을 드는 사람

흑단령 : 벼슬아치가 입던 검은 빛깔의 단령, 단령은 깃을 둥글게 만든 조선시대 공복(公服)의 한 가지

음 : 인사하는 예의 한 가지, 두 손을 맞잡아 얼굴 앞으로 들고 허리를 공손히 구부렸다가 펴면서 두 손을 내림

이배 : 두 번 절 함 / 중당 : 대청의 가운데 / 사배 : 네 번 절 함

삼잔 : 술 세 잔 / 찬부 : 도와주는 부인

2. 이 글은 미암이 아들 경렴에게서 전해들은 손자 광선의 대례(혼인을 치르는 큰 예식) 상황을 상세히 기록한 것이다. 이 글에서 느껴지는 문체상의 특징과 필자의 글쓰기 방식에 대해 설명해 보자.

3. 친지의 결혼식이나 조부모님의 회갑연 친척 동생의 돌잔치 등 자신이 경험한 일을 이와 같이 상세히 관찰하여 한편의 글로 완성해 보자.

87) 『미암일기』 5권, 1576년 2월 21일, 227~229쪽.

<예1>은 생활 속에서 들은 이야기나 간접적으로 겪은 일들도 자신의 일기의 소재가 될 수 있음을 알게 하고, 『미암일기』의 문체적 특징을 글 속에서 찾아내게 할 수 있다. 학생들은 <예1>에서 일기는 수필처럼 기록할 수도 있지만, 보고문이나 설명문처럼 정보전달하는 글의 형식으로도 기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사는 다양한 글쓰기 방식으로 일기를 쓸 수 있음을 학생들에게 주지시키고 학생들은 실제로 자신만의 개성적인 방식으로 일기를 써보자.

<예2>

**정하게 제사 드리고**

○학년 ○반 이름 :

1. 아래의 글을 읽어봅시다.

11일 개입

닭이 울자 일어나 머리 빗고 세수하고 축문(祝文)을 쓰고 날이 밝아 제물(祭物)을 차렸다. 제물이 잘 갖추어져 심히 기쁘다. 제물이 정하게 갖추어진 것은 부인의 공이 많다. (중략) 군 직과 중립이 와서 술을 마시고 장기를 두다가 잤다.

광문을 시켜 송순(宋純)의 집에 가서 13일의 모임(미암과 부인 덕봉의 생일이 이 달에 있어서 한 날 잔치를 열었다.)에 나오기를 청했다. 송순이 올 여름에 대립했던 일을 깊이 부끄러워하며 따뜻한 말로 간곡하게 대해줬다고 한다.

광문이 장가갈 때에 탈 말을 송중립에게 빌리기로 했다. 오늘 저녁은 병신년(丙申年, 중종 31년)에 내가 장가든 날이다. 그때의 큰 기쁨이 기억해진다.<sup>88)</sup>

- 어휘 풀이
  - 축문 : 제사 지낼 때 신명(하늘과 땅의 신령)께 고하는 글
  - 제물 : 제사에 바치는 음식물

2. 이 글을 읽고 문체의 특징을 찾아보자. 그리고 이러한 문체상의 특징으로 얻게 되는 글쓰기의 장점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3. 글쓰기에서 문체의 갈래를 조사하여 보고, 자신에게 적합한 문체로 일기를 써 보자.

<예2>를 통해 『미암일기』 문체의 특징이 간결하고 담백함을 학생들이

88) 『미암일기』 2권, 1570년 12월 11일, 622쪽.

스스로 찾아내게 한다. 이처럼 간결하고 수식이 없는 『미암일기』의 문체는 글 속에서 작가의 솔직함을 느끼게 한다. 일기는 공적 일기를 제외하면 나의 일기에 대한 남의 읽기를 배제하는 것이 장르적 관습이다. 솔직함을 본질로 하는 일기에서 문장이 반드시 화려하고 수식이 많고 문학적인 수사법을 능수능란하게 구사할 필요는 없다. 학생들은 이 활동에서 솔직한 내면을 담담하게 표현하는 것을 배울 수 있고, 그것을 자신의 일기쓰기에 적용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3) 생활일기 쓰기의 예시

지금까지 살펴 본 『미암일기』의 내용면의 특징은 매일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과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일에 이르기까지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을 사소한 일들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이 점이 『미암일기』의 또 다른 장점이자 학생들에게 강조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일기쓰기를 어렵게 생각하는 학생들에게 『미암일기』의 이러한 면을 예로 보여주고, 일기라는 것이 꼭 사색적으로만 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다. 현재의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과 그날그날 생각한 것, 한 일 등을 『미암일기』처럼 간결하게 기록한다면 매일 흘러보낼 수 있는 자신의 일상을 기억이라는 것에 의지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다시 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일상을 기억한다는 것은 바쁜 현대사회에서 자칫 비생산적으로 비취질 수 있겠지만 일기를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진지한 태도로 살핀다는 것 외에도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메모 습관, 메모의 기술 등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일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메모 습관을 길러주고, 스스로 메모와 기록의 장점을 느끼게 할 수 있다.

여기서는 학생들에게 지금까지 살펴 본 『미암일기』를 활용한 학습지를 적용하여 일기의 글감 찾기, 문체의 특징을 살려 쓰기와 솔직한 내면을 기록한 생활일기를 직접 써보는 활동을 하게 한다.

<예1>

### 생활일기 쓰기

○학년 ○반 이름 :

◎ 『미암일기』를 참고하여 다음의 활동을 해 보자.

1573년 8월 10일

영남군수 남지원이 전복, 건어, 미역 등의 물건을 보내왔다. 부인의 꿈에 우리 어머니가 진주 3개를 손에 들고 부인의 품속에 넣어줘 보였다고 한다. 이는 대길(大吉)의 징조이다. 박무원이 왔다가 갔다. 김요선이 와서 모래 내려간다고 고했다. 들으니 이조(吏曹)에서 취재(取才)를 위한 좌기(坐起)를 12일에 한다고 한다. (중략) 내일은 돌아가신 할머니 설씨의 기일인데 일전에 집안 개가 새끼를 낳기 때문에 제사를 못 지낸다. (후략) 89)

● 어휘 풀이

이조 : 육조의 하나로 벼슬아치의 임명, 공훈 등의 일을 맡은 관청

취재 : 조선시대 과거와는 별도로 하급 관리를 채용하기 위해 실시한 시험

좌기 : 관아의 으뜸 벼슬에 있는 이가 출근하여 일을 처결하는 것

1. 오늘 있었던 일을 위의 『미암일기』처럼 생각나는 대로 정리해 보자.

예 :

(㉠) 학교 가는 길에 노랗게 물든 은행잎과 수북이 쌓인 낙엽에서 가을을 느낌.

(㉡) 국어 시간에 선생님께서 해 주신 재미있는 이야기.

(㉢) 단짝 상이와 쉬는 시간에 함께 읽은 소설 『000』에 대한 느낌.

(㉣) 집에 오는 길에 지나쳐 온 시장에서 본 풍경.

(㉤) 저녁에 본 재미있는 TV 드라마의 인물에 대해 느낀 점.

2. 위와 같이 하루에 있었던 사건이나 보고 들은 이야기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것을 주제나 제목을 정하여 일기를 기록해 보자.

그러나 반드시 주제를 정하여 기록할 필요는 없다. 그냥 하루의 일과를 시간의 순서에 따라 기록해도 된다.

3. 『미암일기』의 간결하고 담백한 문체의 특징을 참고하여 간결한 문장으로 오늘의 일기를 써 보자.

4. 글보다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은 삽화나 만화로 하루의 일을 기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만화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서울 애니메이션 센터<<http://ani.seoul.kr/>>에서 자료를 얻을 수 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아래의 칸에 그림으로 표현해 보자.


5. 오늘 있었던 일을 이 외에도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고 싶은 학생은 자유로운 형식으로 일기를 기록해 보자.

6. 자신의 생활에서 매일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도 관찰과 사색을 통해 얻게 되는 느낌을 적어보자.

이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직접 자신의 일상을 돌아보고, 생활 속에서 글감을 찾고, 내면의 솔직한 고백을 기록하는 경험을 해보게 한다. 여기서는 학생들이 직접 생활일기를 써서 일상의 삶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어떤 의미를 추구하며 사는지 알 수 있다. 학생들에게 실제로 생활일기 쓰기를 하게 하여, 일상의 기록을 통한 삶의 가치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유의미한 활동이 되게 한다.

생활일기를 쓰는 것은 자신의 주변을 관찰하고, 내면을 성찰하며 삶의 지표를 바르게 설정하도록 도와준다. 학생들은 자신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자기를 표현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또한 일기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글이 아니므로 학생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게 한다.

89) 『미암일기』 제4권, 106~107쪽.

## 2. 여행일기를 활용한 교육 방안

조선조 일기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은 여행의 체험을 담은 여행일기이다. 여행일기는 여행 과정에서 보고 듣고 느낀 체험을 일기의 형식으로 서술한 것이다. 여행일기는 며칠 동안의 짧은 기록도 있다. 그러나 한시적이기는 해도 일기의 형식과 효용성을 잘 드러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기의 영역에서 제외시킬 수는 없다. 여행과 일기는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여행은 일정 기간 동안에 시간적 순서에 따라 계획되고 실행되는 것이며, 여행 계획의 단위는 하루이다. 매일 매일의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점검하다 보면 그것이 바로 일기의 형식을 띠게 된다. 여행일기는 그 표현 방식이나 대상이 다양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일정한 틀을 마련하기 어렵지만 대부분 산문양식이다. 여행일기는 여행의 동기와 기능에 따라 산수유람의 체험을 기록한 유람일기,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내외의 여행 체험을 기록한 사행일기, 바다에서의 조난 체험을 기록한 표류일기 등이 있다.<sup>90)</sup> 그러나 여기서는 오늘날의 개인의 여행과 성격이 비슷한 산수유람의 체험을 기록한 유람일기를 여행일기 자료로 살펴보고자 한다.

유람일기의 대상은 주로 명산대천이나 역사의 자취가 깃든 고적이다. 초창기의 여행일기는 대부분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은 일을 기록한 것이나, 후대로 내려오면서 여행 자체의 즐거움과 재미를 찾아 여행을 즐기고 기록으로 남긴 작품이 늘어나게 된다.

유람일기의 대부분은 유산기(遊山記)이다. 유산기의 작가들은 대부분 당대의 대표적 지식인이며 사대부 관료들이었다. 1471년 김종직의 「유두류록(遊頭流錄)」이 나온 이래 남효온의 「유금강산기」, 「지리산일과」, 「유

90) 정하영, 「조선조 일기류 자료의 문학사적 의의」 『정신문화연구』 65호, 1996.12, 32~33쪽.

천왕산봉기」 이원의 「유금강록」, 김일손의 「두류기행록」, 주세붕의 「유청량산록」, 이황의 「유소백산록」, 조식의 「유두류록」, 이이의 「유청학산기」, 양대박의 「금강산기행록」, 조호익의 「유묘향산록」, 이정귀의 「유천산기」, 「유금강산기」, 유몽인의 「유두류록」 등이 잇달아 나와 하나의 영역을 형성하게 된다. 유산기에는 이러한 작가들의 역사의식과 사상 및 문학적 재능 등이 복합적으로 농축되어 있다. 또한 유산기는 작품 속에 갖가지 설화나 전설이 수용되어 있고, 많은 수의 시도 포함되어 있어, 작가의 문학적 소양을 마음껏 발산한 복합적 문학양식의 성격을 갖고 있다.<sup>91)</sup> 이처럼 여행일기에는 당대 지식인들의 심성수양과 심미체험, 문화 체험 등이 잘 나타나 있다. 옛날에는 정승이라 하더라도 한 번 여행을 떠나기가 매우 힘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난 명산을 찾아가면 일생에 또 한번 찾아올까 싶어 그때의 감동과 체험을 더더욱 기록으로 남기고자 했던 것 같다. 요즘은 국내는 물론 외국 여행도 자유로워졌고, 학생들도 소풍이나 견학, 현장학습, 수학여행, 캠프 활동 등으로 단체 여행의 기회는 물론 가족간의 여행도 예전보다는 활발해졌다. 이러한 소중한 체험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은 학생들의 심미체험, 문화체험 등을 자아성숙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유산기에는 사찰이나 민간의 과중한 조세와 부역, 그리고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공물의 부과 등에 대한 현실 문제를 직시하고 이를 구제하려는 경제제민의 현실인식이 드러나 있다.<sup>92)</sup> 또한 유람 도중 유적을 만나 역사를 회고하는 것은 유산기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속성이다. 조

91) 정하영, 앞의 글, 34~35쪽.

92) 김종직은 천왕봉에서 세석으로 이어지는 주능선에 매를 잡기 위해 움막을 짓고 사는 사람들의 생활상을 보고서 그들의 고달픈 삶을 가엾게 여기며 동정하였다. 김종직은 “나라에 진헌하는 것은 한두 마리에 불과한데, 노리게감으로 충당하기 위해 헤어진 옷을 입고 겨우 밥 한 술 뜨는 사람들에게 밤낮으로 눈보라를 무릅쓰고 천 길 봉우리 위에서 엎드려 있게 하니, 어진 마음을 지닌 사람은 차마 하지 못할 일이다”라고 하여, 이들의 삶을 긍휼히 여겼다. - 최석기 외 옮김, 『선인들의 지리산 유람록』, 돌베개, 2000, 400쪽.

식(曹植, 1501~1572)은 산수 유람을 하면서 산수를 구경하는 것보다 그 속에서 몇몇하게 살았던 사람을 만나게 된 것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런 그의 유람관을 ‘간산간수(看山看水) 간인간세(看人看世)’라 할 수 있다. 곧 산과 물을 구경하며 답답함을 푸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산수 속에 깃들인 역사를 회고하며 그 시대의 인간과 사회를 생각했던 것이다.<sup>93)</sup>

유산기는 단순한 기행록의 수준을 넘어 그 안에는 그들의 정신과 문학이 무르익어 있다. 또한 유산기에는 유람 기록이나 정경묘사가 섬세하며, 산수와 인간의 조화를 추구하는 사유, 상상력을 통한 작가의 의식세계, 산수 자연에 대한 미의식 등이 나타나 있다.<sup>94)</sup> 여기서는 이와 같은 여행일기의 장점을 일기교육에 적용하는 방안을 연구해 볼 것이다.

### 1) 여행의 기록을 통한 심미체험·문화체험·자아성숙의 구현

김태준은 「紀行의 精神史」에서 한국인은 여행을 즐기는 민족이라고 주장하며, 그 예로 명절이면 고향을 찾아 돌아가는 행렬을 들고 있다.<sup>95)</sup> 이것을 ‘돌아감의 정신’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여행이라면 떠나는 길이라야 맛이 난다며, ‘떠남의 정신’을 예찬하고 있다. 떠남이란 일상성으로부터 벗어남이요, 일상성과 비일상적 세계 사이에서 자기를 새로 구축하는 경계인(境界人)의 정신이다.

일찍부터 아름다운 자연 경관은 한민족 유람자들의 삶의 교과서였다. 신라의 화랑도는 유람과 국토의 순례로써 수련과 교육의 방식을 삼았다. 고구려·백제·신라 사람들은 성지 순례와 유학으로 여행의 반경이 국제적이었다. 그들은 국내 여행에서도 넉넉한 인심을 전해주고 있다. 고려의 문인 김극기(金

93) 최석기 외 옮김, 『선인들의 지리산 유람록』, 돌베개, 2000, 101~124쪽.

94) 최석기, 앞의 책, 408쪽.

95) 소재영·김태준 편, 『여행과 체험의 문학』, 민족문화문고간행회, 1987, 7~16쪽.

克己)는 전국 방방곡곡을 유람하여, 기행시집 등 150여권의 문집을 남겼다. 지리와 시문을 합친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이 그의 시구로 채워졌음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좋은 경관은 좋은 시를 낳고, 이 경관과 시가 다시 여행자를 불러 끊이지 않았다. 이 유람의 전통은 조선조에 특히 발달하여 지금에 이르렀다.<sup>96)</sup>

이 유람의 역사에서는 은둔의 정신에서부터 높은 정신에 이르는 폭넓은 정신사를 확인할 수 있다. 높은 정신이란 물러나 자연과 결합하는 정신이요, 노닐어 현실과의 경계를 유지하는 정신이다. 여행자들은 시로 자연을 노래하고, 학문을 논하며 가단(歌壇)을 이루기도 했다.<sup>97)</sup>

여행일기는 말 그대로 일기형식의 기행문, 기행문 형식의 일기라고 할 수 있다. 산수를 유람하고 남긴 유산기(遊山記), 유산록(遊山錄)은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에 의하면 유람의 동기나 목적 및 동행인을 첫머리에 기술하고, 그 다음 유람을 하면서 전문한 것을 날짜별로 기록하고, 마지막에 유람을 총평하는 형식을 띤 구체적 서술 체계를 가진 기행문학이다.<sup>98)</sup> 여기서는 주로 유산(遊山)의 기록을 중심으로 여행일기의 교육적 측면에 대해 제시할 것이다. 선인들은 여행을 통해 심미체험과 문화체험을 하고, 그러한 풍부한 경험을 내면화하여 자아성숙으로 여행의 의미를 확장해 가고 있다.

『금강산 답사기』는 조선 후기에 편찬된 『와유록(臥遊錄)』을 비롯하여 여러 개인 문집에 실려 있는 것으로, 작가, 서술, 계절, 시기 등에서 의미가 있는 8개 작품을 연대순으로 번역해 놓은 책이다.<sup>99)</sup>

---

96) 조선시대 산수기행문학(遊詩·遊記)과 관련된 글의 목록은 고연희의 『조선후기 산수기행예술 연구』(일지사, 2001, 16~20쪽)에 나타나 있어 참고할 만하다.

97) 소재영·김태준 편, 『여행과 체험의 문학』, 민족문화문고간행회, 1987, 7~16쪽.

98) 이에 대해서는 이혜순 외, 『조선 중기의 유산기 문학』(집문당, 1997), 고연희, 『조선후기 산수기행 예술 연구』(일지사, 2001)에 잘 나타나 있다.

99) 남효온 외 저, 김용곤 외 역, 『금강산 답사기』, 혜안, 1998.  
저자들은 이곡(고려), 남효온, 이원, 성제원, 홍인우, 이정구, 정엽, 박성원 이다. 간단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7세기의 금강산 기행문』은 17세기의 금강산 기행문을 수집, 번역한 책으로 여기에 실린 작가들의 대부분은 당쟁으로 인해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해 중앙정계로부터 물러났을 때 금강산을 찾았다. 고통스러운 현실의 갈등으로부터 금강산을 찾아갔던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던 필자들은 아름다운 금강산의 자연 속에서 자신의 내면을 다시 성찰하면서 인생의 의미를 재음미하는 진지한 모습들을 보여준다. 그들에게 있어 금강산은 아름다운 자연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문화유적이 수장된 보고였으며, 조물주의 창조력이 담긴 신비의 세계였다. 따라서 인간의 내면에 무한한 것을 느끼게 하는 존재였다. 이들의 기행문에서 우주만물의 생성원리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전통시대 지식인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 때때로 우리 국토와 문화의 존재 자체에 대한 외경과 자긍심을 발견할 수 있다.<sup>100)</sup>

다음으로 『선인들의 지리산 유람록』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선인들이 지리산을 유람하고 남긴 유람록을 번역한 책이다.<sup>101)</sup> 마지막으로 『궁핍한 날의 벗』에 실려 있는 박제가의 「묘향산소기(妙香山小記)」가 있다.<sup>102)</sup>

---

남효온(南孝溫, 1453~1492)의 『유금강산기(遊金剛山記)』는 조선 초기 도학자인 남효온이 왕도정치를 구현하고자 한 그의 뜻이 좌절되자 뜻을 같이하는 선비들과 죽림7현을 결성하여 세상을 풍자하는 변화를 보이는데, 그 속에서 나온 첫 번째 유람기로 1485년 4월 15일부터 윤4월 20일까지 금강산 일대를 유람한 기록이다.

홍인우(洪仁祐, 1515~1554)의 「관동일록(關東日錄)」은 조선 중기 성리학자인 홍인우가 친구인 남언경, 허국선과 함께 죽기 1년 전인 1553년 4월 9일부터 5월 20일까지 40여 일 동안 금강산과 동해안 일대의 명승지를 돌아보고 쓴 기록이다.

정엽(鄭曄, 1563~1625)의 「금강록(金剛錄)」은 조선 중기 성리학자인 수몽(守夢) 정엽이 그의 나이 55세 때인 1618년 인목대비가 폐출되자 양양부사를 사직하고 심사를 달래기 위해 4월 1일부터 14일까지 금강산 일대를 답사한 기록이다.

박성원(朴聖源, 1697~1768)의 「금강록(金剛錄)」은 조선 후기 관인 유학자인 겸재(謙齋) 박성원이 그의 나이 42세 때인 1738년 함경도 도사에 임명되자 8월 28일 서울에서 출발하여 함경 감영에 부임하는 도중인 9월 16일까지 보름 동안 금강산 일대를 두루 구경하면서 느낀 소감을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다.

100) 이정수 외 편역, 『17세기의 금강산 기행문』, 강원대학교출판부, 2000, 역자서문 참고, 이 책에는 이정구의 「유금강산기」, 권엽의 「구사금강록」, 정엽의 「금강록」, 이명준의 「유금강일록」, 신익성의 「유금강소기」, 이명한의 「유풍악기」, 이경석의 「풍악록」, 홍여하의 「풍악일기」, 김득신의 「금강산록」, 김창협외 「동유기」, 김수증의 「풍악일기」, 이동표의 「유금강산록」이 실려있다.

101) 최석기 외 옮김, 『선인들의 지리산 유람록』, 이 책에는 이륙, 김종직, 남효온, 김일손, 조식, 양대박, 박여량, 유몽인, 성여신의 지리산 유람기가 수록되어 있다.

이상의 작품들은 모두 현대어로 번역되어 있어서 학생들에게 여행일기 교육 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여행일기들을 활용하여 여행일기의 교육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겠다.

학생들은 옛 선인들의 여행일기 자료를 통해 간접경험을 하고, 학습지 활동을 통해 느낀 점을 글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직접 여행한 경험을 통해 심미체험과 문화체험 등을 하고 깨달은 것을 글로 기록하는 활동을 하여 더욱 성숙한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 2) 여행일기 교육 방안 - 유산기(遊山記) 중심으로

불과 몇 년 전까지도 금강산은 우리에게 언제나 가보게 될는지 알 수 없는 그리운 곳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일부이기는 해도 금강산을 여행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 금강산을 여행하기 전에 선인들의 금강산 기행문을 읽는 것은 우리가 금강산 유람을 통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남길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게 해 주는 지침서가 될 것이다. 이것은 비단 금강산에 한정해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여행을 통해 무엇을 바라보고, 체험한 것을 어떻게 형상화하며, 그 여행이 가치 있는 경험이 되도록 무엇을 남길 것인지 알려주는 길잡이 역할을 선인들의 여행일기가 갖는 의미라고 생각한다.

선인들은 여행을 하게 되면 유산기와 같은 산행기록을 통해 그곳의 승람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는 행위를 하였고, 유산기는 ‘이를 읽어 인생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훌륭한 작품으로서 수용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sup>102)</sup>

102) 박제가(朴齊家, 1750~1805)지음, 안대회 옮김, 『궁핍한 날의 벗』, 태학사, 2000, 213쪽, 이 작품은 남한에는 자료가 전해지지 않고, 북한의 『기행문선집』 (조선문화예술통맹출판사 간행, 1964)에 김찬순의 번역문이 원본과 함께 실려 있다.

여기서는 여행일기 중에서도 유산기<sup>104)</sup>를 중심으로 학생들에게 자신의 여행경험을 어떻게 기록으로 남길 것인가에 대한 교육 방안을 제시해 보겠다. 이를 위해 유산기의 내용적인 면과 문체적인 면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활용한 여행일기 쓰기의 예를 제시하고자 한다.

학생들은 이 활동을 통해 여행에서 체험한 경험과 여행에서 만난 인정, 세태, 각종 견문 등을 정리하면서 스스로의 안목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행 후의 감상을 기록하는 일에서 여행 전과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될 것이다.

## (1) 내용의 특징

### ① 여행의 준비와 출발의 예시

여행은 일상적인 경험은 아니다. 누구에게나 특별한 경험이 된다. 그리고 일단은 자기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던 공간을 벗어나게 된다. 그로 인해 준비해야 할 여러 가지 것들이 자연적으로 생겨나게 된다. 여행은 짧을 수도 길 수도 있고, 거리가 멀 수도 가까울 수도 있다. 그리고 여행의 성격에 따라 정신적, 물질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다. 학생들은 이 활동에서 자신들이 여행하고 싶은 목적과 그 목적에 맞는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조사하고 정리해 보는 일을 통해 여행에 대한 인식을 단순히 놀러간다는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을 체험하러 간다고 저절로 깨달을 것이다.

다음에 제시한 일기는 홍인우(洪仁祐, 1515~1554)의 「관동일록(關東日錄)」에서 발췌한 것이다. 「관동일록」은 홍인우가 1553년(명종 8) 4월 9일에 친구인 남시보, 허국선 등과 함께 서울을 떠나 5월 20일까지 40여 일 동안 금강산과 동해안 일대의 명승지를 유람하고 지은 관동 유람기이다. 여

103) 이혜순 외, 『조선 중기의 유산기 문학』, 집문당, 1997, 19쪽.

104) 유산기(遊山記)는 산을 유람하고 기록한 일기형식의 기행문이다. 본고에서는 여러 작가들의 유산기 중에서 몇 작품을 중심으로 하여 여행일기 교육 방안에 활용하였다.

행 노정은 평지, 해안, 산행을 모두 합쳐 1600여리에 이르는 먼 길이었다  
106) 예문을 통해 여행의 동기와 준비에 대해 알아보자.

<예1>

### 유람 계획과 준비



겸재 정선(1676-1759) - 금강전도

○학년 ○반 이름 :

1. 아래의 글을 읽어봅시다.

우리 동방의 명산으로는 묘향산, 금강산, 구월산, 지리산 등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회자되는데 모두 백두산의 갈래들이다. 그러나 맑고 화려하고 기묘하며 빼어나기로는 오직 금강산이 제일이다. 늘 한 번 유람하여 숙원(宿願)을 풀고 싶었으나 풍진 세상의 일 때문에 나의 수십 년 계획을 이루지 못하고 매번 동지들과 금강산 타령을 하고 지냈다. …중략… 계축년(癸丑年:1553) 4월에 친구인 허국선과 남시보를 만나 대화를 하면서, 옛 사람들이 명승지를 유람하면서 즐기던 행적을 이야기하게 되었다.

“옛날 공자님께서 태산(泰山)에 올라 천하가 작다고 하였고, 주자(朱子)는 남악산(南岳山)에 올라 산천이 장엄한 것을 바라보면서,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하고 지혜로운 자는 물을 좋아한다’는 이치를 깨달았으니, 그만한 까닭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유람을 가고 싶은 것이 비록 이 때문은 아니지만, 한 번 회포를 풀어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의논을 거듭한 끝에 드디어 산행 장비를 갖추었다. 장비와 비상식량은 대체로 양로서(養老書)에 기록된 품목을 위주로 하고 조금 가감하였다.<sup>105)</sup>

● 어휘 풀이

회자 : 널리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림을 이르는 말

숙원 : 오래도록 지녀온 소원

회포 : 마음 속에 품은 생각

2. 이 글을 읽고, 필자의 여행 동기를 찾아보자. 그리고 어떤 때 여행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지 자기의 경험에 비추어 이야기해 보자.

3. 여행을 가기 전에 준비할 것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조사하여 정리해 보자.

4. 자신이 수학여행으로 가고 싶은 장소를 정해, 그 이유와 그 여행에서 무엇을 보고 싶은지 발표해 보자.

<예1>은 「관동일록」의 여행 동기에 관한 것이다. 이 활동지는 학생들에게 먼저 여행을 떠나는 동기와 목적 등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한다. 그리고 여행을 떠나기에 앞서 준비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조사해 보고 정리해 보는 과정을 통해 자신이 앞으로 해야 할 여행에서 어떤 것을 보고, 경험할 것인지 그 층위를 가늠해 보게 한다.

## ② 여행 중의 심미체험·문화체험 예시

현대인들이 여행을 가는 장소는 산이나 바다 외에도 놀이기구가 있는 여러 유원지나 각종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곳 등 장소가 다양해졌다. 그리고 여행을 통해 반드시 무언가를 얻고 돌아와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도 없다. 그러나 선인들의 일기를 보면 전통적인 여행은 산수유람을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세태를 알고, 문화유적을 통해 국토와 나라에 자긍심을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여행을 하고 나면 스스로를 돌아보고 생각의 폭과 깊이가 넓어지고 그러한 자신의 변화를 기록으로 남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선인들의 여행일기 쓰기 방식을 살펴보고 학생들에게 여행의 경험을 어떻게 자기의 글쓰기에 적용시킬 것인가에 대해 알아보겠다.

다음에 제시된 글은 남효온의 「유금강산기」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남효온은 나이 32세에 금강산 유람을 시작으로 죽기 전까지 개경, 지리산, 관서, 영남, 호서, 호남 등을 돌아다니면서 「송경록(松京錄)」, 「유천왕봉기(遊天王峰記)」, 「유가수굴기(遊佳殊窟記)」, 「유해운대기(遊海雲臺記)」 등 주옥

105) 남효온 외 저, 앞의 책, 151~152쪽.

106) 「관동일록」에는 당시의 지명과 도로, 산천과 교량, 명승고적의 경치와 인심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특히 산맥과 강의 계통을 자세히 적어 놓았다. 또한 여행 중에 있었던 저자와 친구들 사이의 학문적 토론과 재미있는 일화 등이 수록되어 있어 당시 유학자들의 사상과 풍류를 엿볼 수 있다. 이 글은 여름철 금강산의 절경을 자세히 묘사하였고, 여행 중에 느낀 회포와 일화들을 유연한 문장으로 정감 있게 표현하였다. 당시의 금강산 산세와 관동일대의 지형 및 풍속 인심 등을 잘 알 수 있는 기행문이다.  
- 남효온 외 저, 앞의 책, 149~150쪽.

같은 유람기를 남겼다. 「유금강산기」는 대개의 유람기가 그러하듯이 출발에서부터 돌아올 때까지의 여정을 시간 순서대로 금강산의 아름다움과 그 속에 젖어 있는 역사를 보고 들은 대로 일기체 형식으로 담담하게 그리고 있다.<sup>107)</sup> 다음의 학습지에서는 필자가 여행에서 무엇을 보고 어떻게 느끼며 표현하는지 찾아보고, 학생들에게 자신의 여행 경험을 떠올려 직접 이러한 여행일기를 써보게 하는 활동이다.

<예1>

**추지원에서 동해바다를 바라보다**

○학년 ○반 이름 :

1. 아래의 글을 읽어봅시다.

4월 22일  
 (전략) 옛날 나무꾼이 우연히 그 곳에 이르렀다가 다시 찾았으나 찾지 못하였다. 산 아래 사람들과 사이에 선경(仙境)이라고 전해 내려오고 있다. 고개 위에 추지원(楸池院)이 있고 원을 지나자 동쪽 하늘색이 매우 푸르렀다. 운산이 말하였다.  
 “이것은 하늘이 아니고 바닷물이네.”  
 내가 눈을 비비고 다시 살펴본 후에야 어떤 것이 하늘이고 어떤 것이 물인지 분별할 수 있었다. 그 물은 해안에서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점점 높아져 하늘과 서로 접하였다. 평생에 본 물은 모두가 다 아이 장난이었다. 고갯마루에서 동으로 내려가니 날씨가 점차 따뜻하고 철쭉이 바야흐로 피고 나뭇잎이 녹음을 이루고 있어 비로소 여름 기운이 느껴졌다. 간간히 나무를 베어 길을 만들었는데 이른바 잔도(棧道)라고 하는 것이다. 때때로 말 위에서 산살구를 따서 먹었다. (후략)<sup>108)</sup>

- 어휘 풀이
- 잔도 : 험한 벼랑같은 곳에 나무를 베어 선반을 매듯이 하여 낸 길

2. 동해바다를 보고 필자는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필자의 감상이 드러난 곳을 찾아보자.

3. 자신의 여행 경험을 떠올려 보고, 여정과 견문, 그리고 여행을 통해 느낀 것을 정리해 보자.

<예1>은 학생들이 작가의 입장이 되어 스스로 여행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

107) 남효온 외 저, 『금강산 답사기』, 33쪽.

108) 남효온 외 저, 『금강산 답사기』, 39~40쪽.

게 하고, 글 속에 나타난 표현을 통해 여행지의 풍경을 상상해보도록 한다. 그리고 자신들의 여행 경험을 되살려 여행의 노정과 견문, 느낀 것 등을 한편의 글로 완성해 보게 한다. 이 활동을 통하여 여행에서 자연과 소통하는 법과 새로운 것을 보고 듣고 그것을 자기 정서화 하는 것을 학습할 수 있다. 다음의 학습지 역시 남효온의 「유금강산기」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예2>

**청간역을 지나 설악산과 죽도를 바라보다**

○학년 ○반 이름 :

1. 아래의 글을 읽어봅시다.

윤4월 13일

비가 개어 출발하였다. 문암(門巖)을 지나 바다를 따라 4, 5리를 가 청간역(淸澗驛)에 이르렀다. 누각이 물가에 있었다. 누각 뒤는 절벽이 깎아지른듯 서 있고 누각 앞에는 많은 바위가 가파르게 솟아 있었다. 내가 누각 뒤 절벽을 올라 바라보니 더욱 넓었다. 서쪽으로 설악산을 바라보니 비가 세차게 쏟아 붓고 하늘 남쪽에는 한낮의 태양이 한가운데 있었다. 앞에는 바다가 어둑어둑하고 뒤에는 꽃이 밝게 피어 있으니 기이한 풍치를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었다. 절벽 위에서 밥을 물에 말아 먹었다. 해안길을 따라서 가다가 모래고개 해안가를 지나갔다. 이때 동남풍이 급하게 불어 파도가 해안을 치는 것이 마치 천군만마 같았다. 파도가 치는 곳에는 무지개가 뿜는데 뿜다가 없어졌다 하는 것이 참으로 장관이었다. 멀리서 죽도(竹島)를 바라보니 흰 대나무가 마치 연기 같았다. 대나무 아래 바위 위에는 바다사자가 무리를 지어 울부짖는데 그 소리가 파도소리와 합쳐져 해안가는 우리가 치듯이 시끄러웠다. 또 부석(腐石)에 이르렀다. 청간에서 여기까지 20리였다.<sup>109)</sup>

2. 이 글을 읽고, 필자가 바라보는 경관을 추측하여 그림으로 표현해 보자.

3. 수학여행이나 소풍 등을 통해 가본 명승지의 경관을 필자의 글쓰기 방식처럼 묘사해 보자.

<예2>에서 두드러지는 부분은 작가의 풍경 묘사 부분이다. 유산기의 두드러진 특징인 이러한 묘사를 학생들에게는 다른 형태로 다룰 수 있게 한다. 그림이나 사진 등이 그것이다. 여행을 하고 그 기록을 남기는 것이 반드시 산문일 필요는 없다. 이 학습지에서는 여행에서 본 것들을 그림으로 표현해

109) 남효온 외 저, 앞의 책, 71~72쪽.

보는 활동을 하게 하였다. 그리고 사진을 찍어 여정에 따라 정리하고 그에 대한 설명을 기록하는 것도 한 편의 여행일기를 만드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요즘은 이러한 형태의 글이 많이 출판되고 있는 추세이다. 학생들에게도 이러한 활동은 글만 기록하는 여행일기보다는 재미있고 흥미로운 활동이 될 수 있다.

다음의 학습지는 박제가의 「묘향산소기」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여기서는 여행의 경험에서 새롭게 알게 되는 일들을 조사하여 정리해 보는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견문을 넓힐 수 있게 한다.

<예3>

**용이 사는 폭포와 상원암의 돌 떡**

○학년 ○반 이름 :

1. 아래의 글을 읽어봅시다.

16일

(전략) 용연폭포바닥은 절구의 **확** 같아서 물의 깊이는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고, 둥글고 새까맣고 소리가 없다. 여기서 넘쳐 나온 물이 아까 우리가 건너 온 시내의 하나가 된다. 일설에 용연이 옛날에는 산 위에 있었다고 한다. 어떤 스님이 주문을 외었더니 용이 산을 가르고 내려와 떡을 축 내려뜨리고 꿇어 었드렸다. 그래도 스님이 계속 주문을 그치지 않자 용은 또 수십 보를 더 내려가 었드렸다. 그제야 스님이 떡을 **끄덕끄덕**하며 됐다 하였더니 용이 지금의 폭포에 자리잡았다는 것이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다. 상원암 스님이 5월5일에 떡을 찌서 시냇가 바위 위에 놓고 암자에 갔다 와 보니 떡이 간 곳이 없었다. 스님은 놀라서 부처님께 공양을 못하게 되었으니 살아 무엇하랴 하고 못에 몸을 던졌다. 그랬더니 뜻밖에도 못 속이 환하게 열리더니 큰 궁전이 나타났다. 푸른 옷을 입은 백발 노인이 “객은 어디서 왔소?”라고 묻길래 스님이 그 연유를 고하였다. 백발 노인이 성난 목소리로 동자를 불러 “아까 떡시루를 가져 오라!”고 소리쳤다. 동자가 시루 하나와 떡 두덩이를 무릎을 꿇고 돌려주었다. 스님은 이것을 받아 떡은 소매에 넣고 시루는 어깨에 메고 물 밖으로 나왔는데 시루는 어깨에 그대로 있으나 떡은 돌이 되었다. 암자 앞에 지금도 둥근 돌 두 개가 놓여 있으니 이것이 곧 그것이라고 한다. (후략)<sup>110)</sup>

• 어휘 풀이

절구 : 곡식을 찧거나 빵는 데 쓰는 기구, 통나무나 돌을 우묵하게 파서 만들  
 확 : 절구의 입구에서부터 밑바닥까지 팬 곳

2. 위 글을 읽고 연상되는 전래 동화나 전설 등을 찾아 발표해 보자.

3. 가족여행으로 집 주변의 명승지나 유적지를 찾아보고, 그 곳에 얽힌 일화나 전설, 역사적 사실 등을 조사하여 정리해 보자.

<예3>은 작가가 여행지에서 보고 들은 새로운 내용을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수학여행이나 소풍 등의 여행기회를 통하여 직접 아름다운 경치나 문화유적 등을 체험하고 그 곳에 얽힌 일화나 역사적 사실 등을 조사하여 글을 써 보게 한다. 이 활동에서는 여행을 통하여 그 상황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감정이나 문화적 체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기록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미적, 문화적 수준을 넓혀줄 수 있는 글쓰기 연습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이 여행일기의 중요한 본질적 정신이라고 생각한다.

### ③ 여행을 통해 만난 인물·세태의 예시

여행에서는 아름다운 산수자연에서 느끼는 미적 체험과 문화유산을 보고 느끼는 문화체험 외에도 여행 중에 만난 사람들이나 함께 동행한 사람들과의 교유를 통해 인간과 세상에 대해서도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된다. 그것은 일상에 파묻혀 미처 깨닫지 못한 삶의 이치를 가르쳐 줄 수도 있고 열린 마음의 자세로 세상을 대할 수 있게도 해 준다. 또한 옛 여행일기의 작가들이 당대의 지식인이라는 점에서 그들의 세상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학생들의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찾아보게 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자신들이 여행 중에 만나는 사람들과 세상풍속을 주의 깊게 관찰하게 되고, 자신이 살고 있는 현시대를 바로 볼 줄 아는 안목을 갖추도록 연습할 수 있다.

다음에 제시된 글은 김종직이 1472년 두류산을 유람하고 쓴 「유두류

110) 박제가 지음, 안대회 옮김, 앞의 책, 「묘향산소기」, 195~196쪽.

록」에서 발췌한 것이다.

<예1>

**흥년이 들어 백성의 공물을 근심하다**

○학년 ○반 이름 :

1. 아래의 글을 읽어봅시다.

15일  
 동이 틀 무렵에는 날씨가 더욱 흐렸다. (중략) 아홉 고개를 다 지나고 산등성이를 따라 걸어 가니 지나가는 구름이 갓을 스쳤다. 풀과 나무들은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도 젖어 있었다. 그 제서야 비로소 하늘과 멀지 않음을 알았다. (중략) 그 때 운무가 흩어지고 햇살이 아래로 비추니 산의 동쪽과 서쪽 계곡이 환하게 열렸다. 멀리 바라보니 잡목은 없고 모두 삼나무, 전나무, 소나무, 녹나무였는데, 말라죽어서 뼈대만 남아 있는 것이 3분의 1이나 되었다. 그 사이에 간간이 단풍나무가 섞여 있어서 마치 그림 같았다. 산등성이에 있는 나무는 바람과 운무에 시달려, 가지와 줄기가 모두 왼편으로 휘어져 흰 머리카락이 바람에 나부끼는 듯하였다. 해송(海松)이 너무 많아, 이 지역 주민들은 매년 가을이 되면 잣을 따서 공물(貢物)의 수량을 채워야 한다. 그런데 올해는 한 나무도 잣이 달리지 않았다. 만약 정해진 수량을 다 거두면 우리 백성들은 어찌하겠는가? 수령이 마침 이 실상을 보았으니 다행한 일이다.<sup>111)</sup>

- 어휘 풀이
  - 운무 : 구름과 안개
  - 공물 : 백성들이 궁중이나 나라에 세금으로 바치던 지방의 특산물

2. 이 글에서 지은이의 신분을 알 수 있는 어휘를 찾아보자.

3. 지은이는 여행을 하며 주변의 경치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살림살이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여행 중에 자신의 용돈 규모에 맞추어 직접 시장이나 가게에서 물건을 사보고 자신이 느낀 시장 분위기나 경제상황에 대해 정리해 보자.

<예1>은 김종직이 함양군수로 재직할 때 두류산을 유람하고 쓴 글이다. 그는 두류산을 꼭 한번 여행하고 싶어 했지만 공무가 바빠 한 번도 못 가고 있다가 그의 문인인 조태허가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며 함께 두류산을 유람하자고 청하여 이 여행을 하게 되었다. 그는 매년 공물을 채워야하는 백성들에게 수확이 없는 것을 알고 수령인 자신이 실상을 보아 다행이라고 기

111) 최석기 외 옮김, 『선인들의 지리산 유람록』, 앞의 책, 27~28쪽.

록하고 있다. 유람 도중이지만 목민관으로서 백성들의 살림살이에도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교사는 학생들이 이 활동을 통해 자신이 속해 있는 지역의 시장이나 여행지의 물가와 분위기를 체험하여 학교 밖의 세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한다.

다음에 제시한 글은 홍인우의 「관동일록」의 일부분이다. 이 글은 지은이가 여행에서 만난 사람과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다.

<예2>

**국선과의 대화**

○학년 ○반 이름 :

1. 아래의 글을 읽어봅시다.

4월 14일  
(중략) 굽이마다 내를 건너게 되었는데, 이 내는 만폭동의 하류이다. 아홉 번 물을 건너서 비로소 장안사에 도착하였다. 절의 골짜기 냇물은 거의 말랐고, 소나무와 노송나무는 모두 벌거숭이가 되어 있어 경치가 전에 들던 소문만 못하였다. 내가 피상히 여기고 있는데, 국선이 말하였다.

“사람을 평가하거나 사물을 볼 때, 외면의 모습만 보고 곧바로 내면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네. 무한히 좋은 경치가 있을지 어찌 알겠는가?”

절에 도착하여 승려들에게 물었다.

“이 골짜기가 어찌하여 저와 같이 퇴락하게 되었는가?”

그가 대답하였다.

“이 절은 지난 기해년에 화재를 만났습니다. 이 때문에 목재를 베어다가 절을 다시 짓느라고 거의 소진되었습니다. (후략)<sup>112)</sup>

2. 여행지에 가서 실망했던 경험이 있다면 무엇 때문에 실망했었는지 이야기해 보자. 반대로 기대하지 않았지만 감탄했던 경우가 있었다면 무엇 때문이었는지 말해 보자.

3. ‘국선’의 말로 알 수 있는 그의 삶의 태도에서 느낀 것을 적어 보자. 그리고 여행지에서 만난 사람과 나누었던 이야기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정리하여 보자.

<예2>는 지은이가 소문으로만 들던 여행지에 도착하여 그 이름에 걸맞지 않은 모습을 보고 실망한 것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여행에서 반드시 멋진 경

112) 남효온 외 저, 『금강산 답사기』, 앞의 책, 154~156쪽.

관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국선의 말처럼 여행을 통해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도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 즉 여행은 명승지나 문화유적을 관람하는 것 외에도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삶 속에서도 무엇인가 배울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활동에서는 학생들에게 이러한 점을 강조하여 지도하는 것이 유익하다.

#### ④ 여행 후 감상 기술의 예시

여기서는 하루의 여행을 마치고 저녁에 느끼는 감상이나 여정을 끝마치고 느낀 자신의 깨달음이나 감상을 표현한 글을 활용하여 여행이 주는 의미를 어떻게 자기 정서화하고 있는지 알아보겠다.

다음 제시된 글은 권업의 「구사금강록」의 일부이다.<sup>114)</sup>

<예1>

#### 새로 발을 씻고 먼지 속으로 들어가다

○학년 ○반 이름 :

1. 아래의 글을 읽어봅시다.

8월 23일

(전략) 올해 변방의 일이 점차 사라지고, 몸도 얽매이는 바가 없게 되었다. 봉선사 중 회신의 권유로 이 여행을 기약하게 되었다. (중략) 길의 원근과 크고 작은 사찰을 차례대로 쓰고, 낱낱이 모두 찾아다녔다. 무릇 경유한 거리가 674리인데 퇴락한 터 46곳, 암자 39개, 큰 사찰 4곳을 둘러보았다. 늦은 가을의 아름다운 경관을 다녀 일생의 목은 빛을 청산하였으니 이것은 진실로 내가 죽기 전의 제일가는 기이한 만남이라고 할 수 있다. 본래의 소원을 이미 마쳤고 내일 아침이면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다만 새로 발을 씻었건만 다시 거리의 먼지 속을 밟게 되는 것이 한스러울 뿐이다.<sup>113)</sup>

2. 이 글을 읽고 지은이가 여행을 마치고 느끼는 심정을 찾아보자.

3. 자신의 경험을 살려 여행을 마치고 새롭게 갖게 된 생각을 정리해 보자.

113) 이경수 외 편역, 앞의 책, 66쪽.

114) 「구사금강록(龜沙金剛錄)」은 권업(1574~1650)이 1607년 7월부터 9월까지 금강산을 유람하면서

<예1>은 지은이가 평생의 소원이던 금강산 여행을 하고 느낀 점을 기록한 것이다. 작가는 아름다운 경관을 보고 세속의 때를 벗은 것을 새로 받을 씻었다고 표현하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먼지 속을 뚫게 되어 한스럽다고 서술하고 있다. 교사는 이 활동에서 학생들에게 여행을 마치고 느낀 생각을 정리하게 하고, 그 감상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할 수 있게 안내하도록 한다.

다음에 제시된 글은 김창협(金昌協)의 「동유기(東遊記)」의 일부이다.<sup>115)</sup> 이 학습지 역시 여행 후 작가가 느끼는 심경의 변화를 찾아보고 학생들에게 여행을 통해 변화된 자신의 내면을 작가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알아보게 한다.

<예2>

**호연한 마음으로 다시 봉래산에**

○학년 ○반 이름 :

1. 아래의 글을 읽어봅시다.

9월 3일 비 오다가 저녁 때 개었다.  
 (전략) 총석정 위에 앉아서 동쪽을 바라보니 눈이 다 닿는 곳까지 오직 바다일 뿐이었고 어느 하나도 가슴에 먼지가 끼고 막히게 하는 것이 없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호연(浩然)한 마음으로 노를 두드리며 봉래산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나게 했다.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세계 불며 눈 같은 파도가 쳐 오르니 거의 기둥의 절반에까지 닿았다. 노한 소리로 울부짖으니 그 기세가 매우 무섭고 두려워 오래 머물 수가 없었다. 저편에 내가 금강산을 보고서 반평생 동안 본 것은 모두 흙무더기, 돌덩어리에 불과하다고 여겼는데 지금 또 깨달으니 반평생 본 것이 모두 줄줄 흐르는 작은 시냇물이요 소 발굽이 들어갈 만한 작은 고인 물 뿐이었다. (후략)<sup>116)</sup>

• 어휘 풀이  
 호연 : 마음이 넓고 태연하다

2. 이 글을 읽고 작가의 심경을 표현한 곳을 찾아보자. 그리고 이와 같은 경험이 있다면 이야기해 보자.

지은 기행문과 시를 모아 엮은 기행록이다. - 이경수 외 편역, 앞의 책, 27쪽.

115) 「동유기(東遊記)」는 김창협(金昌協, 1651~1708)이 1671년 금강산을 유람하고 지은 기행문이다. - 이경수 외 편역, 앞의 책, 231쪽.

3. 여행을 통해 새로운 미적 체험이나 문화 체험을 하고, 여행에서 교유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갖게 된 마음의 변화를 일기로 기록해 보자.

<예2>에서는 작가가 여행을 통해 새롭게 느낀 감정들을 서술하고 있다. 교사는 이 활동에서 학생들이 스스로의 여행 경험에서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일기로 기록하도록 하고 이 활동을 통해 여행이 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한다.

## (2) 문체의 특징

앞에서 『미암일기』의 문체적 특징으로는 간결하고 솔직 담백함을 들었다. 여기서는 유산기의 문체적 특징을 다음에 제시한 글을 통해 찾아보고자 한다.

아래 제시된 글은 박제가가 20살 때 무관인 장인 이관상(李觀祥)이 영변 도호부사로 부임하는데 따라갔다가, 처남인 이몽직과 함께 묘향산을 유람하고 와서 기록한 「묘향산소기」의 일부이다. 이 글은 산행의 과정을 순차적으로 따라가면서 기록하고 있다. 기기묘묘한 산수의 풍경을 풍부한 서정으로 묘사하기도 하고, 승경을 보고 일어나는 감상과 시시콜콜한 사건을 그려내기도 하며, 고적을 보고 이는 회고의 감정이나 이런저런 견문에 관심을 표명하기도 하였다. 간결하면서도 풍부한 서정을 담은 표현의 아름다움은 유기문학의 백미라 할 수 있다.<sup>117)</sup> 다음의 학습지를 통해 이러한 표현들을 찾아보고, 자신에게 맞는 문체로 직접 한편의 여행일기를 써보게 한다.

<예1>

물수제비, 지팡이, 그리고 편지

116) 이경수 외 편역, 앞의 책, 257~258쪽.

117) 박제가 지음, 안대회 옮김, 앞의 책, 213쪽.

○학년 ○반 이름 :

1. 아래의 글을 읽어봅시다.

1770년 9월 13일

석창에서 새벽밥을 먹고 떠났다.

(전략) 어천령을 넘어 해질녘에 향산천을 건넜다. 띠풀과 갈대가 아스라이 펼쳐져 사각사각 마른 소리를 낸다. 냇가 모랫벌 끝에는 자갈이 쌓여 있다. 걸어가면 돌들이 달각달각 서로 갈린다. 알팍한 돌조각을 골라서 몸을 횡으로 하여 시내 가운데를 향하여 던졌다. 돌은 물겹질을 벗기면서 세 번도 뛰고 네 번도 뛰어 나간다. 느린 놈은 두꺼비처럼 물 속에 빠지고, 가벼운 놈은 제비처럼 물을 차며 나간다. 어떤 놈은 우연히 수면에 참대를 그리면서 마디마디 이어가고, 또 어떤 놈은 동전을 차곡차곡 쌓으며 뒤를 좇는다. 인(印)을 찍어 뽕족한 모양이 빨도 같고, 충충한 물결이 탐도 같다. 이것은 아이들의 놀이인데 ‘물수제비뜨기’라고 부른다. (중략) 보현사에는 패엽(貝葉)으로 만든 둥근 부처가 있다. 불인 종이는 이미 다 벗겨졌다. 그 줄기는 마른 원추리 등뼈 같고 그 자루는 땡은 머리 같다. 그것은 서산대사가 소지했던 물건이다. 또 머리에 금불상 둘을 새긴 지팡이가 있는데 역시 서산대사가 집던 물건이다. 서산대사는 사람을 만나면 늘 지팡이를 쬐고 절을 하였는데 사람들은 자기에게 절하는 줄로 알았다. 실은 부처에게 절한 것이니 그의 도도한 자세가 이와 같았다. (중략) 관음전에서 잤다. 베개 밑에서 치는 경쇠소리에 문득 잠이 깨어 벗에게 부치는 편지를 썼다. ‘외로운 등불 쓸쓸한데 벌레 소리 들려온다. 샘물은 졸졸 떨어지고, 나무는 썩썩 운다. 지는 달빛은 뜰에 가득한데 누각 혼자 쓸쓸히 서 있다. 바로 이때 홀로 앉아 고독한 상념에 젖는다. 밤에선 온갖 새들 잠이 들어 제각기 나무에 붙어 있다. 서릿발이 날아 등지를 엄습하여 깃털이 응당 차리랴. 새들도 오히려 그러하니 사람은 오죽하랴!’<sup>118)</sup>

• 어휘 풀이

범패 : 절에서 재를 올릴 때 쓰이는 불교 의식의 음악

2. 이 글을 읽고 묘사와 비유로 된 부분을 찾아보자. 그리고 문체의 특징을 정리하여 보자.

3. 수학여행이나 소풍 등의 여행지에서 본 광경을 세밀한 관찰을 하여, 필자의 수사법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한 편의 여행일기를 써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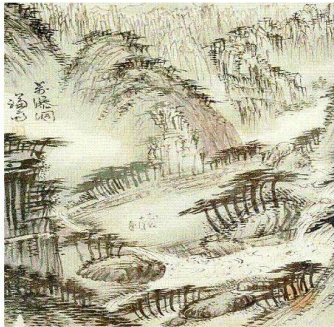
<예1>은 박제가가 20세 때(1770년)에 지은 것이다. 이글에서는 세밀한 묘사와 적절한 비유가 눈에 띈다. 이러한 묘사와 비유는 뛰어난 관찰력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이글의 표현 방법과 문체적 특징을 찾아보게 하고 같은 방법으로 한 편의 여행일기를 써보게 한다.

118) 박제가 지음, 안대회 옮김, 앞의 책, 176~181쪽.

다음에 제시된 글 역시 박제가의 「묘향산소기」의 일부이다. 이 활동에서는 작가가 보고 관찰한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학생들에게 자신만의 개성적인 방법으로 글을 작성해 보도록 한다.

<예2>

### 만폭동의 근원을 찾아



겸재 정선 - 만폭동

○학년 ○반 이름 :

1. 아래의 글을 읽어봅시다.

1770년 9월 15일

(전략) 많고 많은 나무가 골짜기를 끼고 한 길로 늘어서 있다. 먼 하늘은 폭포 위에 걸려 있어 목만 늘이면 닿을 성싶다.

나는 폭포를 거슬러 올라갔다. 바위는 편편하고 넓었다. 어지러이 물이 흘러 발을 붙이기가 어려웠다. 남들은 아래서 내가 떨어질까 걱정하면서도 말리지 못하고 바라만 볼 뿐 올라오지 못하였다. 한 걸음 더 올라 머리를 돌려보니 나를 부르는 손과 입을 또렷이 셀 수 있다. 다섯 걸음 올라 머리를 돌려보니 그들의 눈썹이 아직도 나를 향해 치켜져 있다. 열 걸음 뒤에 돌아보니 갓 테두리가 상투처럼 가물거릴 뿐이다. 100보쯤 더 올라가서 돌아보니 저 멀리 골짜기 입구의 사람들은 폭포 밑에 와 앉은 듯이 보이고, 폭포 밑의 사람들은 이미 보이지 않았다.

거친 숲에는 길이 끊기고 멀리 해도 낮아졌다. 문득 오싹해지며 겁이 나서 나도 모르게 걸음이 바빠졌다. 밀려갔던 나뭇가지는 얼굴을 때리고 영켰던 가지는 옷을 찢는다. 쌓인 낙엽 속으로 샘물이 스며 무릎 아래는 진창이다. 그러더니 진창이 끝나고 폭포의 근원이 나타났다. 맑은 샘이 잔잔하여 소리 없이 돌부리를 감아 흐른다. 북쪽으로 큰 골짜기가 내려다보이는데 웅하고도 으스스하다. 붉은 단풍이 골짜기를 가득 채우고 있을 뿐 아무것도 없다. 그 너머에 향로상봉이 지척에 솟아 바로 건너올 듯하다. 허공에 길을 만들어 다리 하나 놓으면 건너편만 선계와 인간세상이 서로 갈린 듯 아득히 바라만 볼 뿐 갈 수는 없다. 결국 서글픔을 머금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119) (후략)

2. 글을 읽고 지은이가 서글픔을 머금고 돌아온 이유를 글 속에서 찾아보자.

3. 지은이가 관찰한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문체의 특징을 찾아보고 자신의 개성적인 방식으로 여행일기를 완성해 보자.

119) 박제가 지음, 안대회 옮김, 앞의 책, 187~188쪽.

<예2>는 만폭동을 답사하고 기록한 것이다. 폭포의 근원을 찾으려 모험하는 작자의 개성이 잘 드러나 있다. 또한 손과 입에서 눈썹 언저리로 다시 갖의 테두리로 축소되는 묘사는 거리감을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향로 상봉에 대한 묘사가 걸작이다. 공중의 길은 선계의 길이었지 인간의 길이 아니었는지도 모른다는 작자의 표현은 장엄한 경치 앞에서 할 말을 잃은 인간의 마음을 잘 나타내고 있다. 교사는 이 활동을 통해 학생들에게 자신이 보고 느낀 것을 세밀한 묘사와 적절한 비유를 사용하여 표현하게 하고, 그러한 글쓰기가 대상의 단순한 상태나 현상만을 기록하는 글과 전달의 측면에서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인지시켜 준다.

다음 글은 김득신(金得臣)의 「금강산록」에서 발췌한 것이다.<sup>120)</sup> 이 글은 비록 며칠간의 짧은 여행 기록이지만 은선대, 마하연, 혈성루의 절경을 다양한 비유를 통하여 톡톡히 그려내었다.

<예3>

**혈성루에서 바라본 금강산**

○학년 ○반 이름 :

1. 아래의 글을 읽어봅시다.

8월 16일 (전략)

여러 봉우리의 기기괴괴한 모습을 좋아하여 혈성루에서 며칠을 머물렀다. 눈에 보이는 그 봉우리들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둥근 것도 있고 뾰족한 것도 있으며 날아가는 듯한 것도 있고 춤추는 듯한 것도 있다. 창이 선 듯한 것도 있고 사람이 선 듯한 것도 있으며 용이 서린 듯한 것도 있고 호랑이가 걸터앉은 듯한 것도 있다. 흠어졌다가 합쳐진 것도 있고 가로 세로로 교차된 것도 있으며,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것도 있다. 뾰족하고 오목한 것도 있고 동서남북으로 화살촉을 서로 겹쳐 놓은 것과 같은 것도 있다. 이 산의 봉우리가 사람의 눈에 가장 많이 보이는 곳은 오직 혈성루 뿐이다. 이 때문에 이 산의 진면목을 보고자 하는 사람은 다른 곳을 먼저 하지 않고 반드시 이곳을 우선으로 한다. 대개 여러 봉우리의 모습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오는 것이다. (중략) 온세상 사람들은 빼어난 곳을 일컬을 때 반

120) 김득신(金得臣, 1604~1684)은 1665년 8월에 금강산을 유람하고 「금강산록(金剛山錄)」이란 기행문을 남겼다. - 이경수 외 편역, 앞의 책, 223쪽.

드시 만폭동이 제일이라고 하니 나는 배를 잡고 웃지 않을 수 없었다. 이계현(李啓賢)이 나에게 말하기를

“금강산을 보고자 한다면 곧바로 정양사에 가서 혈성루에 올라 사흘을 머무르시오. 높이 오르는 수고로움이 없이 여러 봉우리를 다 볼 수 있소”

라고 하였으니 그 말이 과연 합당하다. 이계현은 금강산을 드나든 것이 이미 40여년이 된다.(후략)<sup>121)</sup>

2. 글을 읽고 이 글에 쓰인 수사법을 찾아보자. 그리고 이와 같은 표현 방식을 사용하여 학교나 집에서 보이는 경치를 표현해 보자.

3. 문체의 유형과 특징을 조사하고 적절한 유형의 문체를 택하여 최근의 여행 경험을 한 편의 글로 작성해 보자.

<예3>은 작가의 뛰어난 묘사가 돋보이는 글이다. 여행일기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묘사하기 위해 수식이 많아지고 문체가 화려해 진다. 이것은 다른 유형의 일기와 비교해 보아도 그 차이점을 알 수가 있다.

### (3) 여행일기 쓰기의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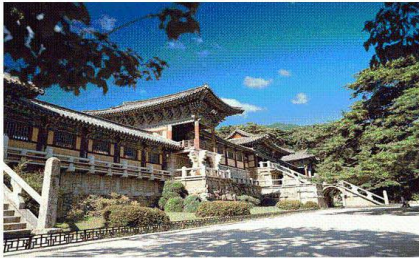
지금까지 유산기를 살펴본 결과 유산기의 구성은 일반적으로 ‘떠나기 전의 마음과 준비 ⇨ 여행의 과정(풍광, 사적, 인정, 세태 등) ⇨ 여행 후의 느낌, 총평’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는 이를 토대로 학생들이 쓸 수 있는 바람직한 여행일기의 예를 만들어 보고자 한다. 아울러 학생들에게 직접 여행일기를 쓰는 활동을 하게 하여 여행을 통해 보고 느낀 것을 기록하는 것이 어떤 교육적 의의가 있는지 스스로 깨닫게 하는 활동이다. 아래의 학습지는 여름방학에 경주로 가족여행을 떠나는 고등학생의 일기를 상상하여 쓴 것이다.

<예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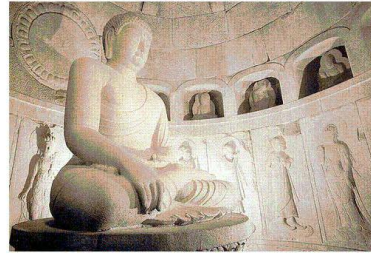
가족 여행 - 경주를 다녀와서

○학년 ○반 이름 :

121) 이경수 외 편역, 앞의 책, 227~228쪽.



경주 불국사



경주 석굴암

2004년 8월 14일 토요일 날씨 맑음

여름방학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오늘 아침 부모님과 동생 선이와 경주로 여행을 가지기로 하였다. 경주에는 초등학교 때에 한 번 갔다 온 적이 있었다. 그렇지만 그때는 경주에 대한 배경지식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조금은 지루하게 생각되었던 여행이었다. 이번 여름방학 가족 여행지를 선택할 때는 내 희망사항을 우선으로 하여 선택하였다. 그것은 이제 고3으로 올라가는 나에게 고교시절 마지막 여행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나는 천년고도 경주에 대해 문화, 역사적 배경에 대해 알아보고 직접 체험하여 사진과 글로 남겨 고교시절의 소중한 추억으로 남기고 싶었다. 부모님께서 선이와 내게 여행 계획과 일정을 정하라고 하셨다. 선이와 나는 우선 불국사와 석굴암, 첨성대, 경주국립박물관, 안압지 등을 가지기로 하고 시간이 되면 경주 시내를 구경하기로 하였다. 문화재와 박물관 관람을 통해서도 역사와 문화체험을 하고 시내 관광을 통해서도 현재 경주의 모습과 사람들의 생활모습을 살피는 것도 좋은 체험이 될 것 같아서였다. 이제 여행 준비를 마치고 출발하기에 앞서 우리가 가보고자 하는 곳에 대해 인터넷에서 자료를 조사하여 읽어보았다. 국립경주 박물관 사이트(<http://gyeongju.museum.go.kr/>)에는 경주의 문화유적지와 관광지에 관한 정보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

아무것도 모르고 갔었던 초등학교 때의 여행보다 사전에 직접 자료를 조사하고 읽어보고 가는 이번 여행은 좀 더 뜻 깊은 여행이 되고 의미 있는 체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진도 많이 찍고, 여행하면서 느낀 점도 기록하여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여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경주에 도착하여 처음으로 간 곳은 불국사였다. 불국사는 1995년 세계문화유산목록에 등록되었고 경내에는 수많은 문화재가 있다. 국보급 문화재만도 다보탑, 석가탑, 연화교, 칠보교, 청운교, 백운교, 금동아미타여래좌상 등이 있다. 불국사는 751년(경덕왕10)에 김대성(金大城)의 발원으로 창건했다고도 하고, 법흥왕의 어머니 영제부인과 기윤부인이 창건하고 비구니가 되었다고도 전해진다. 이 석조물들은 모두 화강암으로 만들어졌으며 그 형태나 축조 기법 등 당시의 토목 건축적 기술의 정수를 다한 화려하고 웅장하며 아름다움이 망라된 걸작으로 평가된다. (생략)

1. 위 글을 읽고 여행의 행선지와 여행을 떠난 사람들이 누구인지 말해 보자.

2. 지은이는 여행을 떠나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하고 갔는지 찾아보자. 그리고 그러한 준비가 여행에 어떠한 도움이 되었는지 생각해 보자.
3. 일기에 첨부된 사진이 주는 효과에 대해 말해 보자. 그리고 자신의 가족여행 경험을 일기형식으로 써 보자. 일기 안에 사진이나 입장권, 안내문을 첨부해도 좋을 것이다.
4. 여행지에서 본 풍광을 친구에게 자세하게 말하는 것처럼 묘사하여 보자.
5. 사진으로 찍은 경치와 자신이 묘사한 글을 비교하면서 어떻게 느낌이 다른지 이야기해 보자.
6. 여행에서 만난 특별한 사람이나 인상적인 경험을 정리해 보자.
7. 여행 전의 마음과 준비 ⇨ 여행의 과정(풍광, 사적, 인정, 세태 등) ⇨ 여행 후의 느낌의 순서에 따라 자신의 여행일기를 완성해 보자.
8. 여행전과 달라진 나의 모습에 대해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자.

위와 같은 여행일기를 직접 학생들에게 기록하게 해 보자. 예를 들어 수학 여행이나 가족여행의 체험을 일정에 따라 사진을 첨부하고 그에 따른 사건과 상황을 기록하고 자신의 감상이나 느낌을 기록하게 한다면 옛 선인들의 여행일기처럼 자신만의 여행기록이 생길 것이다. 그것은 출판되어 나오는 여행안내서나 여행문과는 또 다른 느낌을 학생들에게 줄 수 있을 것이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자신만의 여행기라는 특별한 기분을 갖게 되고, 그러한 활동을 통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글로 표현하는 일은 동시에 문학교육도 될 수 있는 것이다. 사진이 없던 옛날에는 대상의 사실적인 묘사를 위해 여러 비유를 들어 자세하게 모습을 설명한다면 요즘은 한 장의 사진으로 설명을 대신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진만 한 장 붙여놓은 것을 여행일기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여행지에서 찍은 멋진 사진 옆에 자신만의 느낌, 생각을

기록한 것이 있을 때 제대로 된 여행일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행일기 교육 방안에서는 유산기를 중심으로 작가들의 산수 자연의 미의식, 문화체험, 섬세한 정경묘사, 여행 중에 겪은 인물과 세태, 여행 후 감상 기술 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학습지를 제시하여 자신의 여행 경험을 직접 일기쓰기에 적용하게 하였다. 옛날보다 여행의 기회가 많아지긴 하였지만, 학생들은 학교수업과 입시 공부로 인해 자주 여행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방학이나 주말, 학교에서의 특별한 단체여행 등이 아니면 여행을 떠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청소년기에 접하는 새로운 문물이나 문화 체험 등을 자신의 시각으로 기록하여 두는 것은 인식의 지평을 넓혀주는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 3. 유배일기를 활용한 교육 방안

유배일기를 일기교육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유배는 개인에게 있어 통렬한 고통의 체험이면서 새로운 세계에 대한 경험이라는 양면성을 지닌다. 또한 엄격히 제한된 시공간적 제약을 받는다는 점에서 유람이나 방랑, 부임지로 나아가는 여정과 다르다. 유배는 여정이 촉박하고 죄인이라는 신분이기 때문에 대상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특징을 갖는다.<sup>122)</sup> 요즘은 유배라는 형벌이 없지만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서도 유배와 같은 좌절을 겪게 되는 일은 많이 있다. 현대는 과학의 발달로 물질적 풍요를 가져왔지만, 부작용도 그 못지않게 발생한다. 일례로 매일 일어나는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장애를 가지게 되는 일, 사업 실패로 파산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급증하는 이혼율이 말해

---

122) 허준구, 「담정 김려의 시세계」, 성균관대 박사논문, 2001, 28쪽.

주듯 부모의 불화로 가족이 헤어져 살게 되는 일 등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러한 심각한 시련이나 좌절 외에도 청소년기의 학생들에게는 성적비관이나 외모비관, 진로계획 등도 심각한 고민이나 좌절이 될 수가 있다. 과연 이러한 시련과 좌절이 내게 일어났을 때 십대의 청소년들이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조선시대의 유배란 현대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갑자기 생길 수 있는 좌절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유배일기를 통해 옛 선인들이 자신에게 닥친 불행과 고통을 어떻게 견뎌내고 있는지 알아봄으로써 오늘의 청소년들이 자신의 고통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는 방식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좌절의 원인은 다르지만, 고통스러운 현실을 이겨나가는 것이 자신의 의지밖에 없다고 하였을 때, 자신의 시련을 어떻게 견뎌내고 있는지 유배일기 속에서 찾아보자.

### 1) 유배의 기록을 통한 시련·좌절의 극복 의지 구현

조선의 형벌제도는 『대명률(大明律)』에 의거했는데 범죄자에 대한 형벌은 사형(死刑), 유형(流刑), 도형(徒刑), 장형(杖刑), 태형(笞刑)으로 구분하여 이를 행형의 근본으로 삼았으며, 이것을 오형(五刑)제도라 하였다.

유형(流刑)은 곧 유배(流配)의 형을 말하는데 이는 죄를 지은 사람을 섬이나 원지(遠地)로 귀양 보내는 형벌이다. 이는 예로부터 중요한 형벌의 하나로써 시행하였는데, 기원은 귀향(歸鄉)으로써, 죄를 지어 관직에 나갈 수 없는 자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데서 비롯되었다. 유배의 형벌은 주로 정부 전복의 모반사건 관련자, 반란 혹은 음모사건에 관계된 자, 정부의 정책을 규탄하는 상소를 올린 자, 정적(政敵)을 숙청하고자 할 때 주로 사용된 형사상 혹은 민사상 처벌의 방법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보다 중앙의 권력다

틈에서 패배하여 마침내 국왕마저 꺼리게 되고 배척하게 되어 유배되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 때 유배의 형벌은 일정한 장소를 정하여 거주지를 엄격히 제한했는데, 이 경우는 특히 왕족 또는 중신 등 주로 정치범들에게 많이 적용되었던 것으로 그 지역 부사(府使)나 목사(牧使)의 철저한 감시 속에서 개인적인 활동과 주민들과의 접촉이 엄격히 금지되었다. 물론 유배자를 일정 장소를 정해서 보내되 유배지의 일정한 지역 내에서는 어디를 가나 행동의 자유가 보장되는 경우도 있어서 가족과 하인을 거느리고 주택을 매입하여 생활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였으나 대부분의 유형은 절해고도(絶海孤島)에 유배되는 고독한 형벌이었다. 유배지는 바닷가나 첩첩산중이어서 외부와 거의 두절된 궁벽지가 대부분이었고, 주민 접촉 또한 한정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 따라서 생필품을 조달하기가 쉽지 않았고, 자신의 온갖 울분을 귀기울여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유배지는 고통과 갈등이 오로지 유배당한 자의 몫으로 돌아오는 고독한 싸움터였을 뿐이다.<sup>123)</sup>

유배일기는 단순한 여행의 기록이 아니라 국가에 죄를 지어 먼 지방으로 유배를 가면서 겪은 체험이나 견문, 자신의 심경을 기록한 것으로 자유를 속박당하는 과정에서 겪은 특별한 정회나 애환을 기록하고 있다. 유배일기에는 인간사의 갈등요인과 사건 혹은 타향의 특이한 풍습에 대한 호기심이 나타난다. 유배일기 작품으로는 『적소일기(謫所日記)』<sup>124)</sup> 『남해문견록(南海聞見錄)』<sup>125)</sup> 『북관노정록(北關路程錄)』<sup>126)</sup> 『남정일기(南征日記)』<sup>127)</sup>

123) 신규수, 『유배, 유배지, 얽힌 바람2』, 이유, 2000, 14~18쪽.

124) 『적소일기(謫所日記)』: 김약행(金若行, 1718~1788)이 진도(珍島) 금갑진(金甲鎭)에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겪은 여러 사건과 일들을 기록한 국문일기이다. 그러나 매일매일 기록한 일기의 형태가 아니라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뒤 지난 일을 회상하면서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작품은 서술의 구체성과 솔직성을 통해 체면이나 겉치레와 같은 허위의식을 내던진 인간본연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 이승복, 앞의 글, 참고.

125) 『남해문견록(南海聞見錄)』: 유의양(柳義養)이 1771년에 경상도 남해로 귀양을 가서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국문일기 작품이다. 이 작품의 내용은 지은이가 귀양길에 대한 노정을 생략한 채 노량 나루에서부터 시작하여 남해에 도착한 뒤 그곳에 머물면서 섬의 지세, 산물, 풍속, 위생, 언어, 미신, 교

『북천일기(北遷日記)』 128) 『공산일기(公山日記)』 129) 『감담일기(坎舊日記)』 130) 등이 있다.

여기서는 『감담일기』를 주 자료로 하여, 자신의 힘든 상황을 글로 기록하면서 그 상황을 직시하고 극복하는 선인들의 태도에서 학생들이 현실문제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감담일기』는 김려(金鑣, 1766~1821)가 1797년 강이천(姜彝天)의 비어옥(飛語獄)에 연관되어 커다란 당파싸움의 빌미가 될지 모를 문제를 정조가 문체문제로 전이시키고 축소하여 유배를 명하여 함경도 부령으로 유배를 떠나며 겪은 일들과 심경을 기록한 일기이다. 정조의 이러한 의도 아래 내려진 유배결정은 김려에게 용납되기 어려웠을 것이다.<sup>131)</sup> 『감담일기』를 대상으로 한 것은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좌절하였을 때의 모습이, 현대 모든 청소년들이 대부분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좌절하는 경우와 통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

유 등 다방면에 걸쳐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자연스럽게 서술하고 있다. - 최강현 역주, 『후송 유의양 유배기 남해문견록』, 신성출판사, 1999.

126) 『북관노정록(北關路程錄)』: 유의양이 1773년에 함경도 중성으로 귀양을 가서 보고 들은 일을 기록한 국문일기 작품이다. 그 지방에서 보고 겪은 풍속과 문물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감상을 기록하였다. - 정하영, 앞의 글, 37쪽.

127) 『남정일기(南征日記)』: 박창수(朴昌壽)가 1775년 흑산도로 귀양 가는 자기 조부 박성원(朴盛源)을 배행해 갔다가 그 이듬해 돌아올 때까지의 일들을 기록한 것이다. - 정하영, 앞의 글, 37쪽.

128) 『북천일기(北遷日記)』: 윤양래(尹陽來, 1673~1751)가 갑산(甲山)에 4년간 귀양 가게 되었을 때, 유배지인 갑산으로 가는 도중에 기록한 일기이다. 『북천일기』는 유배지에서 기록한 것이 아니고 적소에 도착한 날의 일기로 끝이 나 있는 일기이다. 일기는 일자, 기상, 사건, 노정, 감회 등 일기문학의 요건을 갖추고 있고 기사가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어 일기문학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또한 관북지방 백성들의 고단한 삶을 보고 가슴 아파하고, 자신이 거처할 집이 귀신의 굴속같이 어두운 것을 보면서도 죄인으로서 나라의 조치를 달게 받겠다는 모습과, 그가 거처할 곳을 손질하면서 민망해하고 안타까워하는 백성들의 곡진한 정 등이 표현되었다. - 박을수, 앞의 글, 참고.

129) 조동길 저, 『공산일기(公山日記) 연구』, 국학자료원, 2000, 참고.

130) 감담(坎窟)은 『易·習坎』의 “習坎, 入于坎窟, 凶”에서 나온 말로, 험경(險境)을 비유한다. - 안대회 역음, 『조선후기 소품문의 실체』, 태학사, 2003(강혜선, 「김려의 패관소품문 연구」), 362쪽.

131) 허준구, 앞의 논문, 29쪽.

## 2) 유배일기 교육 방안 - 『감담일기(坎窩日記)』 중심으로

『감담일기』<sup>132)</sup>는 김려가 1797년 강이천 사건의 연루자로서 취조를 받고 부령으로 유배되어 가는 과정을 쓴 일기이다. 김려는 1797년 강이천의 비어옥에 연루되자 혐의를 부인하고, 강이천도 이 사건과 김려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이라 하여 유배형을 가게 된다.

부당한 유배길에 오른 김려로서는 자신의 내면세계를 추스르는 일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다. 김려는 내면세계의 갈등을 역사적 인물에 대한 반추나 내적 반성을 통해 해결하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sup>133)</sup>

『감담일기』는 김려가 함경도 부령으로 유배되어 가면서 마주 친 이질적 풍물과 체험을 기록하였을 뿐 아니라 심리적 고통을 시와 산문으로 기록한 것이다. 제목의 ‘감담(坎窩)’이 상징하듯이 유배를 가는 참담한 심정과 노정에서 겪게 되는 온갖 고초들이 매우 사실적으로 토로되어 있으면서도, 거기에 그치지 않고 노정에서 보고 듣는 북방의 인물세태를 흥미롭게 묘사하고 있다.<sup>134)</sup>

『감담일기』의 체제는 날짜별로 기록되어 있는데, 처음에 날씨를 적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 통과하는 고을을 적었다. 그런 다음 그날의 견문과 감회를 부연서술하고, 여정을 토로하는 시를 부쳤다. 지나는 곳의 지리적 특징과 내력, 인심, 관리, 그 고을에 얽힌 고사, 명승지, 자기의 형편 등을 자유롭게 서술하였지만, 주정적(主情的)인 심회는 주로 시에 부치고 산문에서는 피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sup>135)</sup>

---

132) 김려 지음, 오희복 역, 조선고전문학선집 72 『김려작품집』, 문예출판사, 1990년, 34~35쪽. 이 책은 북한에서 출판된 것으로 여기에 실린 『감담일기』를 우리의 문법에 맞게 수정하여 인용하였다. 이후의 인용한 내용도 같은 방식으로 참고하였다.

133) 허준구, 앞의 논문, 30쪽.

134) 강혜선, 앞의 글, 362쪽.

유배여정의 어려움은 김려에게 자연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주었고, 아울러 하층민의 세계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삶에 대한 반성과 인간내면의 본질을 탐색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sup>136)</sup>

『감담일기』는 11월 12일로부터 시작하여 유배되어 가는 도중에 새로 변경된 유배지 부령에 도착하여 이듬해(1798년) 1월 28일 데리고 간 종 위서방을 어렵게 서울 집으로 보내는 경위까지 기술하며 꿈꾼 것을 노래한 시 2수를 첨부하면 끝을 맺고 있다. 김려는 이 일기에서 그날그날의 일들을 되도록 예술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여기서는 『감담일기』에서 유배가 결정되었을 때의 작가의 좌절과 심경, 유배길을 가는 도중에 만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 그리고 작가가 자신의 고통과 다른 사람의 고통을 바라보는 시선 등을 교육 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그리하여 학생들이 자기의 상황을 극복하고 내면적으로 성숙한 글쓰기를 할 수 있게 지도하고자 한다.

## (1) 내용의 특징

### ① 유배의 좌절 예시

다음에 제시된 글은 작가가 체포되어 형조에 갇히게 되는 상황을 기록한 것이다. 작가는 자신의 마음에 부끄러운 것이 없다고 생각하여 나졸이 체포하러 왔어도 전혀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다. 그렇지만 역시 형조에 갇힌 상황이니만큼 식욕이 없게 되어 굶고 있는 모습에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근심을 엿볼 수가 있다. 아래의 활동을 통해 작가의 상황과 심정을 이해하고 자신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였을지 생각해 보자.

---

135) 강혜선, 앞의 글, 362~363쪽.

136) 허준구, 앞의 논문, 34쪽.

<예1>

### 억울하게 형조에 갇히다

○학년 ○반 이름 :

1. 아래의 글을 읽어봅시다.

정사년(1797년) 11월 12일

정축일에 나는 강이천이 거짓말을 퍼뜨린 사건에 연루자로 체포되어 형조에 구류되었다. 이날 나는 동생 서원과 화로를 끼고 마주앉아 책을 보고 있었다. 그런데 붉은 옷깃의 단령을 입은 어떤 한 나졸이 와서 자기의 이름은 서봉명이라고 말하고 병조좌랑 여준명의 구두신문을 전하면서 임금의 명령이 내렸으니 나더러 외병조에 들어와 지시를 받으라고 하였다.

그때 나는 김신국이 고변한 사실의 전과정과 강이천이 잡혀간 소식을 이미 자세히 들었던 터라 마음속으로는 무슨 곡절이 있다고 여겼으나 내 한 몸을 돌이켜본다면 당초에 털끝만금도 간찰한 일이 없었으므로 조금도 두려운 생각은 나지 않았다.

나귀는 마침 판곳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으므로 즉시 걸어서 나졸을 따라갔다. 수진동 거리를 구불구불 거쳐 곧바로 육조 앞거리에 이르니 나졸은 나를 이끌고 형조의 아문 안 여염 집으로 들어갔다.

때는 벌써 저녁 무렵이라 위서방이 밥을 가지고 들어왔다. 먼저 술만 몇 잔 마시고 앉아 있다가 밥을 먹을 생각이 없어 손가락을 들지 않았다. 형조 하인들이 나타나서 위서방을 욕지거리로 마구 쫓아내어 방안에 들어와 누웠다. 형조 하인 둘이 방에서 코를 골기 시작하는데 그들은 나를 감시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날 형조에 들어와 번을 서는 낭청은 정면유였다.<sup>137)</sup>

• 어휘 풀이

형조 : 조선 시대 육조의 하나로 법률, 소송, 형옥 등에 관한 일을 맡음

구류 : 자유형의 한 가지로 유치장에 가두어 두는 형벌

간찰 : 참견하다 / 아문 : 관청의 문

2. 글을 읽고 필자의 상황을 이해하고 작가의 마음을 추측하여 정리해 보자.

3. 상황을 받아들이는 작가의 태도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보자.

다음에 제시된 글은 김려가 유배형을 언도받고 떠나는 모습과 심정을 기록한 것이다. 김려는 연로하신 부모님과 병든 아내, 막 태어난 자식의 얼굴도 못 보고 기약 없는 길을 떠나게 되는 비통한 심정을 절실하게 기록하고 있다. 예고 없이 닥친 불행에 어찌할 줄 몰라 하는 모습에서 그의 인간적인

137) 김려 저, 앞의 책, 327쪽.

모습이 느껴진다. 다음 학습지를 통해 학생들에게 자신의 시련과 좌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생각해 보는 활동을 하게 하자.

<예2>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

○학년 ○반 이름 :

1. 아래의 글을 읽어봅시다.

1797년 11월 14일  
 (전략) 사나운 바람은 세차게 불고 지는 달은 희미하였다. 기일이 촉박하여 어서 떠나기를 재촉하는데, 차림새는 너무도 초라하였다. 행장은 이불 한 채, 반 팔 덧저고리 하나, 두루마기 하나, 삼경과 사서 일곱 권, 운서 한 권, 동전 6백 잎, 요강 하나와 비옷이 전부였다.  
 돌이켜 생각해 보던 평생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란 해 본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런 변을 당하고 나니 정신이 얼떨떨해서 어찌할 바를 알 수가 없었다. 위로는 임종에 가까운 늙으신 부모님이 계시고 아래로는 방금 혼사를 치러야 할 여러 동생들이 있는데 이제 하늘과 땅의 한 끝에 홀로 떨어져서 해매게 되었다. 자식을 낳았으나 얼굴조차 보지 못하고 병든 아내를 눕혀 놓은 채 소식조차 전할 수 없게 되었다. 용담에서 경원까지의 거리가 3천여리라는 것을 생각하니 가슴은 터질 것만 같고 눈물은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아득한 저 푸른 하늘이여, 어찌하여 나에게 이다지도 모질단 말이나! (후략)<sup>138)</sup>

- 어휘 풀이  
 행장 : 여행할 때 쓰이는 물건 / 임종 : 죽음에 다다름

2. 이 글을 읽고 필자에게 닮은 어려움을 찾아보자. 그리고 필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위로의 글을 써 보자.

3. 그동안 자신이 경험했던 일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일을 생각해 보자. 그리고 어떻게 극복해 내었는지 정리해 보자.

<예2>는 김려가 유배를 떠날 때의 심정을 기록한 글이다. 글 속에서 지은 이는 억울하게 유배를 떠나게 된 것과 남겨 두고 가는 가족에 대한 걱정을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다. 위의 학습지를 통해 이러한 작가의 심정을 추측해 보고, 작가를 위로하는 글을 써 보는 활동을 통해 자신이 좌절을 어떻게 받

138) 김려 저, 앞의 책, 330~331쪽.

아들여야 하는지 생각해 보게 한다. 이러한 활동은 예고 없이 시련이 닥쳤을 때를 상상해 보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간접경험의 폭을 넓혀 줄 수 있다.

## ② 주변 인물의 행동양상 예시

여기서는 힘든 상황에 빠진 사람에게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는 태도를 대비하여 자료로 제시하였다. 이 활동을 통해 역시 사람의 참모습은 위기 상황 속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글을 읽고 학생들에게 자신이라면 어떤 태도를 취하였을지 생각해 보게 한다.

<예1>

###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학년 ○반 이름 :

1. 아래의 글을 읽어보자.

14일 (전략)

한밤중에 양주에 이르렀다. 동헌에서 조금 쉬려는데 목사 오정원이 아전들을 시켜서 발도 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 할 수 없이 군뢰사령들이 번을 서는 방으로 옮겨 앉았더니 오정원은 또다시 급히 사령 수십 명을 뽑아 들여 우리를 몰아내었다. 경기감영의 비장이 조금 쉬다가 날이 밝은 다음에 떠나겠다고 간청하였으나 오정원은 허락하지 않고 곧 떠나라고 하였다. 그때는 아직 닭이 울기 전인데 날씨가 몹시 추웠다. 아전과 군교들은 위서방의 주머니에서 엽전 백잎을 빼앗아내기까지 하였다. 오정원은 한 이웃에 살면서 가까이 지내는 사이였는데 이처럼 어려운 때에 곤육을 보이며 우물에 빠뜨리고 돌까지 내려뜨리기를 다른 사람보다 곱절이나 더하였다. 아, 가슴 아픈 일이다.<sup>139)</sup>

• 어휘 풀이

군뢰 : 지난날 군대에서 죄인을 다루던 병졸

감영 : 조선 시대 각 도의 감사가 직무를 맡아 보던 관아

비장 : 조선 시대 무관 / 곤육 : 심한 모욕 또는 참기 힘든 일

### 굶주림과 추위를 이기며

2. 다음 글을 읽어 보자.

12월 초하루

(전략) 어두워서 어산골 주막집에 이르렀다. 주막집은 몹시 춥고 누추한데 눈 때문에 길이

막힌 나그네들로 가득차 있었다. 나그네들은 모두 처마 밑 한테에 나왔어 있었다. 지대가 높은데다가 땀찬 바람까지 세차게 불기 시작하니 조금도 몸 붙일 만한 곳이 없었다. 온몸에 눈을 뒤집어썼는지라 몸은 차츰 젖어드는데 사립문 밖에 서있으려니 당장에 얼어 죽을 것만 같아 도무지 서있을 수가 없었다.

단천 관가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기서 한 5리쯤 가면 마을이 있는데 대단히 좋다고 하였다. 그래서 눈을 무릅쓰고 밤길을 걸었다. 간신히 얼마쯤을 가니 하늘이 칠흙 같아 전혀 길을 알아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만 다리 밑으로 떨어졌는데 미끄러운 얼음에 굴러 하마터면 죽을 뻔하였다. 위서방은 눈구덩이에 빠졌는데 구덩이는 두어 길이나 되었다. 천만다행으로 말꼬리를 붙들고 겨우 솟아올라 눈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었다.

한밤중이 되어서야 어산골 마을의 한 늙은이의 집에 들어섰다. 늙은이는 성질이 모질어 우리를 거절하며 집에 들여놓지 않았다. 여러 번을 애걸해서야 겨우 방을 빌려서 잠깐 쉴 수가 있었다.

이 날 밤 눈은 더욱 기승을 부리며 내렸다. 일행 모두가 다 굶었고 옷가지들도 모두 땀해졌으나 빈속으로 잠깐 눈을 붙였다.<sup>140)</sup>

3. 위 글을 읽고 작가를 대하는 오정원과 어산골 노인의 행동에 대해 말해 보자.

4. 자신이 오정원과 어산골 마을의 노인이었다면 어떻게 행동하였는지 생각해 보자.

위의 글은 유배 길에 만난 친구의 매정함에 가슴 아파하고, 추위와 굶주림으로 고생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유배라는 것이 나라에 죄를 얻어 떠나는 형벌의 길이지만, 글 속에 표현된 모습은 처참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친구에게 오히려 타인보다 더 심하게 대하는 오정원과 캄캄한 밤에 눈까지 쌓여 잘 곳을 구하는 사람들을 거절하다가 마지못해 들이는 노인의 모습은 시대를 초월하여 다양한 인간의 군상을 느끼게 한다. 학생들에게 이 학습지를 활용하여 작가의 처지를 생각해 보게 하고, 또한 작품 속의 인물이 되어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지 상상해 보게 한다.

다음에 제시된 글은 앞의 <예1>과는 대비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 김려는 유배 길에서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 이유 없이 못 살게 구는 사람 등 천태만상의 인물들을 만나게

139) 김려 저, 앞의 책, 332쪽.

140) 김려 저, 앞의 책, 388~389쪽.

된다. 그러한 모습에서 학생들에게 과연 사람의 마음이란 진정 어떠한가 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도록 하자.

<예2>

### 남리곤의 호의

○학년 ○반 이름 :

#### 1. 다음 글을 읽어보자.

20일 (전략)

낮에 백원산에 이르렀다. 원산은 항간에서 원산점(圓山店) 또는 원산(蘊山)이라고 하는데 땅의 생김새가 마치 큰 자라 같다고 하여 그렇게 부른다고 한다. 원산은 부유한 큰 장사치들이 모여드는 곳이며 철령북쪽의 큰 도회지였다.

남천교 돌비석 앞거리에 자리 잡고 있는 남리곤의 집에 들어갔다. 그는 북방의 큰 부호였는데 홍주 한 병을 데우더니 구운 소 염통 한 접시와 따끈하게 데운 온면 한 그릇을 함께 내놓으며 먹으라고 하였다. 그리고는 나를 붙들며 떠나지 못하게 하였다. 그것은 내가 가다가 길거리에서 얼어 죽을까봐 걱정이 되어서였다. 그러나 관가 사람들이 투덜거리며 어서 떠나자고 재촉하는 바람에 나는 다만 집에 보낼 편지 한 장을 써서 남리곤에게 부탁하고는 그대로 떠났다.<sup>141)</sup>

- 어휘 풀이

온면 : 더운 장국에 만 국수

### 덕스럽고 진실한 희옥

#### 2. 아래의 글을 읽어보자.

22일 (전략)

이날 새벽에 신희옥과 함께 길을 떠났다. 낮에 송포진에서 쉬었는데, 송포진을 한편 전탄이라고도 하고 소리포라고도 하였다.

희옥은 옛과 더운 수제비국을 얻어가치고 와서 먹으라고 하였다. 대개 다른 관가 사람들은 귀양가는 사람에게 붙어서 입고 먹으면서 가는데마다 빼앗아내는 통에 길가의 여염집이 소란스러웠다. 오직 신희옥만은 제힘으로 살아가면서 마을 집에서 술 한 잔 거저 받아먹는 일이 없었다.

주인집의 설씨 노인도 마음씨가 너그럽고 무던하여 나를 몹시 곡진하게 대해 주었다. 이른 저녁에 고원군에 들어갔다. 고을원은 장현택인데 관가에서 음식을 내주어 먹도록 하고는 곧 떠나게 하였다. 작별을 앞두고 신희옥은 내 옷깃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겨우 “가시는 길에 몸조심 하세요” 라고 말하더니 제가 가지고 있던 돈 백인을 위서방의 주머니에 넣어주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길가의 주막에 들려 술이나 사드세요” 라고 하였다. 신희옥은 먼 길에 부디 편안하라고 천번만번 당부하고 나서 눈물을 흘리며 떠나갔다. 밤이 깊어 영흥부에 들어갔다.<sup>142)</sup>

- 어휘 풀이

여염집 : 서민의 살림 집

3. 위 글을 읽고 글 속에 드러난 인물들의 말과 태도 속에서 느껴지는 점을 정리해 보자.
4. 앞의 <예1>의 지문과 비교하여 읽어보고, 각 인물들의 태도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해 보자.

<예2>는 김려가 유배 길에서 만나게 된 원산의 부호 남리곤의 친절함과 호송군 청년 신희옥의 정스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 이들은 작가와 개인적 친분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지만 그의 불행에 같이 아파하며 앞길을 염려하고 있다. 이들의 모습에서 인정스러운 옛 사람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여기서는 학생들에게 곤경에 처한 인물을 대하는 태도를 <예1>과 비교하여 생각해 보게 하고 사람들의 행동을 비판적으로 정리해 보게 한다.

### ③ 시련의 서술 예시

여기서는 유배를 가는 고통스런 상황 속에서도 유배 길에서 만난 사람들의 불행과 고통에 가슴 아파하는 작가의 모습 속에서 타인의 고통을 볼 수 있는 작가의 삶의 태도를 학생들에게 생각해 볼 문제로 제시하고자 한다.

<예1>

#### 말을 댄어도 갇힌 몸

○학년 ○반 이름 :

1. 아래의 글을 읽어봅시다.

초10일

내가 유배길을 떠나 무릇 27일만에 부령에 이르렀다. 그 노정이 험난했던 것이나 눈바람이 사나웠던 일, 고을 관장들이 구박하던 일이며 관가 하인들이 행패를 부리던 사실은 차마 붓으로나 말로나 이루 다 읊길 수가 없다. 거기에서 본래부터 앓고 있던 토혈증이 이때에 더욱 심해져서 날마다 간 조각 같은 선지 핏덩어리를 서너덩 덩이 혹은 한두 덩이씩 토하곤 하였다. 억울한 생각이 북받치면 울화증이 부쩍 동하여 눈에는 아무 것도 보이지 않고 귀에는

141) 김려 저, 앞의 책, 347쪽.

142) 김려 저, 앞의 책, 353~354쪽.

아무 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런데 피가 끓어오를 때면 마치도 가슴 속에서 무슨 벌레가 날아 오르거나 날짐승이 날아다니는 것 같아 펄떡펄떡 가슴이 뛰고 부글부글 피가 끓어올라 병에서 물을 쏟아내는 소리가 나곤 하였다. 그것이 밀물처럼 치밀어 올라 목구멍까지 와서 멎으면 문득 비린내가 코를 찌르고 한 사발이나 되는 피를 토해놓고는 그 자리에 쓰러져 정신을 못차렸다.

또 원산에서 얼었던 네 손가락이 모두 헐어서 거의 떨어져 나갈 지경에 이르러 10여 일이 지나도록 쭈시고 아프더니 아직도 새살이 돌아나지 않았다. 온 몸이 군데군데 얼어 터져서 가끔 쓰러질 때면 신음 소리를 금할 수가 없었다.

길을 걸어오는 도중에는 혹 아름다운 산이나 시내도 있었고 기이한 바위나 돌들도 있었지만 관가 사람들에게 매인 몸이 되어 마음대로 구경할 수도 없었다. 비록 몸은 말 잔등에 올라 앉았지만 꼭 옥 안에 갇혀있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후략)

• 어휘 풀이

토혈증 : 피를 토하는 증상 / 선지 : 짐승을 잡아서 받은 피

2. 필자는 유배의 길을 떠나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 지은이의 고통을 이 글에서 찾아보자.
3. 지은이의 억울함을 표현한 곳을 찾아보자. 그리고 자신의 뜻과는 다르게 주위 사람들에 의해서 억울한 일을 당한 경험이 있다면 발표해 보자.

<예1>은 지은이가 유배를 떠나 거의 한 달여 동안 고생 고생하여 유배지인 부령에 도착한 것을 기록한 것이다. 그동안의 고생은 이루 말할 것도 없었고, 건강까지 최악의 상태가 되었다. 그러나 작가는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기록하면서도 결코 비관하거나 동정적인 태도는 아니다. 냉정할 만큼 객관적으로 자신의 상태를 기록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면서 말을 타고 가고 있지만, 옥 안에 갇힌 것과 마찬가지라는 표현을 통해 유배의 길을 떠난 고독한 심사를 표현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이 학습지를 통해 작가의 고통을 이해하게 하고, 자신들의 경험에 비추어 글을 쓰게 하는 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좌절이나 시련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한다.

<예2>

지독한 감시와 어이없는 모함

○학년 ○반 이름 :

1. 아래의 글을 읽어봅시다.

23일

이른 저녁에서야 유상양이 청나라 성새로부터 돌아왔다. 그러더니 나에게 대한 단속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장교들이 양옆에 밀려서고 나졸들이 앞뒤로 배치된 한 방에 단단히 가두고는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는 것까지도 못하게 했다. 심지어는 밥 한 끼 먹고 변소 출입 한 번 하는 것까지도 살살이 살피고 뒤를 따르며 엿보면서 마치 강도나 역적이 눈앞에 있는 듯이 다루었다.

다음날 새벽에 유상양이 동헌에 나와 앉아 나를 불러들였다. 나를 뜰아래에 세워놓고 대사간 이상황 등의 보고와 좌의정 채제공의 보고에 대한 임금의 비답내용과 감영과 병영들의 공문들을 알려주었다. 공문들을 펴보이지는 않고 대충대충 읽어주는데 나를 포함한 말들은 사간원의 보고보다 백배나 더 혹독하였다. 거기에는 ‘지극히 요망하고 몹시 흉악하여 백 번 죽여도 오히려 가볍다’는 말까지 있었다. 나는 그것을 들으며 너무도 어이없어 한바탕 웃고 말았다.

유상양은 날마다 감시를 더욱 엄하게 하였고, 김명세로 하여금 나의 동정을 일일이 엿보게 하였다. 명세는 이때부터 관가의 세력을 지고서 나를 깔보고 구박하며 손가락질을 해가면서 욕지거리를 하는가 하면 눈알을 굴리면서 호통을 치는 등 못하는 것이 없었다. 절도사 정판채가 비밀리에 유상양을 부추겼던 까닭에 유상양의 감시가 이처럼 더욱 심해졌던 것이다.

• 어휘 풀이

비답 : 신하의 상소에 대한 임금의 답

2. 이 글은 조선시대의 글이다. 이 글에서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는 단어를 찾아보자.
3. 자신이 지은이의 처지와 같이 간혀 있는 몸이라면 무엇이 가장 견디기 힘든 일인지 생각해 보자. 그리고 그 심정을 글로 표현해 보자.

<예2>는 유배지에서 겪는 심한 감시와 멸시에 대한 고초를 기록하고 있다. 비록 감옥 안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방안에서 출입도 자유롭지 못하고, 모든 생활을 감시 속에서 해야 한다는 것은 괴로운 일일 것이다. 더구나 개인적인 원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이 괴롭힘을 당하는 필자로서는 견디기 힘든 상황이었을 것이다. 학생들에게 이 학습지를 활용하여 이러한 작가의 처지를 생각해 보게 하고, 자신에게 대입시켜 그 심정을 표현해 보게 하자.

다음에 제시된 예문은 작가가 힘든 상황에서도 자신만의 고통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통에까지 시선을 돌려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이 활동을 통해 학생들에게 자신이 힘들다고 생각될 때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있기 보다 세상과 소통하며 그 시련을 극복하는 자세를 갖도록 안내해 준다.

<예3>

**날씨는 차가운데 집이 없으니**

○학년 ○반 이름 :

1. 아래의 글을 읽어봅시다.

24일 (전략)

이날 새벽에 정평을 떠나 학선정 밑의 냇가에서 쉬고 만세교를 건넜다. 만세교는 길이가 십리인데 그 모양이 거창하여 참말로 구경 할만 하였다. 다리 남쪽에는 인가들이 즐비하였는데 이달 스무날 불이 나서 천여채의 집들이 모두 불탔다고 한다. 그 불탄 자리를 바라보니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중략)

**함흥부에서 묵으며**

(전략)

듣건대 한 여름철 장마가 시작되면  
강물은 흘러흘러 천만굽이 에돈다네

그때면 돛단 배들 떼를 지어 오가는데  
그 배들 한결같이 다리 밑을 통한다네  
만세교 남쪽마을 모두 다 잘 사는 집  
강줄기 따라가며 즐기하게 늘어섰네

지난번 스무날에 불이 일어나  
백만재부 한꺼번에 재로 되었다네  
주춧돌만 여기저기 흔적을 드러내고  
기둥이며 문설주는 티끌로 변했구나

기와장만 나딩구는 텅 빈 땅위에  
머리 들어 바라보니 그을음만 가득해라  
날씨는 차가운데 집이 없으니  
헤지고 날 저물자 통곡소리 애처롭네

그 광경 바라보니 마음 측은해  
생각이 미치는 곳 애를 끓누나 (후략)<sup>143)</sup>

• 어휘 풀이

문설주 : 문의 양쪽에 세워 문짝을 끼워 닫게 한 기둥

2. 이 글을 읽고 글 속에 나타난 백성들의 처지를 생각해 보자.
3. 백성들의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는 작가의 마음이 잘 나타난 곳을 찾아보자.

다음에 제시한 글 역시 <예3>과 마찬가지로 작가가 유배 길에서 만난 한 마을의 처참한 상황을 기록한 것이다. 여기서는 작가가 시련의 상황에서도 자기의 아픔만 고통스러워하며 그 안에 빠져있기보다는 시선을 돌려 타인의 불행과 시련도 돌아볼 줄 아는 태도를 학생들에게 찾아보게 한다. 사회의 질곡을 바라보는 작가의 태도에서 학생들은 자기만을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 가족과 친구 더 나아가 사회와 국가를 생각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게 될 것이다.

『감담일기』는 앞부분에 그날 있었던 일을 산문으로 기록하고 뒷부분에는 인상적인 일들을 시로 읊어 기록하고 있다. <예4>는 그러한 시 중 하나로 작가가 유배 길에 들린 흉년 든 마을의 비참한 현실에 가슴 아파하는 것을 읊은 시이다.

<예4>

### 죽으로도 이어가기 어려웁거니

○학년 ○반 이름 :

1. 아래의 글을 읽어봅시다.

초엿새날 (전략)

명천부를 떠나며  
(중략)

황폐한 마을모습 쓸쓸하노니  
부질없는 탄식속에 눈물짓노라  
올해엔 밭곡식 흉년이 들어  
죽으로도 이어가기 어려웁거니

143) 김려 저, 앞의 책, 362~365쪽.

아이들이야 차마 말해 무엇하겠나  
늙은 부모 언제나 굶주리는데야  
정배군이 너희한테 무슨 원수냐  
죄에 걸려 또다시 여기 왔거니

앞으로 살아갈 길 막막하구나  
나중엔 거지신세 면치 못하리  
나는 지금 먼 길 떠난 나그네지만  
말 세우고 바라보며 애를 태우네 144)

• 어휘 풀이

정배군 : 배소를 정하여 귀양 가는 사람을 호송하는 군인

2. 위 글을 읽고 글 속에 드러난 상황에 대해 설명해 보자.

3. 시 속에서 작가의 심정이 표현된 부분을 찾아보고 사람들의 어려움에 대해 느껴지는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보자.

<예4>는 김려가 부령으로 유배 가는 도중에 들린 명천부에서 흉년이 들어 굶주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안타깝게 여긴 마음을 시로 표현한 것이다. 작가는 자신은 먼 길 떠나는 사람이지만 명천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흉년으로 인해 죽조차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장차 살아갈 길이 막막한 것을 보고 눈물짓고 있다. 이 활동을 통해 학생들에게 곤경에 처한 사람들의 입장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고 주변에서 그런 상황을 대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정리해 보게 하자.

#### ④ 시련과 좌절의 극복 예시

여기서는 억울하게 유배를 가게 된 작가가 자신의 시련과 좌절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그 수용태도를 찾아 자료로 활용하였다. 이 활동은 학생들에게 시련과 좌절이 닥쳤을 때 그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해결해 나갈지 한번 생각해 보게 함으로써 시련과 좌절의 극복의지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144) 김려 저, 앞의 책, 399~401쪽.

이다.

<예1>

### 저 하늘은 이 마음 알아주리

○학년 ○반 이름 :

#### 1. 아래의 글을 읽어봅시다.

25일 (전략)

옛날에 지친 김선생이 언제나 나를 타이르기를

“선비들의 풍기가 날이 감에 어지러워지니 장차 화가 미칠 걸세. 자네는 성품이 너무 대바르고 무엇이든지 참고 견디는 것이 부족하네. 만일 남의 잘못을 옛보다가 남몰래 일러 바쳐서 욕을 보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일을 꾸미게 되는 날에는 자네는 면할길이 없을걸세”

라고 하였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의 말이 딱 맞았다. (중략)

함관령을 넘으며

(중략)

스스로 제 잘못을 뉘우칠뿐

어찌하여 마음속에 시름지니라

지친선생 그 식견 명철하여라

일찍부터 나의 단점 헤아렸거니

소인들은 언제나 벼슬길에 날치지만

군자들은 항상 조용하기 힘쓴다네

집안 어른 가르침을 내가 받들새

하루에도 두세번씩 반성해보네

편안하게 살려면 탄탄한 길 걷거니와

옛것을 탐구하려면 물길듯 힘써야 하리

액운과 재난이 갈마든다 한들

그 어찌 지닌 뜻 어찌 저버리랴

어이 알랴 순식간에 부닥친 불행

빠질길 없어 한탄할 줄을

근심 속에 살면서도 시름없이 지내거니

아마도 저 하늘은 이 마음을 알아주리<sup>145)</sup>

#### • 어휘 풀이

식견 : 학식과 의견 곧 사물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

명철 : 총명하고 사리에 밝다

날치다 : 제 세상인 양 날뛰며 기세를 올리다

갈마든다 : 번갈아 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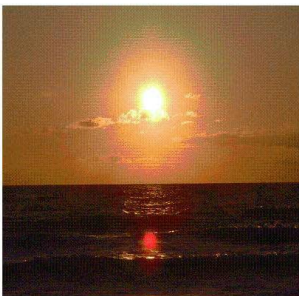
2. 이 글을 읽고 작가가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찾아보자.
3. 어려운 일에 생겼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보자.

<예1>은 유배를 가게 된 불행한 일이 자신의 단점으로 인해 생겼으니 스스로 반성할 뿐 마음속에 시름을 갖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하늘은 자신의 마음을 알아줄 것이라며 스스로를 위안하고 있다. 작가는 자신의 유배가 억울하다고 생각하여 원망하는 마음이 있을 법한데도 그러한 마음에만 빠져있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하늘은 알아주리라 여기며 의지로써 극복하고 있다.

다음에 제시된 글은 유배를 가는 도중에 여운대에서 해돋이를 구경하고 읊은 시이다. 작가는 주변의 경치를 감상할 입장이 아닌 죄인의 처지였음에도 서울을 떠나 유배지로 가는 도중에 마주하게 된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에 경도되고 그것을 시로 형상화하며 자신의 상황을 비관적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예2>

하늘 위에 밝은 해 높이 솟으니



○학년 ○반 이름 :

1. 아래의 글을 읽어봅시다.

29일

새벽에 길을 떠나 여운대를 지나면서 해돋이를 구경하였다. (중략)

145) 김려 저, 앞의 책, 366~367쪽.

여운대 정상에서 해돋이를 바라보며  
(중략)

금빛 알을 품에 안고 누워있었나  
한가운데 밝은 것이 더욱 뚜렷하여라  
삼킬 듯 뱉을 듯 넘실거리며  
이 세상에 나타나기 저어하는 듯

외로 보면 구슬을 펼쳐놓은 듯  
오른편을 돌아보면 유리를 깔은 듯  
황홀한 온갖 채색 아롱진 곳에  
잔물결 넘실넘실 춤을 추누나

기이한 그 광경 알길 없구나  
온갖 신령 예절 차려 사양하는 듯  
어느덧 불덩어리 껍질 터치고  
씻누런 비단장막 들어 올리네

하늘위에 밝은 해 높이 솟으니  
삼라만상 모두들 제 모습 드러내네  
찬란한 금빛햇살 번개로 변한 듯  
만경창파 바다위에 빛을 뿌리니

별안간 은빛가시 뽀족한 끝으로  
잠깐사이 눈의 점막을 긁어내누나  
끝없이 아득한 저기 저 바다  
전부가 드러나서 숨길 길 없네

평생을 산골에서 살아온 이 몸  
바다광경 정녕코 장엄하구나

이것도 나라는혜 미친 덕이라  
감격한 눈물이 줄줄 흐르네<sup>146)</sup>

• 어휘 풀이

만경창파 : 한없이 넓은 바다나 호수의 푸른 물결

2. 글을 읽고 작가의 감정이 강하게 표현된 부분을 찾아보자.

3. 위 글과 같은 광경을 작가의 현재 상황이 아닌 순수한 여정에서 만났다면 어떻게 느껴졌을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보자.

146) 김려 저, 앞의 책, 374~376쪽.

<예2>는 김려가 유배 길에 여운대를 지나면서 보게 된 해돋이 장면을 기록한 것이다. 작가는 장엄한 자연 앞에서 자신의 처지도 잠시 잊고 감격하여 눈물을 짓고 있다. 이 활동에서는 학생들에게 작가의 심정에 감정이입하게 해보고, 다른 상황의 경우도 생각해보게 한다. 그리하여 학생들에게 어떠한 현실에서도 생각하는 바에 따라 상황을 인식하는 방법이 여러 방향에서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예3>

**꿈에 고향집을 보고 적다**

○학년 ○반 이름 :

1. 아래의 글을 읽어봅시다.

선달 25일

고향집에 갔던 꿈을 꾸고 깨어나 적는다.

(전략)

가벼운 걸음으로 집에 이르니  
말소리, 웃음소리 옛날 같은데  
닐찍한 안채의 대청 위에는  
아버님이 한가운데 앉아계셨네.

(중략)

두 동생 나를 보자 너무 기뻐서  
둘러서서 절을 하며 기뻐하고,  
늙은 아내 나를 보자 너무 반가와  
두 손을 끌어주며 눈물만 글썽일 뿐.

(중략)

서글픈 생각에 후다닥 일어나니  
아침 해 높이 솟아 빛을 뿌리네  
이곳에서 서울은 하늘 끝인데  
산과 바다 부질없이 아득하구나

(중략)

지금 내 무슨 죄를 저질렀기에  
거친 이 북방에 오게 되어  
늙으신 부모님 근심케 하는지?  
이 자식 그려 지금도 애태우시리. (후략)<sup>147)</sup>

• 어휘 풀이

대청 : 집채의 방과 방 사이에 있는 큰 마루

2. 위 시의 정경이 꿈속에서의 일임을 알 수 있게 해 주는 곳을 찾아보자.
3. 지은이처럼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대상에게 그리운 마음을 담아 글을 써보자.

<예3>은 고향 집에 가서 부모님과 아내 형제들을 만나 반가운 회포를 풀었지만, 깨어나 보니 꿈이었던 안타까운 마음을 시로 읊은 것이다. 『감람일기』 속에는 이처럼 자신의 심정을 시로 읊은 것이 많이 수록되어 있다. 보고 싶은 사람을 강제로 못 만나는 것만큼 괴로운 일도 없을 것이다. 글 속에서 김려의 가족을 그리는 애절한 마음이 잘 느껴진다. 김려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고통보다는 자신을 염려하고 있을 가족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이 활동에서 자신의 힘들었던 일을 생각해 보게 하고 그것에 대처한 자신의 모습과 작가의 태도와 비교해 보게 하자.

## (2) 문체의 특징

여기서는 『감람일기』의 문체 특징을 살펴 학생들에게 일기쓰기의 다양한 방법을 알게 하고 실제로 일기쓰기에 적용해 보는 활동을 하게 한다.

『감람일기』는 글쓰기 방법에 있어서 독특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일기는 산문의 갈래에 속하는데 『감람일기』는 산문과 운문이 공존하는 일기형식을 취하고 있다. 김려는 먼저 산문으로 하루의 일을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그날 있었던 일 중에서 인상 깊었던 것을 한 편의 시로 형상화하고 있다. 산문에서는 묘사와 서술로써 일어난 사건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시에서는 그때 일었던 자신의 감정을 서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매일 자신의 일을 시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어려운 일로 느껴

147) 김려 저, 앞의 책, 415~419쪽.

질 것이다. 그러나 독특한 일기쓰기의 예로 한 번 시도해 볼 만 하다고 생각한다. 먼저 『감담일기』의 글쓰기 방식을 자료로 제시한 후 학생들에게 그 날 있었던 일을 산문으로 기록하게 한 후 시로써 서정을 표현하는 글쓰기 방법으로 일기를 써보게 하자.

<예1>

### 보리비탈을 지나며

○학년 ○반 이름 :

1. 아래의 글을 읽어봅시다.

18일.

새벽에 길을 떠나 회양을 향하였다. 창도역의 모자를 지나 신안역에서 쉬는데 눈이 마치 비 오듯이 내렸다. 자오포에서 점심을 먹고 소요령을 넘어 밤에 회양에 들어섰다. 새벽에 금성관가사람들과 함께 회양을 향하여 길을 떠났는데 하늘이 음산하고 짙은 구름이 자욱하여 눈이 내릴 것 같았다. 창도역의 모자를 지났다. 항간에서는 모자를 ‘보리비탈’이라고 하였다. 비탈길에는 두 줄의 줄사다리가 있었다. 아침 진시(아침 8시경)로부터 사시(아침 10시경) 사이에 눈이 내렸는데 눈송이가 손바닥만큼씩 하였다. 눈은 펄펄 날아 내려 차츰 쌓이기 시작하였다.

신안역 주막에서 잠깐 쉬고 점심은 자오포에서 먹었다. 눈은 더욱 세차게 내리며 마치 비가 내리듯하였다. 소요령을 넘어 밤에 회양부에 들어섰다. 부사는 이우진이였다. 관가로부터 음식을 풍성하게 내보내주었고 따뜻한 구들을 마련해 주어 추위를 막고 편안히 쉬면서 몸을 돌보도록 해주었다. 그러나 일거일동을 자세히 살피는데 그것은 저도 모르게 포도청에 갇힌 격이었다.

• 어휘 풀이

일거일동 : 하나하나의 행동이나 동작

#### 보리비탈을 지나며

산길을 걷고걸어 백리는 지났으리  
 길고 긴 오솔길은 갈수록 에도는데  
 푸르른 바닷가에 다달은 용이  
 억센 힘 뿜내면서 몸을 서린 듯

크고 작은 발톱들은 울퉁불퉁 바위되고  
 붉고 푸른 지느러미 전나무, 단풍나무 되었나  
 왼쪽을 바라보며 범의 울음 겁을 먹고  
 오른쪽 굽어보며 벌레인가 의심하네

슬며시 양쪽에서 머리를 쳐들고

큰 입을 썩 벌려 누구를 노리는고  
아득히 솟은 것은 숲을 나온 용이런가  
느긋이 뺨은 모양 물로 가는 뱀장언가

동해위에 솟아오른 찬란한 아침해는  
바위를 뚫고나와 쟁반같이 둥그렀네  
소나무 무성한곳 햇별이 퍼져드니  
삼라만상 모든 것이 환하고 찬란하네

한평생 본것이란 너무도 호좁더니  
아름다운 이 광경에 눈을 비비네  
죽음의 길 걷는다 두려워하라  
속마음은 전에 없이 대범하여라<sup>148)</sup>

• 어휘 풀이

에돈다 : 바로 가지 아니하고 멀리 돌아

2. 글을 읽고 산문으로 쓰여진 부분과 시로 쓰여진 부분의 차이점을 찾아보자.

3. 위와 같은 글쓰기 방식으로 자신의 하루 일을 정리하여 보고 그 감정을 표현해 보자.

다음 예문은 작가가 유배 길을 가는 도중에 고개 위에서 말을 세우고 바다를 구경한 것을 시로 표현한 것이다. 산문으로 서술한 부분에서는 그러한 사실과 저녁에 새로 만나게 된 관가 사람 희옥의 친절한 태도를 사실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시에서는 낮에 인상적으로 보았던 바다의 모습과 그것을 보고 느낀 것을 적절한 비유를 사용하여 철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학생들은 이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감정을 서정적 시로 표현하는 것을 해보고 일기의 다양한 글쓰기 방식을 체험할 수 있다.

<예2>

**철문 고개 위에 올라 바다를 보며**

○학년 ○반 이름 :

148) 김려 저, 앞의 책, 339~340쪽.

1. 아래의 글을 읽어봅시다.

21일.

세찬 바람이 불고 몹시 추웠다. 낮이 되어 길을 떠나 철관고개를 넘었고 저물어서 문천부에 들어섰다. 이날은 바람이 세차게 불고 날씨가 지독히 추웠다. 덕원관가 사람들과 함께 길을 떠나 철관 고개위에 올라 말을 쉬게 하며 바다를 구경하였다.

저물어서 문천에 들어섰다. 고을원은 이상준이었다. 향청에 들어서자 정신을 잃고 쓰러져 인사를 못차렸다. 관가 사람인 신희육은 나이가 열여덟 살인데 생김새가 준수하고 마음이 몹시 어질었다. 나의 병이 심한 것을 보더니 딱하게 여겨 집으로 데리고 가서 밥을 지어놓고 먹으라고 권하였다. 내가 손가락을 들지 못하자 희육은 한숨을 쉬면서 꿀물을 풀어두고 미음을 쭉어다가 밥을 새워가며 권하였다.

• 어휘 풀이

향청 : 조선 시대 군현의 수령을 보좌하던 자문 기관

준수 : 풍채가 빼어나다 / 미음 : 쌀이나 좁쌀을 푹 끓여 만든 음식 곧 죽

철문 고개 위에 올라 말을 세우고 바다를 바라보며

동쪽의 한끝이라 여기는 바다  
바다는 하늘과 한동아릴세  
구름은 바다에서 생겨나는가  
그 속에서 뭉게뭉게 피어오르네

자그마한 틈 사이로 피어난 구름  
마침내는 온 바다를 덮어버리네  
저 푸른 하늘은 그 구름 안아  
하나도 남김없이 삼켜버리네

암매한 사람들은 억지로 갈라내어  
하늘, 바다, 구름 각각 구별하지만  
내 여기 와 멀리서 바라다보며  
그 진실 밝혀보려 애를 쓰노라

육신으로 이루어진 사람에 비긴다면  
육체와 정신은 하나이거니  
피는 낱알물에서 이루어져서  
몸 안을 끊임없이 돌고도는 것

들이쉬고 내쉬는 숨결을 따라  
한 기운은 그대로 살을 이루네  
어리석은 시속사람 구별하기 즐겨  
당연한 이치도 못가려보네

넓고넓은 우주가 주머니라면

꿈틀대며 숨쉬는건 작은 벌레들  
식견있는 사람만이 맑게 보나니  
일렁이는 파도 위에 해 솟아나네<sup>149)</sup>

• 어휘 풀이

암매 : 사리에 어둡고 어리석음

2. 이 글을 읽고 산문으로 쓰인 부분과 시로 쓰인 부분에서 느껴지는 것을 이야기해 보자. 그리고 화자의 정서가 잘 나타난 곳을 찾아보자.

3. 위와 같은 글쓰기 방식이 어렵게 생각된다면 그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 일기를 써보자.

<예2>의 활동에서 학생들은 산문과 시의 표현방식의 차이에 대해 알고 글의 형식에서 느껴지는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고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글쓰기 방식을 찾아보게 한다. 교사는 이 활동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일기를 기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학생들에게 자신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일기를 써 보게 하여 일기쓰기의 재미를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

### (3) 시련·좌절의 극복 경험 쓰기의 예시

지금까지 『감담일기』를 통하여 작가가 자신에게 닥친 예기치 않았던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는 심경과 태도를 찾아보았다. 그리고 어려움을 헤쳐 나가며 변화하는 내면세계의 성숙과 이러한 자신의 심경을 ‘시’로 표현하는 글쓰기 형식의 『감담일기』를 통해 새로운 일기쓰기의 전형을 찾아볼 수 있었다.

김려가 일기 속에서 시로써 자신의 감정을 술회한 것은 ‘시’가 철저하게 자기 주관적 사고의 결과이기에 좌절에 빠진 자신을 돌아보기에 적절한 표현 형식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감담일기』의 이 같은 글쓰기

149) 김려 저, 앞의 책, 352~353쪽

방식은 대체적으로 산문형식의 일기쓰기에서 벗어나는 또 다른 모습의 일기이며 수준 높은 일기쓰기의 방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는 학생들에게 이와 같은 『감담일기』의 표현 방식을 적용하여 실제 학생들의 좌절과 극복 경험을 쓰게 한다. 그리고 이 활동을 통해 시련을 극복하는 자신의 의지와 태도 등을 돌아보게 한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뿐만 아니라 어려운 환경에 있는 또래 학생들의 일기를 읽기 자료로 제시한 후 느낀 점을 일기로 써보게 한다.

<예1>

### 체험담 읽기 - 자신의 경험 쓰기

○학년 ○반 이름 :

1. 『감담일기』의 글쓰기 방식을 적용하여 자신의 일기를 완성해 보자.
2. 산문으로만 일기를 쓸 때와 어떤 점이 다른지 이야기해 보자.
3. ‘시’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무엇인지 말해 보자.
4. 산문으로 쓴 일기와 ‘시’형식의 일기에서 느껴지는 점을 비교해 보자.
5. 다음 글은 한 청소년 가장의 체험 수기이다. 이 글을 읽고 느낀 점을 말해 보자.

청소년들의 체험 수기 인용

6. 위 글을 읽고 지은이의 생활태도에 대해 말해 보자.
7. 자신이 지은이와 같은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생활하였을지 생각해 보자.

8. 위와 같은 체험 고백이 주는 감동에 대해 말해 보자.

9. 가장 힘들었던 경험과 그 때 나에게 위안을 주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자신의 경험을 글로 써 보자.

<예1>은 『감담일기』의 글쓰기 방식을 이해하고, 이와 같은 형식으로 일기쓰기를 지도해 보려는 것이다. 그리고 또래 청소년들의 체험담을 읽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환경의 학생들을 이해하게 하고 자신의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생각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교사는 청소년들의 체험수기 중에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씩씩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표현한 것, 자신의 환경을 비관하지 않고 오히려 주변을 돌보며 살아가는 학생들의 글을 자료로 제시하고 학생들에게 체험담이 주는 감동에 대해 이해하게 한다. 그리고 직접 자신들의 경험을 글로 써 보게 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생활공간 안에서 자칫 좁아질 수 있는 시야를 좀 더 넓게 할 수 있고 사람과 세상에 대한 이해의 폭도 커질 수 있을 것이다.

## IV. 일기의 교육적 의의

### 1. 일기의 인성 교육적 의의

일기교육은 현재 중등학교 과정 교과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항목이다. 따라서 일기에 대한 교육은 학교에서 공식적인 담론으로 가르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일기교육은 교사의 ‘교육적 담화’에 편입될 수밖에 없다.

흔히 청소년기는 가치관을 확립하고 자아를 성숙하게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교육현장인 학교에서는 학과 수업과 입시에 밀려 인성교육은 공허한 외침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공교육에서의 일기교육은 거의 초등학교에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십대에 형성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남은 삶을 살아간다고 할 수도 있는 인생에서 지식보다도 중요한 것이 인격을 갖추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시대와 사회가 변하였지만, 선인들의 일기에서 여전히 유효한 교육적 가치들을 찾아볼 수 있다. 일기를 반드시 교훈적으로 써야 한다는 법은 없다. 그러나 자신의 하루를 기록한다는 점에서 의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이 점 하나로도 일기쓰기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된다.

청소년기의 가치관 교육이 왜 중요하며, 일기 교육이 왜 십대에 필요한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기란 한 개인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기록해 놓은 글이다. 그렇다면 한 개인의 일상적 삶의 모습을 기록하는 일기란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일기가 가지는 의미를 추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개인적 차원의 의미로서 개인으로 하여금 현재적 삶을 성실히 살아갈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역사적 차원의 의미로

서 일기를 통해 한 사람이 살다 간 삶의 의미가 후세 사람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역사적 비판의 자료로 작용하게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일기는 개인적 차원의 의미에서건 역사적 차원의 의미에서건 한결같이 삶의 증언(證言)인 것이며, 우리는 이 삶의 증언을 통해 한 인간의 진솔한 삶의 모습과 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sup>150)</sup>

일기는 하루의 생활을 조용히 돌이켜 보고 스스로의 삶을 반성해 보기 위해 쓰는 글이다. 따라서 일기는 개인의 삶에 대한 반성적 기록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그러므로 일기를 쓰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하루의 삶을 돌이켜 보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스스로의 삶에 대한 잘잘못을 객관적으로 응시할 수 있게 되어 올바른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현대인은 자칫 반성적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가 쉽다. 특히 현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는 지나치게 앞만 보고 내달리는 경향이 있으며, 스스로를 감각적 열정에 내맡기려는 성향이 있다. 이런 점을 극복하기 위해 일기를 쓰는 습관은 매우 필요한 일이다. 일기를 쓰게 되면 자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스스로의 삶을 성찰해 보는 바람직한 인격자로 거듭나게 될 수 있다. 이처럼 반성적 기록으로서의 일기는 우리를 인격자로 거듭나게 하는 삶의 스승인 것이다.<sup>151)</sup>

청소년기는 가치관 형성에 중요한 시기이다. ‘가치관’이란 가치(價値)를 보는 관점(觀點), 또는 가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안목(眼目)이라 할 수 있다. 이 말은 가치를 보는 관점이나 안목이 없이는 가치의 세계를 볼 수가 없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가치란 무엇이며, 그것을 보는 안목이란 무엇인가?

가치란 값이 있는 것이며, 값이 있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의미란

150) 서울시립대학교 교양교재편찬위원회, 『대학인의 글쓰기』, 새문사, 1999, 84쪽.

151) 서울시립대학교 교양교재편찬위원회, 앞의 책, 86쪽.

어떤 상황이나 대상과 나와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그것은 나와 관련성이다. 따라서 이 때의 의미(意味)는 개인적이고, 사적이며, 주관적인 가치라고 하겠다. 그러나 어떤 특정 상황이나 대상과 나와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의미를 타인과 공유할 수 있다. 의미를 타인과 공유하게 될 때 그것은 주관성을 벗어나 객관성을 지니게 된다. 그 때 그 의미는 사적인 것이 아니라 공적인 것이 되고, 사회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 이처럼 의미가 주관성을 벗어나 객관성을 지니게 될 때 그것은 사적인 의미의 차원을 넘어 공적, 사회적 의미의 차원, 즉 가치의 차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따라서 의미는 ‘사적인 차원의 가치’ 라고 하면 가치는 ‘사회적 차원의 의미’ 라고 하겠다.

실제로 한 개인의 가치관은 그의 구체적인 삶의 체험을 통해 체득한 사적인 의미나 공적인 가치들이 서로의 관련을 맺으면서 개인수준에 있어서는 신념수준으로 내면화되는 것이고, 한 사회에 있어서는 그 사회 구성원 누구나 공유하는 공적 가치평가체제로 정형화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 개인이나 한 사회에 독자적인 가치관이 산뜻하게 체제화 되기까지는 무척 오랜 기간을 필요로 한다. 개인의 가치관이 아니라 한 사회의 가치관이 체제화 되기까지는 더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고 하겠다. 가치관 형성과정의 이러한 성격 때문에 한 개인이 형성한 가치관이나 한 사회의 기존의 가치관이 변화한다는 것도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고,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한다. 해방이후 우리사회가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온 지 60년 가까이 되지만 가치관의 부재, 가치관의 혼란 등의 아노미 현상을 운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 개인에게 있어 가치관이란 삶의 체험을 통해 신념수준으로 내면화되고, 체제화된 ‘의미평가 기준’ 이라 하겠고, 이러한 기준이 형성되어 있을 때, 인간은 비로소 바르건 그르건 간에 가치의 세계를 볼 수 있고, 평가할

수 있는 안목을 지닌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비슷한 심리발달 단계에 있는 청소년들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가치관의 특성은 무엇일까?

본고에서 말하는 청소년이란 구체적으로 학령으로 보면 중·고등학생에 해당하는 연령층이다. 발달과업의 측면에서 보면 이들은 성(性) 역할을 알아야 하는 때이고, 이성과의 새로운 인간관계도 이룩해야 하는 때이며, 부모나 성인으로부터 정신적으로 독립을 해야 할 때이고, 직업을 선택하고 준비를 해야 하며, 성인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어야 하는 때이다. 그리고 결혼과 가정생활에 대한 준비도 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정신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인 자아정체성(Identity)을 확립해야 하는 등의 해결하기 어려운 엄청난 과제를 안고 있는 시기이다. 따라서 그들의 가치관의 특징은 첫째로 과도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심신의 발달만이 아니라 가치관 형성의 측면에서도 중간자적인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하겠다. 그들은 이미 아동기를 통하여 인습수준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으나 인습 이후 수준의 가치관을 확립하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더욱이 불행한 것은 이들이 학습해야 하는 우리 사회의 인습수준의 가치관도 ‘아노미’ 현상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이 연령층의 청소년들은 심신의 발달단계에 상응하는 성인수준의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할 때이고, 자의식이 높아지면서 독자성 있는 자아정체성을 확립하려고 탐색하는 시기이다. 따지고 보면 자아정체성이란 독자성 있는 인격을 의미하며, 인격의 구체적인 내용은 가치관이다. 따라서 이 시기의 청소년들의 가치관의 특징은 심신의 발달에 상응하는 이상적인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한 탐색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이상적이고, 독자성 있는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하여 부모나 기성세대로부터 정신적으로 독립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유 없는 반항을 하는 시기이며, 부모나 기성세대의 친숙한 그늘에서 벗어나는 불

안을 해소하기 위해 또래집단과 다시없는 인간관계를 맺는 결정적인 시기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인습수준에서 체제화한 기존의 가치관에 거부반응을 나타내고, 또래집단에 지대한 영향을 받으면서 독자성 있는 가치관을 부단히 탐색해가는 시기이다. 그래서 그들은 개성을 강하게 나타내려고 시도한다. 따라서 이상적이고, 독자성 있는 가치관 형성에 전문적인 지도와 조언을 필요로 하는 가장 좋은 시기라 하겠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가치관 조사연구<sup>152)</sup>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들은 자유연애 방식으로 가정을 꾸리고, 가정을 중심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자기 양심과 책임 하에 인생을 즐겁게 사는 것이 그들의 바램이었다.

민주적 자본주의의 삶의 형식을 크게 지배하는 원리는 자유경쟁이고, 궁극적인 삶의 목표는 사람다운 삶이지만, 직접적인 목표는 자본이다. 그리고 이 삶의 형식은 학력주의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 그래서 이 삶의 경쟁에서 이기는 비결은 학력이고, 학력은 교육에 의해서 결정된다. 따라서 이 삶의 생생한 경쟁은 학력경쟁에서 볼 수 있다. 입시경쟁이 해가 갈수록 치열해 지고, 고학력의 사회로 치닫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다. 그리하여 우리교육의 이념이 홍익인간(弘益人間)에 있고, 전인교육이니 인간교육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교육이 경쟁의 도구로 전락한 것은 그 때문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오늘의 한국 청소년들의 가치관을 크게 지배하는 삶의 원리는 학력경쟁이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삶은 누구나 힘겹고 피곤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삶이 된다.<sup>153)</sup>

이러한 청소년들의 상황에서 좀 더 인생을 즐겁고,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가치관과 품성을 길러주는 것이 교사로서의 소임이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교육에 적합한 것으로 학과 중심의 교과목 교육보다는 일기교육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일기쓰기를 통하여 자신의 내면을

152) 이계학 지음, 『품성을 기르는 교육』, 도서출판 원미사, 2003, 52쪽.

153) 이계학, 앞의 책, 45~55쪽 참고.

살펴보고, 일상과 삶을 관찰하고, 세태를 비판하는 안목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점차 성인으로서 세상을 보는 눈을 띄워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일기의 인성 교육적 의의는 이러한 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 2. 일기의 문학 교육적 의의

우리는 매일 매일을 쏟아져 나오는 글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매일 쏟아져 나오는 글 중에는 흥미롭기도 하고 읽어서 도움이 될만한 글도 적지 않지만, 독자의 흥미를 끌지 못하는 글들도 많다. 독자의 흥미를 끌지 못하는 글들은 대개 발상 자체가 상투적이고 그 내용도 판에 박힌 진부한 것들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읽는 사람의 관심을 끌고 여러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글을 쓸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글 속에 새로움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새로움이란 발상의 새로움이며 사물을 바라보는 눈의 새로움, 그리고 표현의 새로움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글을 쓸 때마다 기상천외한 이야기만 쓰려고 한다면 쓰기도 쉽지 않고, 독자의 공감을 얻기도 힘들다. 비록 소재가 낯익은 것이라고 해도 글 쓰는 사람의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표현법에 따라 얼마든지 새롭고 참신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글이 될 수 있다.

글을 쓰는 일이란 어떤 의미에서는 예전에 무심히 지나쳤던 문제들이나 나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했던 사물들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고, 그것들이 나와 별개의 것이 아님을 발견하여 그것을 표현해 내는 일이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에는 매우 많은 사물과 일들이 있다. 그런데 이들은 결코 나와 무관하지 않다. 사물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자세한 관찰을 통해 우리는 그 사물과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이러한 관계 형성과

새로운 인식이 좋은 글을 쓰는 데 꼭 필요한 것이다.<sup>154)</sup>

사물을 바라보는 눈의 새로움, 표현의 새로움 이러한 안목을 매일 매일의 일기쓰기를 통하여 길러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일기를 쓰는 요령 중의 하나는 하루의 일 중 인상적인 것만을 중심으로 써 나가는 것이다. 매일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일은 일기의 소재가 될 수 없다. 우리의 삶은 대부분 일상적인 것의 반복으로 채워져 있으며, 특징적인 것이거나 인상적인 것은 그리 흔하게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흔히 일어나는 일상적인 삶도 보는 시각, 느끼는 각도에 따라서는 매우 다른 양상으로 다가올 수 있다. 무심히 지나치던 정원의 한 그루 나무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 있다.

좋은 일기를 쓰려면 일상의 단조로움을 깨려는 노력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일상의 단조로움을 깨기 위해서는 대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려 하고 남다른 감각으로 포착하려 하는 마음의 자세를 지녀야 한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지닐 때 진부하게 느껴지던 일상적인 삶도 새로운 시각으로 다가오고, 남다른 감각으로 느껴지게 된다. 이처럼 대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남다른 감각으로 포착하려 할 때, 우리는 일상의 단조로움, 진부함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며, 일기는 잔잔한 감동의 세계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대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남다른 감각으로 포착하려 할 때 우리는 사물에 대한 관찰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게 된다. 그것은 사물에 대한 날카로운 관찰력이나 깊이 있는 사고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대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도 없고, 남다른 감각으로 포착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일기를 쓰는 일은 우리의 관찰력과 사고력을 신장시키는 데도 바람직한 작용을 한다.

---

154) 한양대학교 국어교육위원회 편, 『글과 생각』,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1, 3~4쪽.

일기는 사물에 대한 예리한 관찰력과 튼실한 사고력을 키워준다. 그런데 우리가 사물에 대한 예리한 관찰력과 튼실한 사고력을 지니게 되면 대상을 보다 깊이 이해하게 되고 나아가 현상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된다. 대상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현상을 새롭게 인식하는 일은 곧 우리의 삶을 다채롭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 일과 통한다. 우리가 다양한 차원에서 대상을 인식하게 되면 대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갈 수 있게 되며, 이와 비례하여 우리의 삶도 풍요로워질 것이기 때문이다.<sup>155)</sup>

매일 매일 생활하면서 접하는 일들은 일순 평범하고, 반복된 것 같지만, 그 속에서 느끼는 감정은 새로울 수 있다. 자신만이 느낄 수 있는 순간의 감정들을 표현하면서, 자연스럽게 나를 설명할 수 있는 기술도 습득할 수 있을 것이다. 처음부터 문학적으로 아름다운 글을 쓰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일기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글이 아님을 강조하고, 학생들에게 스스로의 생각을 쉽게 써보게 하자. 평소 일기쓰기에 대한 학생들의 두려움을 없애는 일부러 한 다음, 좋은 일기작품을 보여주고, 그것을 참고로 하여 자신들의 일기를 써보도록 하자.

7차 교육과정 해설서의 문학 교수·학습 방법항<sup>156)</sup>을 보면 ‘문학’ 과목의 지도는 교사와 학습자의 자율성, 창의성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교수·학습 계획을 수립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문학 교육의 본질은 학습자의 정서를 자극하여 자유로운 상상력을 촉발하는 데 있다. 이때 교수와 학습 양면에서 자율성과 창의성이 발휘되지 않으면 문학 교육의 본질을 구현했다고 하기 어렵다. 또한 작품의 수용 활동은 강의, 강독에 치우치지 말고, 발표, 토의, 토론, 협동 학습, 현장 학습, 감상문과 비평문 쓰기 등 다양한 방식을 적절히 활용하여 지도한다고 되어 있다. 이 같은 문학교육의 기본방향에도 일기 교육이 적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많다고 생각한다.

155) 서울시립대학교 교양교재편찬위원회, 앞의 책, 86~88쪽 참고.

156) 교육부 고시 1997-15호,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국어, 교육인적자원부, 319~326쪽.

Ⅲ장에서 살펴본 한문일기 유형별 활용 방안은 현행 일기교육의 현실에서 학생들에게 선인들의 일기를 통해 재미있고 유익한 일기쓰기의 전형을 보여 주기 위해서였다.

한문일기의 문학 교육적 의의는 첫째, 본고에서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활동들을 통해 학생들이 매일의 일상에서 자신들의 정서를 촉발하는 일을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을 통해 수준 높은 언어활동을 하는데 있다. 그리고 당시의 교양인이자 지식인이었던 작가들의 한문일기를 읽고 우리 고전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것 역시 일기의 문학 교육적 의의라고 생각한다.

## V. 결 론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의 생활과 문화의 양태가 글쓰기와 자기와의 대화를 외면하는 쪽으로 변해가고 있다. 책을 읽기보다는 라디오나 텔레비전 또는 컴퓨터와 같은 전자매체에 의지해 생활하는 현실은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시각이미지의 직접성이 빚어내는 강렬성은 언어의 간접성을 압도하게 마련이다. 그 결과 사고가 끼어들 틈이 없어지고 있다. 결국은 시각 문화에 압도되어 상상력의 빈곤을 가져오게 된다. 상상하지 못하는 존재를 어찌 인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 현실이 이러할 때 우리 인류가 인간으로서의 삶을 그답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진지하게 궁리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sup>157)</sup>

본 연구는 이처럼 읽기와 글쓰기에서 멀어진 현실에서 학생들에게 한문일기를 활용한 읽기 교육, 쓰기교육을 할 수 있는 일기교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한문일기의 다양한 교육적 가치에 주목하여 중등과정의 학생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른 방법론으로 체계적 논의를 위해 현행 일기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찾아보고 우리나라의 일기 전통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한문일기를 활용한 일기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글쓰기 교육 외에 인성교육을 추구하는 것도 목적이었다. 이를 위해 한문일기를 읽기 자료로 제시하여 선인들의 일기에서 교육적 의의를 찾아내고자 하였다.

본고에서는 한문일기의 여러 유형 중에서도 중등과정의 일기교육 성격에 교육 자료로 적합하다고 여긴 생활일기, 여행일기, 유배일기를 택하여 이를 중심으로 일기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일기들의 내용이 자아성찰과 심미 체험, 문화체험, 시련과 좌절의 극복 의지 등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는 자료

---

157) 김대행, 『문학교육 뜯짜기』, 역락, 2000, 226쪽.

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읽기 자료로 제시된 한문일기를 읽고 내용을 이해하고 직접 자신의 일기쓰기에 적용하여 자신이 보고 느끼고 생각한 바를 쓰게 하여 자연스럽게 글쓰기 능력도 향상될 수 있도록 하였다.

본고에서 추구한 한문일기 교육은 일기쓰기와 아울러 한문일기 자료를 학생들에게 읽기 자료로 제공하여 선인들의 가치관, 인생관을 살펴보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함으로써 인성교육과 동시에 고전일기 읽기교육도 하여 종합적인 일기교육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Ⅲ장의 한문일기 유형별 활용 방안에서는 생활일기, 여행일기, 유배일기에서 각 유형별 일기의 교육 방안을 내용적 측면, 문체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학생들이 직접 자신의 일기를 써보는 활동을 하게 하였다.

이를 통해 고전일기를 활용한 일기교육을 하는 것이 문학교육임과 동시에 인성교육을 할 수 있고 글쓰기 교육을 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는 것을 학생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하였다.

좋은 일기란 자신에게 정직하면서 일기 쓰는 과정을 통하여 자신을 성숙시키고 발전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한문일기에서는 이러한 좋은 일기의 모범이 될 만한 작품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다. 학생들에게 일기교육을 할 때 무조건 일기를 쓰면 도움이 되니까 쓰라고 하는 것보다 좋은 일기 작품을 읽기 자료로 풍부하게 제시해 주고 일기쓰기가 한 인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하여 자발적인 일기쓰기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이상적인 일기교육이라고 생각한다.

연구를 마치면서 많은 학생들이 좋은 한문일기 작품들을 감상하고 그 속에서 인생을 배우고 문학과 글쓰기를 배워 일기쓰기의 즐거움을 알게 되고 스스로 일기를 쓰게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 만드시 당대의 지식인이었던 한문일기 작가들의 일기처럼 문학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수준 있는 일기를

쓰라는 것은 아니다. 몇 줄의 글이라도 자신의 솔직한 내면이 드러난 일기를 갖는다는 것은 자기 삶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소중한 친구를 얻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아쉬운 점은 일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여전히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중등교육과정에서는 그 전망을 알 수가 없다는 데 있다. 그러나 스스로 즐겨하는 것을 막을 수 없듯이 학생들이 일기쓰기에 공감하고 자의에 의해 일기쓰기를 생활화한다면 무엇보다 반가운 일이 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학생들에게 일기쓰기의 재미, 한문일기들이 가지고 있는 흥미로운 내용들을 통해 자신의 일기쓰기 작업도 이처럼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 하지만 부족한 솜씨로 인하여 의도한 만큼 잘 드러나지 못한 것 같아 민망한 마음이 든다. 아울러 일기교육 자료로 활용한 작품이 과장되게 말하면 해변의 모래알처럼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처 다루지 못한 한문일기 작품 외에도 국문일기 역시 학생들에게 좋은 일기 교육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궁색한 변명을 한다면 국문일기는 한문일기보다는 자료를 찾아 읽기가 용이하므로 굳이 작품 안내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 생각하였다.

마지막으로 본고의 일기교육 활용 방안에서 교사의 평가를 배제한 것은 평가를 통한 일기교육이 교육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회의가 들었기 때문이다. 일기교육에서는 여타의 교과목 교육과는 다른 고유한 일기만의 특성 때문에 교사의 평가를 배제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평생을 살면서 일기를 꾸준히 쓰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지 알 수 없지만 다른 어떤 시기보다도 청소년기의 일기쓰기가 인생에 있어 가지는 의미는 지식교육보다 결코 가볍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른 이의 눈에 보이기 싫스러운 글이지만 중등학교 교사의 일기교육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참 고 문 헌

### 1. 문집 및 교과서

- 강황구 외, 고등학교 『문학』, 상문연구사(하), 2004.
- 교육인적자원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국어-』, 교육부 고시 1997-15호.
- 교육인적자원부, 『생활국어 1-2』
- 김려 지음, 오희복 역, 조선고전문학선집 72 『김려작품집』, 문예출판사, 1990.
- 김창원 외, 고등학교 『문학』, 민중서림(하), 2003.
- 담양향토문화연구회, 『미암일기』 전5권, 1992~1996.
- 박갑수 외, 고등학교 『문학』, 지학사(하), 2004.
- 박경신 외, 고등학교 『문학』, (주)금성출판사(상), 2003.
- 홍신선 외, 고등학교 『문학』, (주)천재교육(하), 2003.

### 2. 단행본

- 고연희, 『조선후기 산수기행예술 연구』, 일지사, 2001.
- 국어교육위원회 지음, 『글쓰기와 삶』,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6.
- 김대행, 『문학교육 틀짜기』, 역락, 2000.
- 김명호, 「『熱河日記』 연구」, 창작과비평사, 1990.
- 김창협 외, 민족문화추진회 편, 『명산답사기』, 솔출판사, 1997.
- 남효운 외 저. 김용곤 외 역, 『금강산 답사기』, 혜안, 1998.
- 박재환, 일상성·일상생활연구회 편, M. 마페졸리, H. 르페브르 외 지음, 『일상생활의 사회학』, 한울아카데미, 1994.
- 박제가 지음, 안대회 옮김, 『궁핍한 날의 벗』, 태학사, 2000.

박지원 지음, 민족문화추진회 편집, 『국역 열하일기』, 민족문화추진회, 1968

박지원 지음, 임정기 엮음, 『열하일기』, (주)민문고, 1980.

박지원 지음, 전규태 옮김, 『열하일기』, 범우사, 1995.

박혜일 외, 『이순신의 일기』,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8.

서울시립대학교 교양교재편찬위원회, 『대학인의 글쓰기』, 새문사, 1999.

소재영·김태준 편, 『여행과 체험의 문학』, 민족문화문고간행회, 1987.

신규수, 『유배, 유배지, 얽힌 바람2』, 이유, 2000.

심경호, 『한문산문의 내면 풍경』, 소명출판, 2001.

안대회 엮음, 『조선후기 소품문의 실체』, 태학사, 2003.

윤원호, 『근세일기문의 성격연구』, 국학자료원, 2001.

이경수 외 편역, 『17세기의 금강산 기행문』, 강원대학교 출판부, 2000.

이계학 지음, 『품성을 기르는 교육』, 도서출판 원미사, 2003.

이동항 저, 최강현 역, 『해산록』, 국학자료원, 1995.

이복규, 『목재일기에 나타난 조선전기의 민속』, 민속원, 1999.

이우경, 『한국의 일기문학』, 집문당, 1995.

이지호, 『글쓰기와 글쓰기교육』, 서울대학교출판부, 2002.

이혜순 외, 『조선 중기의 유산기 문학』, 집문당, 1997.

장덕순, 『한국 수필문학사』, 도서출판 박이정, 1995.

정창권, 『홀로 벼슬하며 그대를 생각하노라』, 사계절, 2003.

조동길 저, 『공산일기 연구』, 국학자료원, 2000.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3, 지식산업사 제3판, 1994.

최강현 역주, 『지암(遲庵)의 해산록(海山錄)』, 국학자료원, 1995.

최강현, 임치균 공역, 『보진당연행일기(葆眞堂燕行日記)』, 국학자료원, 1992

최강현 역주, 『후송 유의양 유배기 남해문견록』, 신성출판사, 1999.

최석기 외 옮김, 『선인들의 지리산 유람록』, 돌베개, 2000.

한수영, 『소설과 일상성』, 소명출판, 2000.

한양대학교 국어교육위원회 편, 『글과 생각』,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1.

### 3. 논문

- 김경화, 「『丙子日記』에 대한 여성문학적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04.
- 김성기, 「일기쓰기 지도방법이 작문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 석사논문, 1998.
- 김신연, 「『西宮日記』 연구」, 숙명여대 석사논문, 1985.
- 김하라, 「日記文學으로서의 『欽英』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01.
- 민영대, 「『癸丑日記』의 비극적 구성」, 『한남어문학』 11집, 1985.
- 박연호, 「계축일기와 당시 한문일기들의 대비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83.
- 박을수, 「회와 윤양래의 일기 고찰」 -<북천일기(北遷日記)>의 발굴을 통해, 『연민학지』 제9집, 연민학회, 2001.
- 박준원, 「담정 김려 시 연구」, 성균관대 석사논문, 1984.
- 배소현, 「일기의 ‘유형별 지도 매개’ 구안과 적용으로 창의적 작문력 신장」 『연구논문집』 제50집, 부산직할시 교육연구원, 1991.
- 변순희, 「일기체 문학 『병자일기』 연구」, 울산대 석사논문, 1999.
- 서종남, 「조선조 ‘國文日記’ 연구 - 『산성일기』와 『화성일기』의 심층적 고찰」, 성신여대 박사논문, 1994.
- \_\_\_\_\_, 「『화성일기』 연구」, 성신여대 석사논문, 1978.
- 소현수, 「조선시대 ‘유산기’ 를 통해 본 전통경관 연구」, 서울시립대 석사논문, 2002.
- 송재용, 「한국 일기문학론 소고」 『한문학논집』 14, 1996.
- \_\_\_\_\_, 「『眉巖日記』 연구」, 단국대 박사논문, 1996.
- 우영선, 「NIE 일기 쓰기를 통한 글쓰기 능력 신장 방안 연구」, 경희대 석사논문, 2003.
- 윤여준, 「분석지도를 통한 일기 쓰기 능력 신장 연구」, 공주교대 석사논문,

2000.

- 이동찬, 「癸未(계미) 통신사행 기록의 장르 선택」-<해사일기>와 <일동장유가>를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제18집, 한국문학회, 1996.7.
- 이상주, 「이문건의 양아록-16세기 사대부의 자손양육의 체험적 시편」 『한국한문학연구』 제19집, 한국한문학회, 1996.
- 이승복, 「적소일기(謫所日記)의 문학적 성격과 가치」, 『고전문학과 교육』 제5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3.2.
- 이연성, 「『意幽堂 일기』의 문체고」, 이화여대 석사논문, 1974.
- 이우경, 「『東溟日記』의 여행과정과 표현 이미지 분석」, 『국어국문학』 96집, 1985.
- 이채연, 「실기의 문학적 특징」 『한국문학논총』 제15집, 1994.
- 임치균, 「『간양록(看羊錄)』 연구 : 사실 제시와 체험의 형상화」, 정신문화연구 2001 여름호 제24권 제2호(통권 83호)
- 장규순, 「일기쓰기를 통한 쓰기 능력 신장」, 단국대 석사논문, 1995.
- 장원주, 「만화일기의 국어교육적 의미 연구」, 진주교대 석사논문, 2000.
- 정병호, 「김려의 ‘전’ 연구」, 경북대 석사논문, 1988.
- 정하영, 「조선조 일기류 자료의 문학사적 의의」 『정신문화연구』 65, 1996.
- 전경목, 「일기에 나타나는 조선시대 사대부의 일상생활 - 오회문의 「쇄미록」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19권4호, 통권65호, 1996.
- 조남호, 「‘실천 일기’ 쓰기 지도를 통한 실천적 인성 교육 방안에 관한 연구」 『부속학교 교육논문집』 17,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1996.12.
- 천은정, 「대화 일기를 통한 한국어 쓰기 교육 연구」, 경희대 석사논문, 2003.
- 허준구, 「담정 김려의 시세계」, 성균관대 박사논문, 2001.
- 현혜경, 「16세기 잡록(雜錄) 연구」-<음애일기><용천담적기><견한잡록>을 대상으로, 『한국고전 연구』 제6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0.12.
- 홍기옥, 「일기 쓰기를 통한 글쓰기 능력 신장 연구」, 아주대 석사논문, 2000.

## ABSTRACT

### A Plan for Diary Education Using Chinese-composition Diary

Lee In-ok

Major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diary education in the current secondary-school process, is the item that is not included in the curriculum. Accordingly, it is not too much to say that diary education ends in elementary school. However, it has a bigger educational meaning being possessed by a diary in adolescence that is the secondary-school process, which fails to do diary education actually and rightly. As the adolescence is the time that establishes value system and allows ego to be matured, it is the time that can be said to proceed with living the rest of life, based on the value system that was formed at this tim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necessity of performing diary education in the secondary process during the adolescence when is this important time, and to seek for its educational plan. It is thought that what is important to students more than knowledge is to live every day meaningfully and happily.

A teacher needs to make it available for knowing that a diary is excellently literature work itself and for having interest in writing a diary, by putting forward good diary work, rather than ordering students,

who don't write a diary, to unconditionally write a diary with the educational mission.

In the diary work of predecessors, it can be still found the effectively educational value in the face of having been changed in a time and society. Even among them, the reason for having paid attention to Chinese-composition diary work, is because of having thought that the writing skill that is witty and animated, and the attitude toward proceeding with living piously as a Confucian scholar in terms of writers who can be said to be contemporary intellectuals, become good materials in the aspect of diary education. Nevertheless, because of having been little known, students cannot access easily, it utilized it by putting forward as the reading materials.

With this objective, this study presented a plan for diary education centering on the living diary, the travel diary, and the exile diary even among Chinese-composition diaries. The living diary can be said to be a diary that recorded common daily life except special experience. The educational meaning of a living diary is in being able to establish the identity of ego while performing the diary writing and to carry out the better writing based on oneself's identity that was established that way. The living diary allows students who feel difficulty in writing a diary every day to recognize that writing a diary is not a difficult matter and that there is no need to be surely elegant prose like the writing of a professional writer, by taking advantage of the 『Miam Diary』. Also, it makes it available for searching for the writing material of a diary in the middle of life, for observing and speculating on daily life with new sight,

and for practicing its application to writing a diary of oneself.

Next, it presented a method of diary education utilizing the travel diary. The travel diary is to describe the experience, which saw, heard and felt in the traveling process, in the form of a diary. This study took advantage of Yusan Journals (Journal of traveling to mountains), which are possessing the most part among the sightseeing diaries that recorded the experience of sightseeing on mountains and waters, with having a similar characteristic to today's individual travel, as the material of travel diary. In Yusan Journals are compositively enriched with writers' historical consciousness and thought, and cultural talent. In addition, Yusan Journals are accepted a variety of tales and legends and also included numerous poems in the work, thereby having a characteristic of compositively literature style, which sent forth a writer's literary attainments to the full. Like this, in the travel diary are well displayed the cultivation of mind, the aesthetic experience, and the cultural experience of the contemporary intellects. These days, the overseas travel as well as domestic travel also became free, and even students became active in the family travel as well as in an opportunity of the group travel through a picnic, the study by inspection, the field learning, a school excursion, and camp activity. What leaving this precious experience with a record, will be able to be utilized in materializing students' aesthetic experience and cultural experience as the self-maturity. This study will try to research a plan to apply merits of the travel diary like this to the diary education.

Finally, what trying to utilize the exile diary results from the following

reasons. There is no punishment called exile nowadays, but there are many cases that come to experience frustration like banishment even in our life these days. The modern times brought about the material abundance thanks to the development of science, but the side effect also occurs no less than it. A result, appearance and the career planning also may be serious agony or frustration to students in adolescence. It aims to search for a method of overcoming when this trial and frustration happen to myself, in 『Gamdam Diary』, which is the exile diary. When having been said that only oneself's will proceeds with overcoming the painful reality, even though a cause for frustration is different, it can make it possible to know how to endure oneself's trial through the exile diary.

This study presented the materials of Chinese-composition diary aiming at the diary education, and this is because the appreciation of a classical diary can become the diary education as well as the literature education. Further, writing a diary is the education of human nature and simultaneously can become a method of literature education. If students can appreciate the diary works that predecessors wrote, understand diverse methods of writing a diary, and utilize this for writing for themselves, it will be achieving both the classical education and the diary education.